

2017

The Helen Chapin Korean Book Collection in the Bryn Mawr College Library

National Library of Korea

In Korean and English (Eric Pumroy, "Bryn Mawr College and the Helen Chapin Korean Book Collection," pp. 14-22).

[Let us know how access to this document benefits you.](#)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repository.brynmawr.edu/bmc_books



Part of the [Arts and Humanities Commons](#)

Citation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Helen Chapin Korean Book Collection in the Bryn Mawr College Library" (2017). *Books, pamphlets, catalogues, and scrapbooks*. 35.

https://repository.brynmawr.edu/bmc_books/35

This paper is posted at Scholarship, Research, and Creative Work at Bryn Mawr College. https://repository.brynmawr.edu/bmc_books/35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repository@brynmawr.edu.

국외소재 한국 고문헌 조사보고서 5

미국브린모어대학 소장

한국고문헌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일러두기

- 이 조사보고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외소재 한국 고문헌 조사 및 수집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에 실시한 미국브린모어대학 소장 자료 조사의 결과이다.
- 목록의 기술은 한국목록규칙 제4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을 따랐다.

서지조사 Bibliography

이혜은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Lee, Hye-Eun |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한지희 |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

Han, Jihee | Curator, National Library of Korea

해제 Annotation

한지희 |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

Han, Jihee | Curator, National Library of Korea

논고 Article

이혜은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Lee, Hye-Eun |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한지희 |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

Han, Jihee | Curator, National Library of Korea

Eric L. Pumroy | Seymour Adelman Director of Special Collections, Bryn Mawr College



목차

Contents



論考

미국브린모어대학 소장 한국전적문화재 조사의 과정과 의미	10
Bryn Mawr College and the Helen Chapin Korean Book Collection	14
[번역문] 브린모어 컬리지와 Helen Chapin의 한국장서	22
헬렌 채핀 장서의 구성과 특징	30

經部

계몽편언해	34
대학장구대전	36
상례비요	38
상례비요	40
전운옥편	42
효경대의	44

史部

국조상례보편	48
동국문헌	50
동국문헌	52
성인록	54
송정기원후사임오증광사마방목	56
양무원종공신녹권	58
은대조례	60
조선고활자판습업	62
진연의궤	64
진찬의궤	66
해동서원록	68

子部

고금역대법첩	72
과화존신	74
관성제군성적도지전집	76
근사록	78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보살만행수능엄경	80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보살만행수능엄경	84
대청동치육년세차정묘시헌서	86
병학지남	88
불설무량수불경	90
삼감행실도	92
어제경세편	94
오률행실도	96
오률행실도	98
오률행실도	100
이률행실도	102
대상감응편도설	104
대상감응편도설	106
해동성적지	108

集部

광국지경록	112
동번집	114
목천자전	116
서한지	118
주문공교창려선생집	120
징보연간독	122
태학지경시	124



論考

Article

- 미국브린모어대학 소장 한국전적문화재 조사의 과정과 의미 10
- Bryn Mawr College and the Helen Chapin Korean Book Collection 14
- [번역문] 브린모어 컬리지와 Helen Chapin의 한국장서 22
- 헬렌 채핀 장서의 구성과 특징 30

미국브린모어대학 소장 한국전적문화재 조사의 과정과 의미

이혜은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브린모어대학은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역사와 전통을 지닌 미국동부의 7개 명문 여자대학을 일컫는 소위 세븐시스터즈(Seven Sisters)그룹의 대학¹⁾이다. 전공과 함께 리버럴 아츠(liberal arts)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부 중심 대학이다. 브린모어대학과 한국과의 인연은 브린모어 졸업생이자 아시아 미술사 연구자였던 헬렌 채핀(Helen Burwell Chapin, 1892-1950)의 기증품에서 비롯된다. 헬렌 채핀은 브린모어를 졸업하고 중국과 일본의 미술과 문화에 대해 공부하였다. 1926~1927년에 채핀은 일본에 살면서 한 달간 한국을 여행하였고 1929년 8월과 9월, 1930년 9월에도 한국을 방문한다. 이후 채핀은 미군정의 문화재 전문가로 다시 한국에 와 1946년에서 1948년까지 근무한다. 채핀은 1950년 사망하기 직전에 한국 고서를 비롯한 수집품을 다른 아시아 유물 등과 함께 브린모어대학에 기증하였다. 채핀이 기증한 한국 컬렉션은 20세기 초부터의 불교 예술작품과 도자기를 포함하여 병풍 등 다양하다. 그동안 중국 고서는 목록이 만들어져 이용되어 왔으나 한국 고서는 주목받지 못하였는데 이번 조사를 통하여 브린모어대학 소장 한국 고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브린모어대학(Bryn Mawr College)



브린모어대학 도서관(Bryn Mawr College Library)

1) 마운트 홀리오크 컬리지(Mount Holyoke College), 바서 컬리지(Vassar College), 웨슬리 컬리지(Wellesley College), 스미스 컬리지(Smith College), 래드클리프 컬리지(Radcliffe College), 브린모어 컬리지(Bryn Mawr College), 버나드 컬리지(Barnard College)를 말한다.

브린모어대학에 한국 고서가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미국프린스턴대학교의 이형배 선생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동안 미국프린스턴대학교의 한국 고서의 경우에도 그 소장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형배 선생이 프린스턴대학교의 첫 번째 한국학 전문사서로 부임한 이후 기초조사를 통하여 자료의 소장사항을 확인하였고 이후 국립중앙도서관 조사단인 이해은, 한지희가 미국프린스턴대학교를 방문하여 이들 자료의 상세서지목록 작성과 서지학적 가치를 확인한바 있다. 이 조사의 결과물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미국프린스턴대학교 소장 한국 고문헌=Korean rare books in the Princeton university library' 이라는 자료집으로 간행된 바 있다. 이 자료집에는 문집이 다수를 이루는 프린스턴대 소장 한국 고문헌 93종 505책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 국립중앙도서관 조사단은 프린스턴대학교 조사 기간 중 시간을 할애하여 브린모어대학을 방문하게 된다. 이형배 선생을 통하여 브린모어대학의 한국 컬렉션이 매우 작은 규모인 것은 알고 있었고 따라서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해외 출장을 실시할 수는 없는 사정도 있어 조사를 미루고 있었던 와중에 프린스턴대학교와 브린모어대학을 한 번에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이형배, 이해은, 한지희 세 사람은 짧은 시간안에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른 새벽 프린스턴을 떠나 브린모어에도 착하였다. 특별장서부장이었던 Eric Pumroy는 미리 조사할 자료들을 준비해 두어 효율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고 촬영실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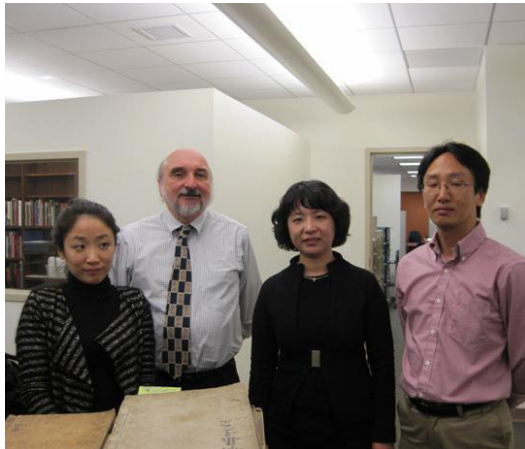


한국 고서 조사



한국 고서 촬영

브린모어대학의 한국 고서는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고 일부 자료들은 브린모어대학측에서 표지와 내지 1면 정도를 사진촬영해 두어 활용하고 있었다. 조사단은 자료별로 기본 서지사항을 확인하고 표지와 권수제면을 비롯하여 자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면을 촬영하였다. 또한 각 자료별 보존상태를 확인하고 판본별 검증, 발행년도 확인작업을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브린모어대학의 한국 고서는 모두 42종 84책임을 확인하였다. 42종 84책이라는 장서의 규모는 매우 작은 것이었지만 특히 미술사를 공부했던 헬렌 채핀이 한국의 목판 삽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중점적으로 수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전체 자료의 절반을 넘는 19종 50책에 달했고 그 종류도 행실도, 계도(界圖)와 기물도(器物圖) 등이 포함된 의례서, 변상도가 수록된 불서, 도가서등 우리 전문문화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삽도를 확인할 수 있는 컬렉션이라 평가할 수 있다.



왼쪽부터 한지희, Eric Pumroy, 이혜은, 이형배



브린모어대학교에 소개된 한국고서 조사

국립중앙도서관은 1982년부터 국외에 산재한 한국전적문화재를 조사하고 그 중 희귀하고 귀중한 자료는 복사, 마이크로필름, 디지털 파일 등 다양한 매체로 복제하여 수집하는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였다. 2017년 말까지 수집된 자료는 4,538종 12,866책에 이르며 조사된 국가와 기관은 9개국 42개 기관이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 조사보고서는 미국 브린모어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고서를 처음으로 조사하여 소개한 것이다. 이러한 기초조사 작업들은 많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서지학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일부 판본의 검증이나 서지작성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관련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이번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20세기 초에 국외로 반출된 한국 고서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유통되었던 자료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자료의 접근성을 높여 지식과 정보의 확산에 기여하고 앞으로 더욱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Bryn Mawr College and the Helen Chapin Korean Book Collection

Eric L. Pumroy

Seymour Adelman Director of Special Collections

Bryn Mawr College

Bryn Mawr College is located in the western suburbs of Philadelphia, Pennsylvania, and it has been one of the preeminent women's colleges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time of its founding in 1885.

Today it continues as a women's college for undergraduates, enrolling about 1300 women from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from 62 countries. It also has 400 men and women enrolled in graduate programs leading to the Ph.D.

Bryn Mawr was founded by Joseph W. Taylor, a Quaker from New Jersey, whose goal was to establish a school for the advanced education of women. During his planning he visited the other ambitious colleges for women established after the American Civil War, notably Smith, Wellesley and Vassar. He was also strongly influenced by the new Johns Hopkins University in Baltimore, a school that had significant Quaker leadership on its board and aimed to transform higher education for men by following the model of the German research universities. Taylor died while Bryn Mawr was still under construction, leaving the responsibility for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college in the hands of a Quaker board of directors, several of whom were also on the board of Johns Hopkins University, including James Carey Thomas, a Baltimore physician.

Even before the College opened, the board of directors came under the influence of Thomas's daughter, M. Carey Thomas, who had been pursuing her Ph.D. in Europe because Johns Hopkins refused to accept women as graduate students.

Thomas had just received her Ph.D. from the University of Zurich as the school was preparing to open, and she was hired as academic dean, with responsibility for designing the curriculum and hiring the faculty. From this position, she was able to enforce the principle that Bryn Mawr would operate as a non-sectarian school, albeit with Quaker influence. In particular, this meant that Bryn Mawr would hire the most talented scholars available for its faculty, without regard to their connection with Quakerism, and that most of the students would be non-Quaker.

To reinforce its commitment to scholarly rigor, Bryn Mawr also established a program of doctoral studies, the first such program at a woman's college. By the mid-1890s, Bryn Mawr had grown from a handful of students in its first years to about 400 students, was garnering national attention as one of the leading academies for women, and Thomas, by then President of the College, was widely recognized as an advocate for women's education and women's rights. In addition to attracting increasing numbers of students from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Bryn Mawr was also attracting significant financial support. Among the most important donors was John D. Rockefeller, who supported a building program, and Thomas's close friend, Mary Garrett, who was one of the wealthiest women in the country and a prominent philanthropist for women's rights causes.

Bryn Mawr also built a reputation for its engagement in social justice issues. It started the nation's first Ph.D. program in social work in 1912, reflecting the growing engagement of many of its graduates in working with the urban poor and immigrants. In 1921, it opened the Summer School for Working Women in Industry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women factory workers to experience college education. In the 1930s it became a haven for a number of Jewish refugee scholars from Europe, including the prominent German mathematician Emmy Noether. After World War II,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 Katherine McBride, Bryn Mawr was one of the leaders of the successful resistance to the government attempt to require loyalty oaths from students seeking federal education loans in the 1950s. McBride was also prominent in the resistance to federal requirements to report student protestors against the war in Vietnam during the 1960s.

The situation for women's colleges became more complicated in the 1970s when nearly all of America's all-male colleges, including the prestigious Ivy League schools like Harvard, Yale and Princeton, opened their doors to women students. Although a few women's colleges began admitting men (Vassar College, most notably), and Radcliffe College was absorbed by Harvard University, Bryn Mawr and the remaining members of the Seven Sisters group of colleges have continued to thrive. Although a small school, Bryn Mawr has been able to broaden the opportunities it offers its students through its close relationships with Haverford and Swarthmore Colleges, two other Quaker-founded liberal arts colleges in the Philadelphia suburbs.

The relationship with Haverford is particularly close, with most students regularly taking classes on the other campus, and a number of academic programs, including East Asian Studies, being officially Bi-College programs. Bryn Mawr still maintains doctoral programs, although the college dramatically reduced the number of fields offering graduate degrees in the 1980s as a cost-cutting measure.

The largest graduate program is in Social Work, and there are also doctoral programs in Archaeology, Classics, the History of Art, Chemistry, Mathematics and Physics.

Bryn Mawr has had important connections with East Asia since early in its history. One of Japan's leading women's educational institutions, Tsuda College, was founded by Umeka Tsuda, who attended Bryn Mawr in the 1890s and used it as a model for her pioneering school. Tsuda also established a scholarship fund that made it possible for several Japanese women to study at Bryn Mawr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these women became leaders in women's education in their home country. Bryn Mawr also established a Chinese Scholarship Committee in the 1910s to enable Chinese women to attend Bryn Mawr. Bryn Mawr graduates were also active in East Asia. Margaret Bailey Speer served as Dean of Yenching University in Beijing from 1924 until she was interned by the Japanese in 1942, and Elizabeth Gray Vining was appointed by Emperor Hirohito of Japan to tutor his son immediately after World War II. There were very few connections with Korea, with the important exception of Helen Burwell Chapin, a 1915 graduate of the college who collected the Korean books documented in this catalogue.



Picture 1. Bryn Mawr College & Library

Helen Burwell Chapin and her Collection



Picture 2. Helen Burwell Chapin

Bryn Mawr College's entire Korean book collection was the gift of Helen Burwell Chapin (1892-1950), a graduate of Bryn Mawr and an Asian art historian who gave the collection to the college shortly before her death. Chapin's path in East Asian art history was an unusual one, and for many years she pursued her studies outside of normal academic channels. Her serious introduction to the field came at the Boston Museum of Fine Arts, where she was hired as a secretary and assistant to John E. Lodge in the Oriental Department in 1917, two years after graduating from Bryn Mawr. Her job quickly became a passion, and she began studying Chinese in the evenings and reading extensively on Chinese and Japanese art and culture. In 1924 she left the museum to become a clerk in the American Consulate at Shanghai in order to gain direct experience of China and the Chinese language. For the next two years she spent her weekends and vacations bicycling through eastern China visiting temples and other cultural sites, and also talked her way into seeing private art collections in Shanghai and visiting the warehouses of art dealers.

In 1926 she left the consulate to accept a temporary position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to assist with the meeting of the Pan-Pacific Science Congress in Tokyo late that year. During her year in Japan she lived with a Japanese family, learned Japanese, and visited numerous Japanese cultural sites. She briefly returned to the American consulate, but resigned when she discovered that her new posting at Tsingtao would not allow her to continue either her studies or her travels. Leaving Tsingtao, she traveled to Mukden, and then to Korea for the first time, spending a month visiting tombs, museums and temples throughout the peninsula. She then returned to Japan where she was granted permission to live at the Buddhist temple at Nara for two months. In August 1927 she left Japan, stopping off in India and Ceylon for 6 weeks to visit Buddhist temples, and then travelled to England where she spent 4 months at the British Museum studying their Buddhist collections.ⁱ

Within three days of her return to the United States in March 1928, she received the remarkable offer from Swarthmore College of a three-year fellowship for travel and study in the Far East. The offer was especially remarkable because Swarthmore, an undergraduate college in Swarthmore, Pennsylvania, had no program in East Asian Studies at the time, had no connections with Chapin, and no intentions of hiring her to teach classes or curate collections after the fellowship ended. The fellowship seems to have been entirely a personal gift from another Bryn Mawr graduate,

i

Cammann, Schuyler. "In Memoriam Helen Burwell Chapin."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70, no. 3 (1950): 189-91.

Helen Rubel, a wealthy heiress whose chief legal advisor was Wilson M. Powell, the President of the Corporation for Swarthmore College, and through whom she worked to make this anonymous gift.ⁱⁱ It is not clear how Rubel came to know of Chapin. Rubel may have known of her through friends at Bryn Mawr, or come across her in Boston where Rubel lived for a time, or met her in London earlier that year when Chapin was working at the British Museum. Rubel was already funding foreign travel fellowships for graduate students at Bryn Mawr, although it isn't known if she approached Bryn Mawr about sponsoring a fellowship for Chapin. In any case, she prevailed on her family friend and advisor Wilson Powell to make the offer through Swarthmore, and Chapin accepted it, with a one-year delay while she worked at the Boston Museum of Fine Arts, compiled her notes on Buddhist iconography, and wrote an article on the Bodhisattva Avalokitesvara.

With the Swarthmore fellowship, she was able to spend the years 1929-1932 in China, Japan and Korea. She spent the summer and fall of 1929 in Japan at the temple at Nara, and then relocated to Beijing where lived for most of the following two years. She made two trips to Korea during the fellowship. The first was in August and September 1929. In a letter to her Swarthmore faculty liaison, she reported on traveling from China to Heijo (Pyongyang) and from there to Rakuro where the Japanese were excavating ancient tombs. She also reported visiting a dealer who gave her 4 small things from Rakuro, possibly the beginning of her Korean collections. From there she went to Keijo (Seoul) and the Diamond Mountains where she spent a week at Yutenji examining bronze Buddhas from the 8th century and many Buddhist sutras.ⁱⁱⁱ She returned to Korea again in September 1930, visiting not only the cities, but also the Buddhist temple at Shakuo-ji (Sogwang-sa).

By the time she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in 1932, she was in possession of a substantial collection of books, scrolls and artifacts from China, Japan and Korea, acquired partly through gifts, but mostly through purchases using her small stipend from Swarthmore. She attributed her success in building the collection in spite of limited funds to her considerable knowledge of Asian art and her ability to bargain for objects for which there was little demand. She kept the collection on loan at Vassar College in Poughkeepsie, New York for a few years after her return, but withdrew it by the late 1930s. She had a difficult time finding work when she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She delivered a few lectures on Asian art at colleges on the East Coast, and taught a course on Asian Art at Vassar College. Columbia University hired her for a bit more than a year as a librarian for its Japanese collection, but this was only an acting position during the absence of the permanent librarian. From there she went to Mills College in California where she worked in the art library while pursuing a doctorate in Asian art history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he received her Ph.D. in 1940, but was unable to find an academic or museum position. During most of the war years she worked as a research analyst in Chinese and Japanese for the Department of Justice, mostly reading newspapers with an eye for an intelligence information.^{iv}

She finally had the chance to return to Asia and her art history work when the Justice

ii

Wilson M. Powell to Dr. John A. Miller, Swarthmore College, March 22, 1928. Swarthmore College Archives, Series D08: Presidential Papers: John Nasan. Folder: Chapin, Helen B. – Oriental Fellowship.

iii

Helen Chapin, Yakushiji, Japan, to Professor A.H. Brooks, Swarthmore College, October 20, 1929. . Swarthmore College Archives, Series D08: Presidential Papers: John Nasan. Folder: Chapin, Helen B. – Oriental Fellowship.

iv

Helen Chapin, Washington, DC to Ananda Coomaraswamy, Boston Museum of Fine Arts, January 11, 1946. Helen Burwell Chapin Papers, Bryn Mawr College, Box 3, Folder 1.

v

Helen Chapin, Untitled report on survey in Korea, conducted March 25-April 13, 1948. 33pp. Helen Burwell Chapin Papers, Bryn Mawr College, Box 1, Folder 4.

vi

Alexander Soper, "The Helen B. Chapin Collection", *Bryn Mawr Alumnae Bulletin*, Winter 1951, pp.10-11.

Department position came to an end in 1946. She was hired almost immediately as an Arts and Monuments Specialist for the United States Army, which had just set up operations in Korea. In this role she travelled throughout southern Korea to survey temples, tombs, and other historic and cultural sites. Her papers at Bryn Mawr primarily document this phase of her career, and include notes and photographs on many of the sites she visited. In April 1948, for example, she prepared a 33 page report on the previous month's trip to sites in the provinces of Cholla Pukto and Cholla Namdo, focusing particularly on Buddhist temples.^v It was during these two years in Korea that she seemed to have collected most of the books that came to Bryn Mawr, according to Alexander Soper, the Asian art historian at Bryn Mawr who worked briefly with Chapin on her collection.^{vi} When she returned from Korea in 1948 it was with plans to write a book on Korean art. Sadly, she became seriously ill almost immediately, and she died early in 1950.

Chapin donated to Bryn Mawr her collection of Korean books, along with many other Asian books, scrolls, and other artifacts, shortly before her death in 1950. Although some of the Chinese books and scrolls in the Chapin collection were used and catalogued over the years, the Korean books had been largely ignored until a few years ago. The change came about thanks to financial support from Maxine Lewis, a Bryn Mawr alumna and a serious student of Asian art; she and her late husband, Howard, endowed the Howard and Maxine Lewis Curator of Korean Art at the Philadelphia Museum of Art. Maxine Lewis's gift underwrote the cataloging of Chapin's collection of Chinese, Japanese and Korean scrolls and books. As we began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someone with both the language and professional skills to catalogue the Korean books, we were referred to Hyoungbae Lee, the Korean Studies Librarian at Princeton University, who was just then planning for a visit from librarians from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He arranged for Dr. Hyeeyun Lee and Jihee Han to visit Bryn Mawr to examine the books here, and the result is this catalogue.

The Korean book collection that Chapin donated to Bryn Mawr is part of her much larger collection of books, scrolls, and artifacts from Korea, China and Japan. The Korean collection includes 28 scrolls, a combination of Buddhist art works and rubbings of calligraphy from the early 20th century. There are also about 100 three-dimensional objects, including a Paekche-era terracotta Buddha and ceramics from the Choson Dynasty. The most dramatic work of art is a 3-panel screen depicting a hunting scene, painted in the late 19th century. In addition to the Korean collections, Chapin donated more than 300 Chinese books, including many from the 16th to the early 19th centuries; more than 200 scrolls from China and Japan; 200 artifacts, including ceramics, bronzes, and wood carvings ; and a six-panel screen showing a scene from the Tales of the Genji, painted by Kano Seisen'in Osanobu in the early 19th century. Information about the scrolls and works of art in the Chapin Collection can be found by searching the Bryn Mawr College Art and Artifacts Database: <http://triarte.brynmawr.edu/>.



picture 3. Korean screen

Bryn Mawr College Library



picture 4. Bryn Mawr Special Collections Reading Room

The books and artworks in the Helen Burwell Chapin Collection are maintained by the Special Collections Department of the Bryn Mawr College Library. The Department is based in the largest of the three libraries on campus: the Mariam Coffin Canaday Library, opened in 1970. The other two libraries are the Rhys Carpenter Library, which supports the programs in Archaeology, Classics, and the History of Art; and the Reginald and Lois Collier Library, which supports the programs in the Sciences.

The Special Collections Department contains broad and rich holdings, with more than 50,000 rare books, 50,000 art and cultural artifact objects, and several million pages of manuscripts. In addition to Chapin's Chinese, Japanese and Korean books, the rare book collection includes one of the largest collections of 15th century printed books in American libraries; large collections on the history of women and works by women writers; accounts by Europeans and Americans travelling in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since the 15th century; and a newly-acquired collection of European children's literature from the 18th century to the present. The art and artifact collections are especially strong in ceramics, glassworks, and coins from ancient Greece and Rome, with more than 6000 objects; extensive collections of prints, photographs and drawings from Europe and North America, particularly collections of early modern prints and prints by contemporary women artists; and important collections of African and Native American art and artifacts, including pre-Columbian textiles and ceramics. Highlights from the collection were featured in the exhibition catalogue *Worlds to Discover: 125 Years of Collections at Bryn Mawr College* (Bryn Mawr: 2010), available online at http://repository.brynmawr.edu/bmc_books/9/.

브린모어 칼리지와 Helen Chapin의 한국장서

Eric L. Pumroy

Seymour Adelman Director of Special Collections

브린모어 칼리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서쪽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브린모어 칼리지는 1885년 설립된 미국에서 매우 뛰어난 여자대학 중 하나이며, 지금도 미국전역은 물론 전세계 62개국 1,300여명의 여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는 학부과정의 여자대학이다. 또한 대학원 과정에는 400명의 남녀학생이 있다.

브린모어 칼리지는 여성을 위한 고등교육 학교를 설립하고자 뜻을 품은 뉴저지 출신 퀘이커 교도(教徒)인 Joseph W. Taylor가 설립하였다. 학교설립을 위한 준비단계 중 그는 남북전쟁 이후 여성을 위해 야심차게 설립된 Smith, Wellesley, Vassar와 같은 대학들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퀘이커 교도가 학교 이사회를 이끌면서 독일의 연구중심 대학들을 모델로 하여 남학생들을 위한 고등교육으로 변형시켜 만든 볼티모어에 새로 생긴 존스홉킨스대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는 브린모어가 완공되기 이전 타계하여 학교의 나아갈 방향을 정할 책임을 퀘이커 교도 이사들에게 남기게 되었다. 이사들 중 몇몇은 존스홉킨스대학의 이사였으며 그 중에는 볼티모어에 있는 의사인 James Carey Thomas도 포함되었다.

개교하기 이전에 이미 이사회는 Thomas의 딸인 M. Carey Thomas의 영향 아래 있었다. 당시 그녀는 존스홉킨스대학이 대학원과정에 여학생을 받아주지 않아 유럽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다. 학교가 개교하기 전 그녀는 취리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그녀는 브린모어에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수진 고용을 담당하는 교무처장으로 임용되었다. 교무처장으로서 그녀는 퀘이커 교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브린모어가 무종파 학교로 운영될 원칙을 시행할 수 있었다. 특히 이는 브린모어가 퀘이커파와 관계없이 가장 유능한 학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었음을 의미하며 또한 대부분 학생들도 퀘이커 교도가 아니었음을 의미했다. 심도있는 학문 강화를 위해 브린모어는 여학교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1890년대 중반 즈음 브린모어는 첫째 몇 안 되는 학생에서 400명의 학생으로 성장하여 여성을 위한 선도적 학교 중 하나로 국가적인 관심을 얻었으며, 이후 총장이 된 Thomas는 여성의 교육과 권리를 위한 옹호자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미국 전역으로부터 날로 증가하는 학생들을 유치하였음은 물론 브린모어는 많은 기부금도 유치하였다. 손꼽히는 기부자들로 건물신축 계획을 후원한 John D.

Rockefeller와 Thomas의 친한 친구이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며 여성 권위를 위한 독지가인 Mary Garrett를 들 수 있다.

또한 브린모어는 사회정의 이슈에 참여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 브린모어의 많은 졸업자들이 도시 빈곤층 및 이민자들과 노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1912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 분야 박사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1921년 여성 공장 근로자들에게 대학교육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산업여성 근로자를 위한 서머스쿨"을 개설하였다. 1930년대에는 저명한 독일 수학자인 Emmy Noether를 비롯한 유럽으로부터 피난 온 수많은 유대계 학자들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Katherine McBride 총장 재직 시 브린모어는 1950년대 연방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로부터 충성선서를 요구하려고 한 정부에 대해 저항한 성공적인 리더 중 하나이며, 또한 총장이 1960년대 베트남전에 맞서 시위한 학생들을 보고하라는 연방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1970년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과 같은 아이비리그 학교 등 미국의 남자대학 거의 대부분이 여학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을 때 여자대학들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비록 소수의 여자대학이 남학생 입학에 허락하기 시작하였고(특히 Vassar College), Radcliffe College가 하버드에 흡수되었으나, 브린모어와 남아있는 Seven Sisters그룹의 대학들은 꾸준히 성장하였다. 비록 규모가 작긴 해도 브린모어는 필라델피아 외곽에 있는 웨이커 교도가 설립한 교양과목 대학인 Haverford College와 Swarthmore College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었다. Haverford와의 관계는 특히 가까워 대부분 학생들은 규칙적으로 상호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며 동아시아학을 포함한 수많은 학술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두 개 대학의 프로그램이 되었다. 브린모어는 비록 1980년대 비용절감조치로 많은 대학원 과정을 축소시켰으나 아직도 박사과정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큰 대학원 과정은 사회복지이며, 또한 다른 박사과정으로 고고학, 서양고전학, 미술사, 화학, 수학, 물리학이 개설되어 있다.

브린모어는 설립초기 때부터 동아시아와 중요한 관계를 가졌다. 일본의 대표적인 여성교육기관 중 하나인 쓰다주쿠 대학(津田塾大学, Tsuda College)는 1890년대 브린모어에서 수학하고 이를 선구적인 학교의 모델로 이용한 쓰다 우메코(津田梅子, Umeka Tsuda)에 의해 설립되었다. 또한 20세기 초 Tsuda는 몇몇 일본 여학생들이 브린모어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장학금 펀드를 만들었으며, 이들은 일본에 돌아와 여성교육의 지도자가 되었다. 브린모어는 또한 1910년대 중국장학금위원회를 만들어 중국여학생들이 브린모어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브린모어 졸업생들은 동아시아에서 활동적이어서, Margaret Bailey Speer은 1924년부터 1942년 일본인들에 의해 억류될 때까지 베이징 연칭대학 학장으로 재직하였으며 Elizabeth Gray Vining은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일본 왕인 히로히토 아들의 가정교사로 선임된 바 있다. 한국과의 관계는 1915년 한국고서를 수집한 대학졸업생인 Helen Burwell Chapin 이외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림 1 브린모어 컬리지와 도서관

Helen Burwell Chapin과 그녀의 수집품



그림 2 Helen Burwell Chapin

브린모어대학의 총 한국도서 컬렉션은 브린모어 졸업생이자 아시아 미술사가로서 죽기 바로 전 대학에 기부한 Helen Burwell Chapin(1892-1950)의 기증품이다. Chapin의 동아시아 미술사 분야에서 걸어난 길은 드문 케이스였으며, 그녀는 수년간 정상적인 학문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연구를 추구하였다. 이 분야에서 그녀에 대한 소개는 브린모어를 졸업한지 2년 후인 1917년 보스턴미술관 동양부에 있는 John E. Lodge의 비서 및 보조로 고용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맡은 업무에 바로 열중하게 되어 저녁엔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과 일본의 미술과 문화에 대해 광범위하게 독서하기 시작하였다. 1924년 그녀는 미술관을 그만두고 중국과 중국어를 직접 경험하고자 상하이 미국영사관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년간 그녀는 주말과 휴가 때 자전거를 타고 중국동부에

있는 사원과 기타 문화유적지를 탐방하였으며, 상하이에 있는 개인미술관을 관람하기 위해 관계자를 설득하여 들어가곤 하였으며 미술품 딜러들의 창고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1926년 그녀는 미국영사관을 나와 같은 해 말 도쿄에서 개최될 범태평양과학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정부를 돕기 위해 임시직을 맡게 되었다. 일본에 머물면서 그녀는 일본의 한 가정과 같이 살면서 일본어를 배우고 수많은 일본 문화유적지를 방문하였다. 그녀는 잠시 미국영사관으로 돌아왔으나 칭다오에서의 새로운 자리에선 연구와 탐방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그만두게 되었다. 칭다오를 떠나면서 그녀는 묵텐(봉천의 러시아말로 현재의 선양 : 瀋陽)을 여행한 후 한국을 처음 방문하여 한달 간 한반도 도처에 산재한 무덤, 박물관, 절 등을 돌아보았다. 이후 그녀는 두달 간 나라(奈良)에 있는 사찰에 머물도록 허락받고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1927년 8월 그녀는 일본을 떠나 인도에 들러 6주간 실론섬에 있는 불교사원을 방문한 후 영국에 가서 4개월간 영국국립박물관에서 불교 컬렉션을 연구하였다.

1928년 3월 미국으로 돌아와 3일만에 그녀는 Swarthmore College로 부터 극동지방 여행 및 연구를 위한 3년간 장학금이란 엄청난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 장학금은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Swarthmore대학이 당시 동아시아 연구 관련 프로그램이 없었고, Swarthmore 대학이 Chapin과도 인연이 없었으며, 장학금이 끝나는 3년 후 학생을 가르치거나 컬렉션 큐레이션을 위해 고용할 의지도 없었기에 특히 주목할 만 하다. 그 장학금은 또 다른 브린모어 졸업생이자 부유한 상속녀인 Helen Rubel이 개인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며, 그녀의 수석 법률 자문관인 Wilson M. Powell은 Corporation for Swarthmore College의 이사장으로 Rubel이 임명의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Rubel이 Chapin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Rubel이 브린모어에서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되었거나 Rubel이 한때 살았던 보스턴에서 우연히 만났거나 그 이전 Chapin이 영국국립박물관에서 근무했을 당시 런던에서 만났었는지 모른다. 비록 Rubel이 Chapin을 위한 장학금 후원에 대해 브린모어와 접촉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녀는 이미 브린모어 졸업생들을 위해 해외여행장학금을 대고 있었다. 어쨌건 Rubel은 가족, 친구, 조력자인 Wilson Powell을 설득하여 Swarthmore를 통해 장학금을 제공하였으며, Chapin은 이를 수락하였으나 보스턴미술관에서 불교 도해법 노트를 정리하고 Bodhisattva Avalokitsevara에 대한 기사작성을 위해 근무할 기간을 감안해 1년을 미루게 되었다. Chapin은 Swarthmore 장학금으로 1929-1932년 동안 중국, 일본, 한국에 머무를 수 있었다. 그녀는 1929년 여름과 가을 일본 나라에 있는 절에서 지냈으며, 베이징으로 이동해 나머지 2년간 대부분 시간을 보냈다. 3년의 기간 중 그녀는 한국을 두 번 방문하였다. 첫번째 방문은 1929년 8월과 9월이었다. Swarthmore대학 연락 담당자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녀는 중국에서 평양으로의 여행과 평양에서 일본인들이 발굴한 낙랑고분에 대해 보고하였다. 또한 그녀는 여기서 출토된 4개의 작은 물건을 준 딜러를 만났다고 보고하였으며 아마도 이것이 그녀가 처음으로 한국물건을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그곳을 떠나 그녀는 서울과 8세기 이후 청동불상과 다수의 불교경문 연구를 위해 일주일을 보낸 유점사(楡岾寺)가 있는 금강산을 방문하였다. 그녀는 1930년 9월 한국을 다시 방문하여 여러 도시뿐 아니라 석왕사(釋王寺)에 있는 불교사원을 방문하였다.

1932년 그녀가 미국으로 돌아 올 무렵, 그녀는 중국, 일본, 한국에서 수집한 다수의 책, 권자본, 공예품을 갖고 있었으며, 이들 일부는 그녀가 받은 선물이고 대부분은 Swarthmore에서 받은 약간의 급료로 구매하였다. 그녀는 제한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컬렉션을 모을 수 있었던 요인을 아시아 미술품에 대한 그녀의 풍부한 지식과 남들이 거의 찾지 않는 물건을 싸게 구매하는 능력으로 보았다. 그녀가 미국으로 돌아온 후 몇 년 간 뉴욕 Poughkeepsie에 있는 Vassar College에서 차용하여 지속적으로 수집활동을 하였으나, 1930년대 말 중단하게 되었다.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구직에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동부 해안지구에 있는 대학들에서 아시아 미술에 대한 강의를 몇 번 하였으며, Vassar College에서 아시아 미술과정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컬럼비아대학에서 일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일본소장품 사서로 근무하였으나, 정규직 사서의 부재 기간 중 대리역할을 하였을 뿐이었다. 그곳을 떠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Mills College로 옮겨 예술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UC Berkeley에서 아시아 미술사 박사과정을 밟게 되었다. 1940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학교나 박물관에서의 직업을 구하지 못하였다. 전쟁기간 중 대부분 그녀는 법무부의 중국 및 일본 연구분석가로 정보파악을 위해 신문을 읽는 업무를 맡았다.

법무부에서의 근무가 끝난 1946년 마침내 그녀는 아시아로 돌아와 미술사 업무를 할 기회를 맞게 되었다. 그녀는 막 설립된 미군정의 미술문화재 전문가로 고용되었으며, 한국 남부지방에 있는 사원, 무덤, 기타 역사문화적 유적지 탐방업무를 맡았다. 그녀가 작성한 보고서엔 주로 이 시기를 기록하였으며 그녀가 방문한 많은 지역에 대한 노트와 사진들도 수록되었다. 예를 들어 1948년 4월 그녀는 지난 한달 간 불교 사원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와 전라남도를 방문하여 33쪽에 이르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Chapin과 함께 그녀의 컬렉션을 간략히 연구한 브린모어의 아시아 미술사학자인 Alexander Soper에 따르면, 브린모어에 기증된 책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2년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1948년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 한국미술에 대해 집필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슬프게도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몹시 앓아 1950년초 사망하였다.

Chapin은 1950년 사망하기 직전 한국고서 수집품을 다른 아시아 도서, 권자본, 미술품 등과 함께 브린모어에 기증하였다. Chapin의 수집품 중 몇몇 중국고서와 권자본은 수년간 이용되거나 목록이 만들어졌으나, 한국고서는 몇 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무시되었다. 그러나 브린모어 졸업생이자 아시아 미술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Maxine Lewis의 재정적 지원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그녀와 그녀의 고인이 된 남편 Howard는 필라델피아미술관에 Howard and Maxine Lewis Curator of Korean Art를 기증하였다. Maxine Lewis의 재능으로 Chapin이 수집한 중국, 일본, 한국의 권자본 및 고서 컬렉션을 목록화하는 게 가능해졌다. 한국고서 목록화에 필요한 언어적, 전문적 기술을 갖고 있는 인재를 찾는 과정의 시작단계에서 우리는 프린스턴대학의 한국학 전문사서인 이형배씨로부터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전문가들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그는 국립중앙도서관 이해은 박사(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와 한지희 학예연구사가 브린모어를 방문하여 소장되어 있는 고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고 이 목록이 그 결과물이다.

Chapin이 브린모어에 기증한 한국고서 컬렉션은 그녀가 한국, 중국, 일본에서 수집한 엄청난 양의 책, 권자본, 미술품 컬렉션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한국 컬렉션에는 20세기 초부터의 불교 예술작품과 서예 탁본을 조합한 28개의 권자본이 있으며, 백제시대 테라코타 부처와 조선시대 도자기를 포함하여 100여 개의 미술품이 있다. 가장 인상적인 작품은 19세기말 그려진 사냥장면을 묘사한 3개 면의 병풍을 들 수 있다. 한국컬렉션과 함께 Chapin은 16세기에서 19세기초반 300점이 넘는 중국 고서와 200점이 넘는 중국과 일본의 권자본, 도자기·청동·나무조각품 등 200개의 미술품, 19세기초 Kano Seisen'in Osanobu 가 Tales of the Genji(겐지 이야기) 내용을 담아 그린 6면의 병풍을 기증하였다. Chapin 컬렉션에 있는 권자본과 미술품들에 대한 정보는 Bryn Mawr College Art and Artifacts 데이터베이스 (<http://triar.te.brynmawr.edu/>)에서 볼 수 있다.



그림 3 한국 병풍

브린모어 컬리지 도서관



그림 4 브린모어 특수컬렉션 열람실

Helen Burwell Chapin Collection에 있는 책과 예술작품은 브린모어 컬리지 도서관 내 특수컬렉션 부서가 관리하고 있다. 이 부서는 3개의 도서관 중 가장 큰 Mariam Coffin Canaday 도서관(1970년 개관)에 속해 있으며, 다른 2개의 도서관은 고고학 서양고전학, 미술사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Rhys Carpenter 도서관과 과학분야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Reginald and Lois Collier 도서관이 있다.

특수컬렉션 부서는 5만권이 넘는 고서, 5만점의 예술 및 문화공예품, 그리고 수백만 쪽에 이르는 필사본 등 광범위하고 풍부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Chapin이 수집한 중국, 일본, 한국도서 이외의 고서 컬렉션은 미국도서관에 있는 15세기에 인쇄된 고서 컬렉션 중 가장 규모가 큰 컬렉션 중 하나다. 여기에는 여성작가들이 집필한 여성과 노동 역사에 대한 광범위한 컬렉션, 15세기 이후 유럽 및 미국인 여행자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작성한 문서, 18세기부터 지금까지 새로 수집된 유럽 아동 문학 컬렉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예술 컬렉션에서 도자기, 유리제조, 6천개 이상의 과거 그리스 로마 동전 등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특히 동시대 여성예술가들의 초기 근대 인쇄물 등 유럽 및 북미의 대규모 인쇄 컬렉션, 사진, 그림이 있으며, 콜럼버스 이전의 직물 및 도자기를 포함한 아프리카 및 미국 원주민

예술 컬렉션이 있다. 컬렉션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전시 카탈로그인 Worlds to Discover: 125 Years of Collections at Bryn Mawr College(Bryn Mawr:2010)에 나오며 온라인으로 http://repository.brynmawr.edu/bmc_books/9/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렌 채핀 장서의 구성과 특징

한지희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

브린모어 대학에 소장된 한국 고서 42종 84책의 구성과 자료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들 자료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보면 경부(經部) 6종 7책, 사부(史部) 11종 28책, 자부(子部) 18종 42책, 집부(集部) 7종 7책으로 나눌 수 있다.

경부(經部)는 6종 7책이다. 이 중 소학류(小學類)가 『계몽편언해』와 1910년 유동(由洞)에서 간행한 『전운옥편』 두 종, 예류(禮類)의 『상례비요』가 2종, 『대학장구대전』과 『효경대의』가 한 종씩 소장되어 있다.

사부(史部)는 11종 28책이다. 전기류(傳記類)가 『동국문헌』 2종과 『성인록』, 영조 5년(1728)에 일어난 이인좌(李麟佐)의 난(亂)을 다스리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양무원종공신녹권(揚武原從功臣錄券)』 네 종이다. 정법류(政法類) 가운데 전례서(典禮書)가 『국조상례보편』, 1902년(광무 6) 고종의 기로소(耆老所) 입소를 경축하기 위해 베푼 진연(進宴)에 관한 『진연의궤』, 고종 24년(1887) 대왕대비[翼宗妃] 신정왕후 조씨(1808-1890)의 80주년 생신을 축하하여 설행한 진찬의식을 정리한 『진찬의궤』 세 종으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송정기원후사임오증광사마방목(崇禎紀元後四壬午增廣司馬榜目)』, 『은대조례(銀臺條例)』, 고활자 샘플집인 『조선고활자판습엽(朝鮮古活字版拾葉)』, 각 지역의 서원 명단을 나열한 필사본 『해동서원록(海東書院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브린모어대학 도서관 장서 가운데 자부(子部)가 18종 43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많은 행실도류가 주목되는데, 『삼강행실도』 1종, 『이륜행실도』 1종, 『오륜행실도』 3종으로 모두 5종의 행실도류가 소장되어 있다. 이 외에 『근사록』, 『어제경세편』 2종의 유가서가 있다. 『과화존신(過化存神)』, 『관성제군성적도지전집(關聖帝君聖蹟圖誌全集)』, 『해동성적지(海東聖蹟誌)』, 『태상감응편도설(太上感應篇圖說)』 2종 등 총 5종의 도가서가 소장되어 있는데, 『과화존신』, 『관성제군성적도지전집』, 『해동성적지』 등 관제신앙에 관한 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능엄경』 2종과 『불설관무량수불경』 1종 등 3종의 불서가 있다. 기타 병가류(兵家類)의 『병학지남(兵學指南)』, 천문류의 『대청동치육년세차정묘시헌서』, 중국과 한국의 역대 서예가들의 필적을 모아 엮은 『고금역대법첩(古今歷代法帖)』을 볼 수 있다.

집부(集部)는 모두 7종 7책이다. 이 가운데 소설이 『목천자전(穆天子傳)』과 『서한지(西漢誌)』 두 종 포함되어 있다. 『서한지(西漢誌)』는 표지명이 '서한지(西漢誌)'로 내지에는 '서한기(西漢記)'로 되어있는데 중국 『서한연의』를 번안한

한글 필사본이다. 또한 총집류(總集類)의 『광국지경록(光國志慶錄)』과 『태학지경시(太學志慶詩)』 2종, 별집류(別集類)의 『동변집(東爨集)』과 『주문공교창려선생집(朱文公校昌黎先生集)』 권27-29 1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순한글본 『정보언간독』 1책이 소장되어 있다.

브린모어대학 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42종 84책을 판종별로 살펴보면, 목판본이 30종 66책, 금속활자본이 7종 13책, 목활자본이 2종 2책, 필사본이 3종 3책이다. 금속활자본 가운데는 무신자가 1종, 교서관인서체자(校書館印書體字) 1종, 전사자(全史字) 2종, 정리자(整理字) 2종 있다. 또한 다양한 활자가 수록된 『조선고활자판습업』이 1종 소장되어 있다. 목판본 가운데는 무신자복각본이 1종, 임진자복각본 1종, 정유자복각본 1종, 정리자복각본이 3종이다.

브린모어대학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간행된 판본은 중종 37년(1547) 간행된 석두사판 『능엄경』이다. 이 후 17세기 간행된 판본이 『주문공교창려선생집』, 용장사판 『능엄경』, 『근사록』 3종이다. 18세기에 간행된 판본은 7종 8책, 19세기 간행된 판본이 18종 43책, 20세기 간행본이 4종 8책으로 19세기에 간행된 판본이 가장 많았다. 간행년을 확인하기 어려운 판본은 9종 14책이다.

브린모어 대학 소장 한국 고서에는 ‘한운재장(閑雲齋藏)’이라는 장서인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헬렌 채핀 본인의 장서인인지, 이전에 소장하던 소장가의 장서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20세기 초반에 많이 사용하던 장서인의 형태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헬렌 채핀 장서의 또 다른 특징은 전체 42종 84책 중 삽화가 포함된 자료가 19종 50책에 달한다는 점이다. 한국고서에 수록된 목판 삽화에 주목하여 이를 수집한 채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들은 『오륜행실도』가 3종, 『이륜행실도』와 『삼강행실도』가 각각 한 종씩 소장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의례에 사용하기 위해 간행된 의례서 가운데 계도(界圖)와 기물도(器物圖) 등 의례도가 수록된 의례서가 『상례비요』, 『국조상례보편』, 『진연의궤』, 『진찬의궤』 등 4종 소장되어 있다. 명종 2년(1547) 석두사(石頭寺)판 『능엄경』 10권 4책은 현재 국내에는 고려대, 불감사, 용화사 등에 소장되어 있으나 완질본은 없는 희귀본이다. 책을 열면 가장 먼저 변상도가 보이는데 ‘대불정수능엄경변상(大佛頂首楞嚴經變相)’이라는 제목 옆에 위타천(韋駄天)이 있고, 뒷장에는 석가설법도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관성제군성적지도지전집』, 『해동성적지』, 『태상감응편도설』 등 도교화, 『병학지남』, 『성인록』, 『대청동치육년세차정묘시헌서』 등 다양한 부분의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각각의 자료에 대한 서지목록과 해제 및 도판을 함께 제시하여 이후에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 자료는 미국 브린모어 대학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고서를 처음으로 조사하여 소개한 것이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20세기 초에 국외로 유출된 한국 고서의 유출 경로와 당시 구할 수 있었던 자료를 파악하고 더욱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經部



계몽편연해	34
대학장구대전	36
상례비요	38
상례비요	40
전운옥편	42
효경대의	44

계몽편언해

啓蒙篇諺解

Gyemongpyeon eonhae

[編著者未詳]

木板本 Woodblock 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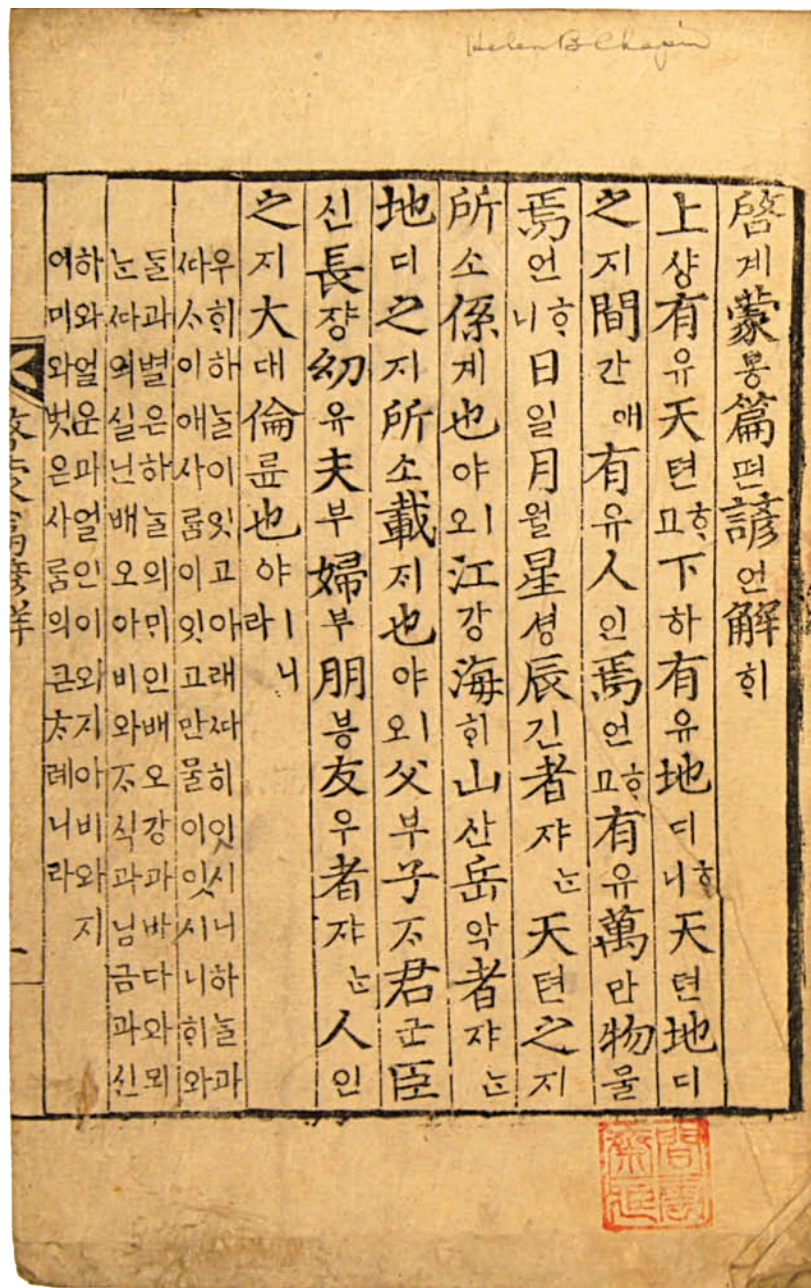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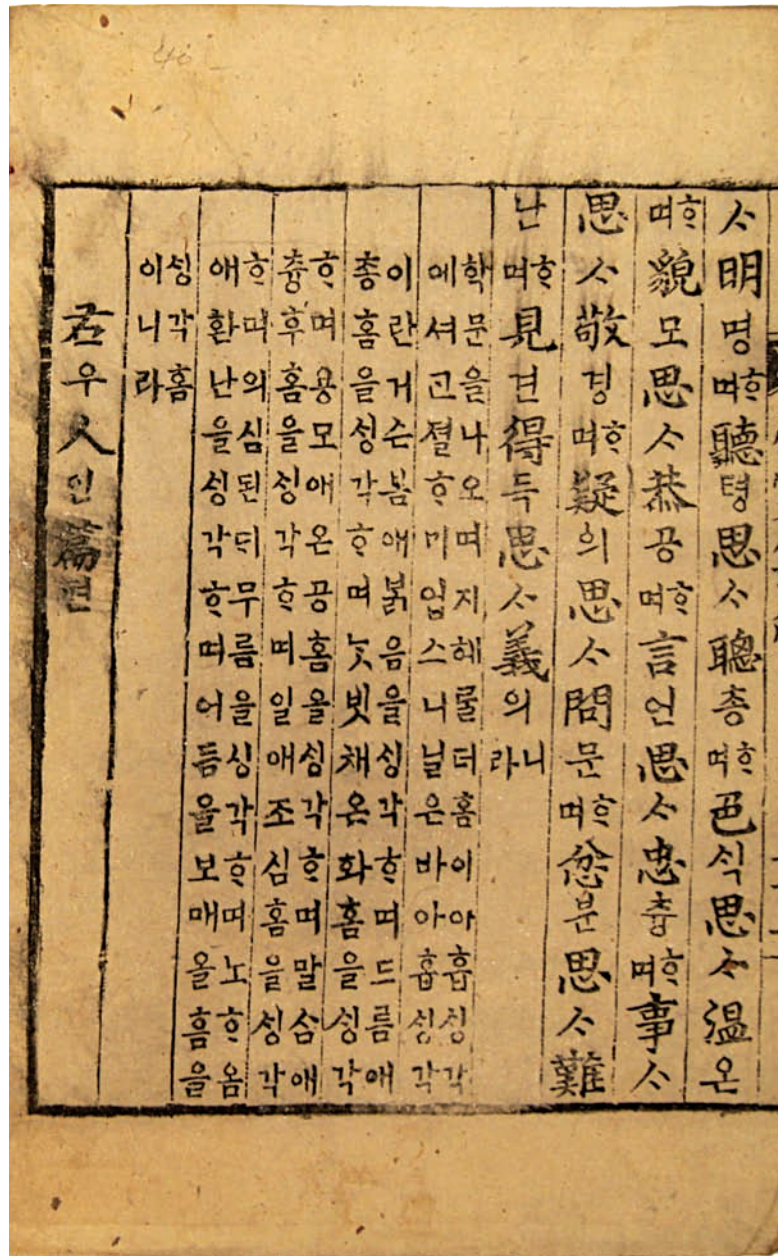
1卷1冊: 四周單邊 半郭 20.2 × 16.4 cm, 有界, 11行18字 註雙行, 上下向2葉花紋魚尾; 28.7 × 19.3 cm

諺解本

表題: 啓蒙篇

印文: 閒雲齋藏





초학 아동을 위한 성리학 교육 입문서로 편찬된 『계몽편(啓蒙篇)』의 한문 어구에 한글로 토를 붙인 후 다시 한글로 풀이한 책이다. 수편(首篇), 천편(天篇), 지편(地篇), 물편(物篇), 인편(人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편(首篇)은 천(天), 지(地), 인(人)과 만물(萬物)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이다. 천편(天篇)은 천체의 구성과 10간, 12지, 계절의 변화 등을 설명하고 있고, 지편(地篇)은 오악사해(五岳四海)와 자연현상을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으로 설명하고 있다. 물편(物篇)에서는 동식물을 속성과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설명하였고, 인편(人篇)에서는 부자(父子), 군신(君臣), 부부(夫婦), 장유(長幼), 붕우(朋友) 등 인륜(人倫)을 강조하고, 학문의 필요성 및 수신(修身)을 위해 구용(九容), 구사(九思)의 자세를 갖추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언해 및 토가 실려 있어 국어사 자료로도 가치가 있다.

Neo-Confucianism training book for children

대학장구대전

大學章句大全

Taehak changgu taejŏn

胡廣(明)...等奉勅纂

木板本 Woodblock Print

[漢城]: 內閣, 庚辰(1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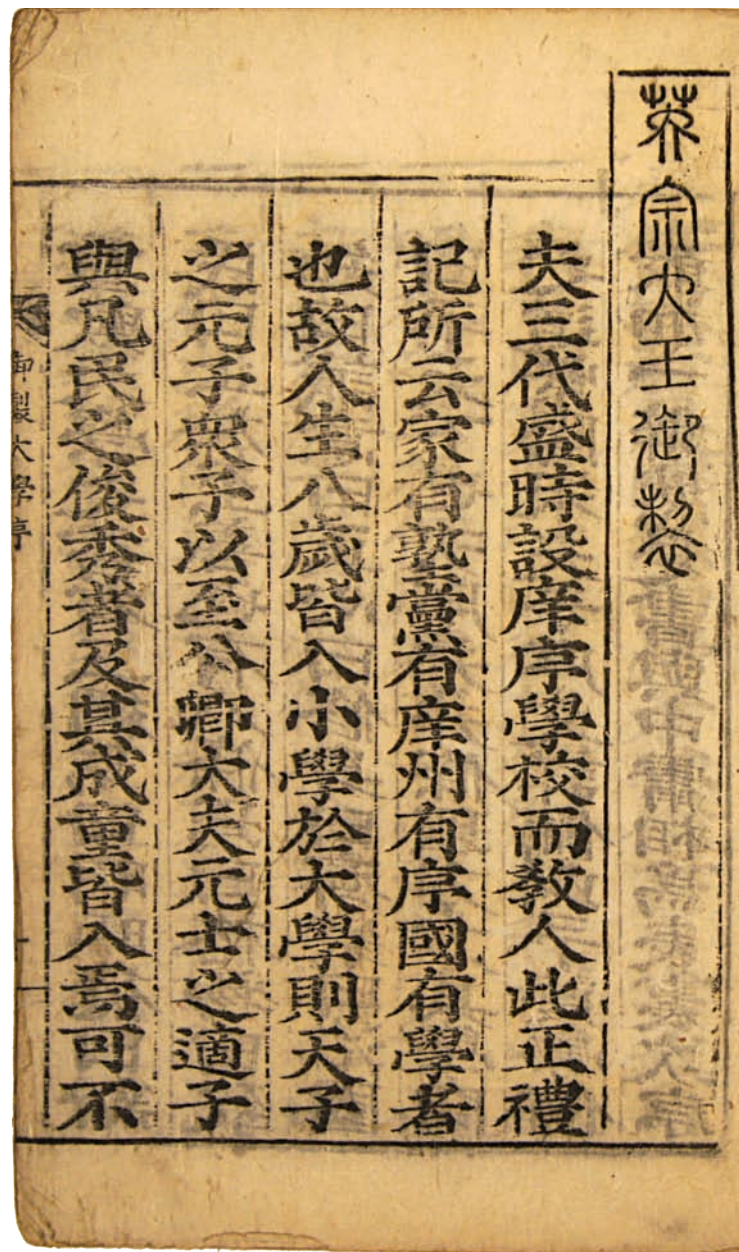
1冊: 四周單邊 半郭 24.3 x 17.0 cm, 有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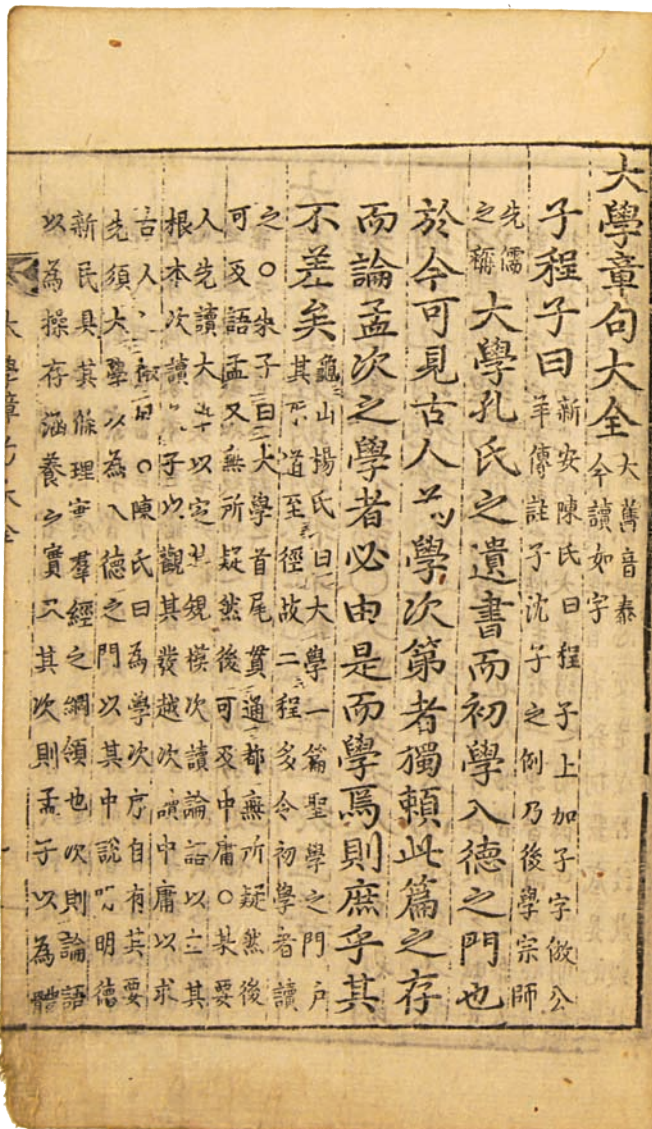
10行18字 註雙行, 上下向2葉花紋魚尾; 31.2 x 20.7 cm

英祖大王御製: 歲戊寅(1758)十月甲寅序

序: 淳熙己酉(1189)...朱熹序

刊記: 庚辰(1820)新刊 內閣藏板





명대(明代)에 이르러 영락황제(永樂皇帝, 成祖)는 송대(宋代) 이후 축적된 성리학적 전통을 총정리하여 집대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한림원학사(翰林院學士) 호광(胡廣, 1370-1418), 양영(楊榮) 등 36인은 칙명(勅命)으로 송(宋)~명대(明代)에 활동한 106인의 학설을 모아 『사서대전(四書大全)』을 완성하였는데, 『대학장구대전(大學章句大全)』은 그 중의 하나이다.

『대학장구대전(大學章句大全)』은 형식적으로 '장구(章句)'와 '대전(大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학장구(大學章句)'는 『예기(禮記)』의 한 편명(篇名)이었던 '대학(大學)'을 송(宋)나라 주희(朱熹, 1130-1200)가 경문(經文) 1장(章)과 전문(傳文) 10장으로 분장(分章)하여 편찬한 책이다. 주희가 편찬한 『대학장구』에는 장구의 분장, 경문(經文)의 착간설(錯簡說) 주장, 삼강령(三綱領)·팔조목(八條目)으로 이루어진 경문과 이를 해설하는 전문과의 관계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주장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전(大全)'은 '대학장구' 아래에 송(宋)·원(元)·명대(明代) 학자들의 설을 소주(小註)로 덧붙인 것이다.

Confucianism scripture

상례비요

喪禮備要. 卷上下

Sangnye piyo

申義慶(朝鮮) 著; 金長生(朝鮮) 增補

木板本 Woodblock Print

[大邱]: 嶺營, 正祖 6(1782)

1冊: 挿圖, 四周雙邊 半郭 22.3 x 18.7 cm, 有界, 8行21字 註雙行, 上下向3葉花紋魚尾; 35.0 x 23.6 cm

序: 萬曆庚申(1620)...金長生

序: 歲戊子(1648)...金集

跋: 天啓元年歲辛酉(1621)...申欽

刊記: 崇禎三壬寅(1782)秋嶺營改刊

印文: 開雲齋藏



喪禮備要序

人有恒言必曰冠昏喪祭蓋有家日用之體

而通乎吉凶之需固不可廢一而不講也然

而禮之用易行於平間吉常之時而多失於

惡遠凶變之際苟非素所講習則難以合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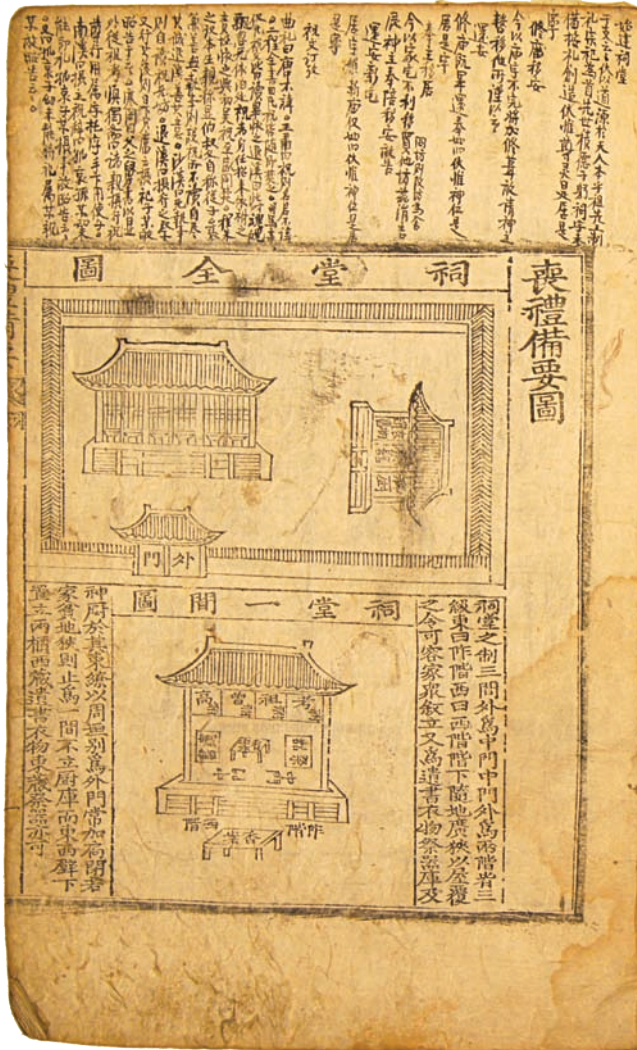
而應節一有所失悔不可追此孝子之所以

必欲自盡而在四禮爲尤重且切焉者也子

朱子家禮所載固已詳備而或有古今異宜



此亦方廣學士所撰... 禮記... 喪禮... 備要... 序... 萬曆庚申... 金長生... 歲戊子... 金集... 天啓元年... 申欽... 崇禎三壬寅... 嶺營改刊... 開雲齋藏



『상례비요』는 조선중기 성리학자인 신의경(申義慶)이 『주자가례(朱子家禮)』를 기본으로 고금의 여러 예설을 참고하여 만든 상례(喪禮)에 관해 책으로,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이 증보(增補)하고 그의 아들 김집(金集, 1574-1656)이 교정하여 간행한 책이다. 『가례』의 상례관계의 본문을 중심으로, 『예경(禮經)』과 여러 학자들의 이에 관한 해석을 참고하여 초상(初喪)에서 장제(葬祭)에 이르는 모든 예절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사당(祠堂)·신주(神主)·의금(衣衾)·최질(衰絰)·오복제(五服制)·상구(喪具)·발인(發靱)·성분(成墳)·입비(立碑)·수조(受弔)·진찬(進饌) 등의 도설(圖說)을 앞부분에 수록하였다.

Guide for funeral rites

상례비요

喪禮備要. 卷上下

Sangnye piyo

申義慶(朝鮮) 著

木板本 Woodblock 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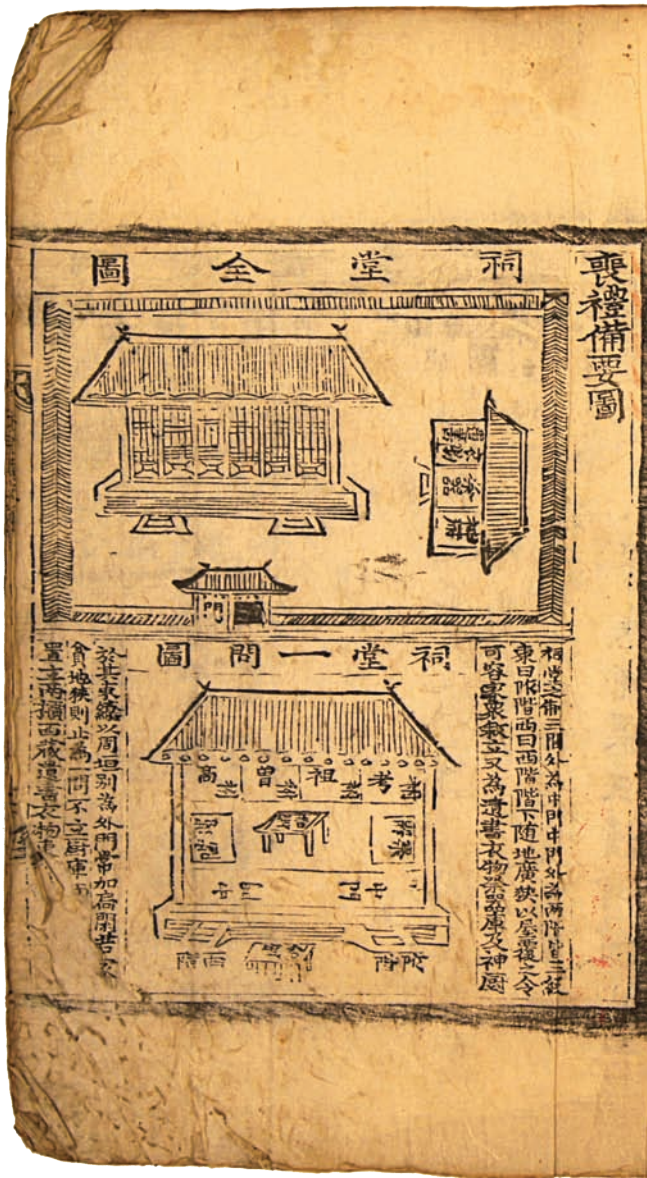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 挿圖, 四周雙邊 半郭 22.5 x 19.0 cm, 10行23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6.0 x 23.6 cm

序: 歲戊子(1648)...金集

跋: 天啓元年(1621)...申欽
부분훼손





書

者若是乎微矣曲密
奉宗順上而迷來夫与立
我東方方未之準則其之大哉
而行之世慎終追遠者斯無憾矣古
禮之於人猶酒之有蘄以厚以薄惟在
勉茲又豈非少溪公之所望於後學歟
天啓元年歲會辛酉孟冬上降東陽後人申錄

Guide for funeral rites

전운옥편

全韻玉篇. 卷上下

Chönun okp'yön

[編者未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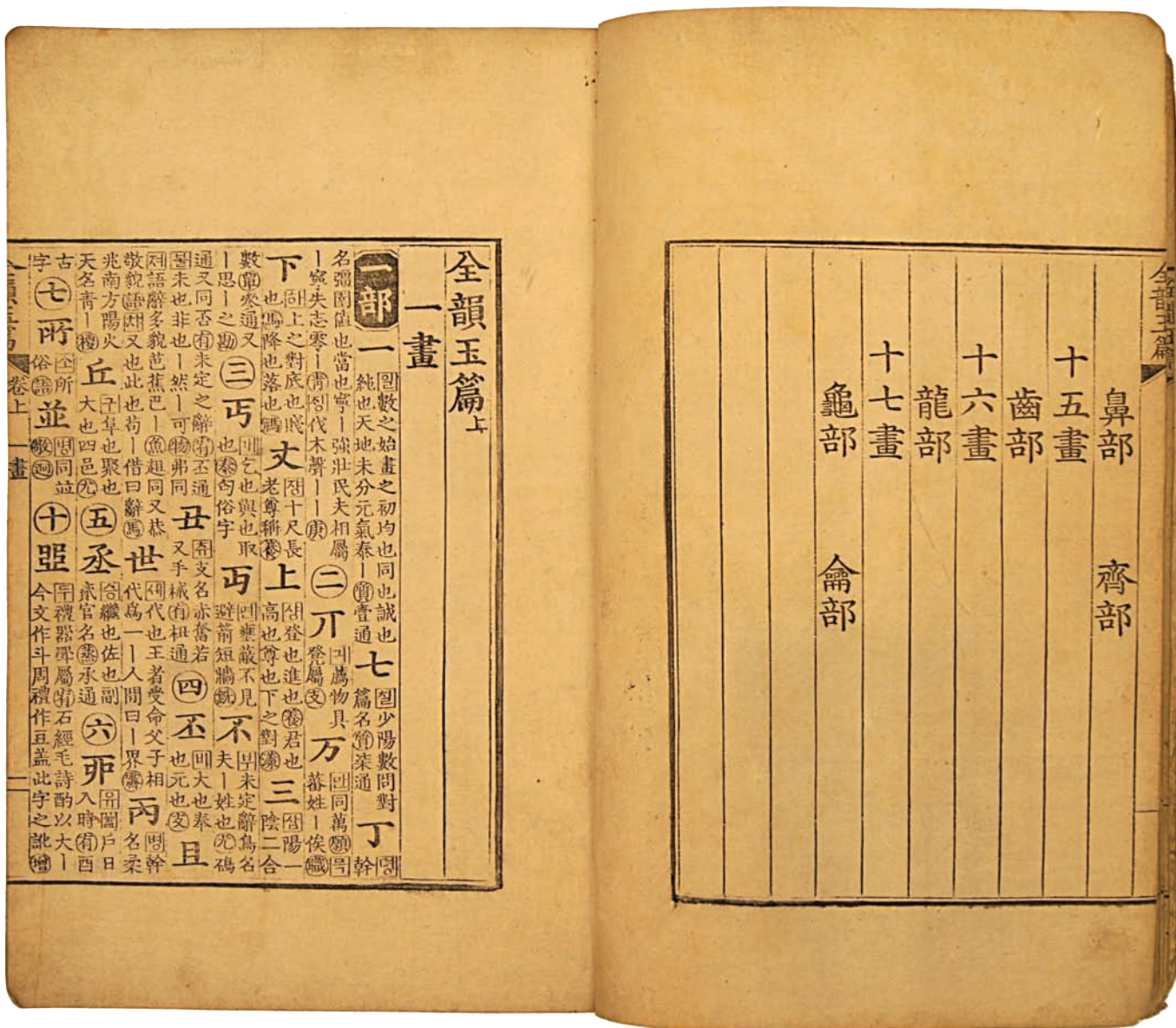
木板本 Woodblock Print

[發行地不明]: 由洞, 隆熙 4(1910)

2卷2册: 四周雙邊 半郭 21.7 × 15.2 cm, 有界, 10行15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33.5 × 21.7 cm

刊記: 庚戌(1910)仲秋由洞重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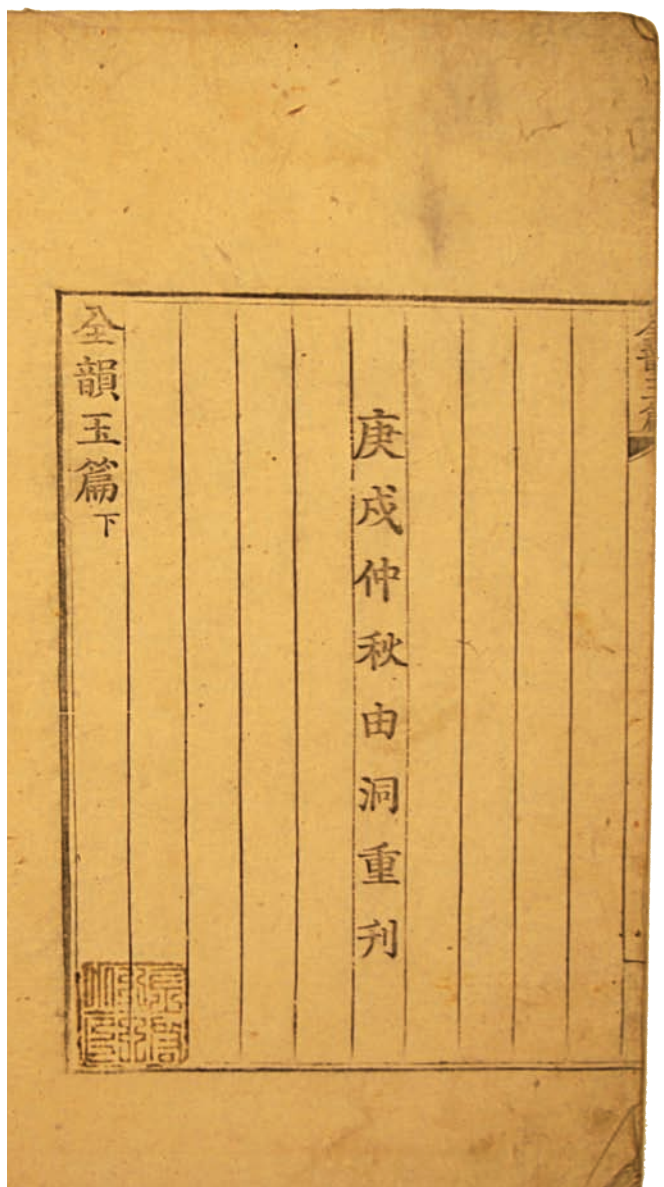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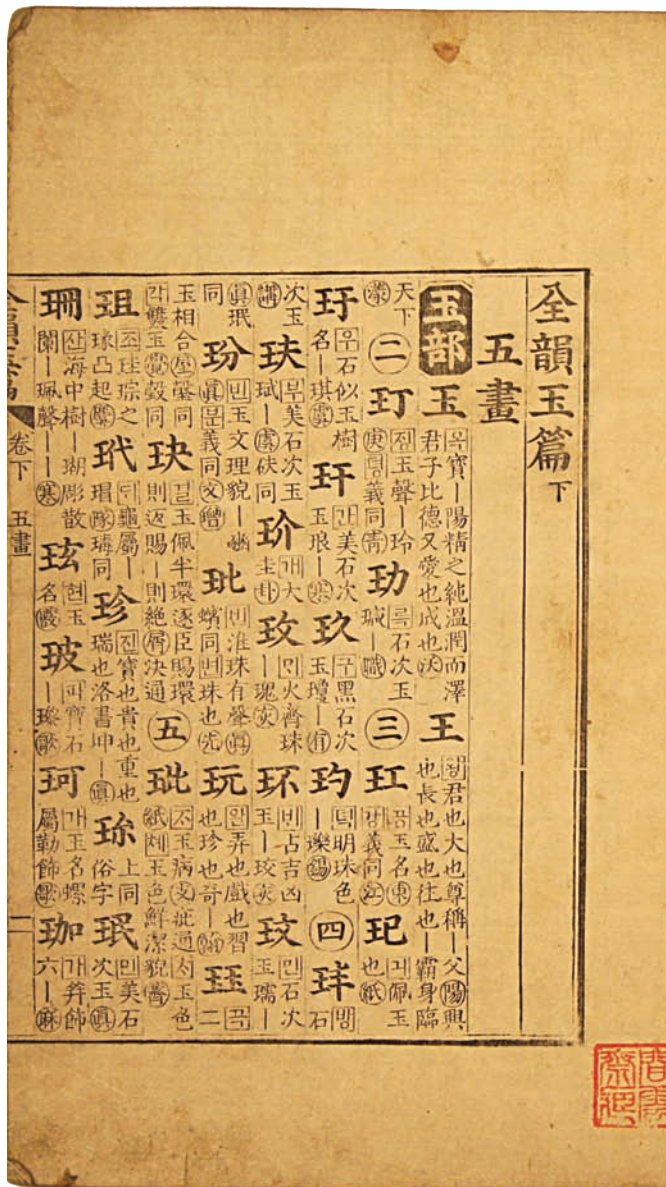
印文: 閒雲齋藏



全韻玉篇上

一畫

一 一 圓數之始畫之初均也同也誠也
純也天地未分元氣泰一圓畫通
二 二 圓少陽數問對
篇名節菜通
三 三 圓陰
陰二合
四 四 圓陽
陽一合
五 五 圓陰
陰二合
六 六 圓陽
陽一合
七 七 圓陰
陰二合
八 八 圓陽
陽一合
九 九 圓陰
陰二合
十 十 圓陽
陽一合
十一 十一 圓陰
陰二合
十二 十二 圓陽
陽一合
十三 十三 圓陰
陰二合
十四 十四 圓陽
陽一合
十五 十五 圓陰
陰二合
十六 十六 圓陽
陽一合
十七 十七 圓陰
陰二合
十八 十八 圓陽
陽一合
十九 十九 圓陰
陰二合
二十 二十 圓陽
陽一合
二十一 二十一 圓陰
陰二合
二十二 二十二 圓陽
陽一合
二十三 二十三 圓陰
陰二合
二十四 二十四 圓陽
陽一合
二十五 二十五 圓陰
陰二合
二十六 二十六 圓陽
陽一合
二十七 二十七 圓陰
陰二合
二十八 二十八 圓陽
陽一合
二十九 二十九 圓陰
陰二合
三十 三十 圓陽
陽一合
三十一 三十一 圓陰
陰二合
三十二 三十二 圓陽
陽一合
三十三 三十三 圓陰
陰二合
三十四 三十四 圓陽
陽一合
三十五 三十五 圓陰
陰二合
三十六 三十六 圓陽
陽一合
三十七 三十七 圓陰
陰二合
三十八 三十八 圓陽
陽一合
三十九 三十九 圓陰
陰二合
四十 四十 圓陽
陽一合
四十一 四十一 圓陰
陰二合
四十二 四十二 圓陽
陽一合
四十三 四十三 圓陰
陰二合
四十四 四十四 圓陽
陽一合
四十五 四十五 圓陰
陰二合
四十六 四十六 圓陽
陽一合
四十七 四十七 圓陰
陰二合
四十八 四十八 圓陽
陽一合
四十九 四十九 圓陰
陰二合
五十 五十 圓陽
陽一合
五十一 五十一 圓陰
陰二合
五十二 五十二 圓陽
陽一合
五十三 五十三 圓陰
陰二合
五十四 五十四 圓陽
陽一合
五十五 五十五 圓陰
陰二合
五十六 五十六 圓陽
陽一合
五十七 五十七 圓陰
陰二合
五十八 五十八 圓陽
陽一合
五十九 五十九 圓陰
陰二合
六十 六十 圓陽
陽一合
六十一 六十一 圓陰
陰二合
六十二 六十二 圓陽
陽一合
六十三 六十三 圓陰
陰二合
六十四 六十四 圓陽
陽一合
六十五 六十五 圓陰
陰二合
六十六 六十六 圓陽
陽一合
六十七 六十七 圓陰
陰二合
六十八 六十八 圓陽
陽一合
六十九 六十九 圓陰
陰二合
七十 七十 圓陽
陽一合
七十一 七十一 圓陰
陰二合
七十二 七十二 圓陽
陽一合
七十三 七十三 圓陰
陰二合
七十四 七十四 圓陽
陽一合
七十五 七十五 圓陰
陰二合
七十六 七十六 圓陽
陽一合
七十七 七十七 圓陰
陰二合
七十八 七十八 圓陽
陽一合
七十九 七十九 圓陰
陰二合
八十 八十 圓陽
陽一合
八十一 八十一 圓陰
陰二合
八十二 八十二 圓陽
陽一合
八十三 八十三 圓陰
陰二合
八十四 八十四 圓陽
陽一合
八十五 八十五 圓陰
陰二合
八十六 八十六 圓陽
陽一合
八十七 八十七 圓陰
陰二合
八十八 八十八 圓陽
陽一合
八十九 八十九 圓陰
陰二合
九十 九十 圓陽
陽一合
九十一 九十一 圓陰
陰二合
九十二 九十二 圓陽
陽一合
九十三 九十三 圓陰
陰二合
九十四 九十四 圓陽
陽一合
九十五 九十五 圓陰
陰二合
九十六 九十六 圓陽
陽一合
九十七 九十七 圓陰
陰二合
九十八 九十八 圓陽
陽一合
九十九 九十九 圓陰
陰二合
一百 一百 圓陽
陽一合



『전운옥편(全韻玉篇)』에서 ‘전운(全韻)’은 『규장전운(奎章全韻)』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운옥편』은 정조 때 편찬된 『규장전운』에 수록된 한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부편으로 편찬된 옥편으로 추정된다.

『규장전운』은 정조 20년(1796)에 이덕무(李德懋) 등 규장각(奎章閣) 제신(諸臣)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운서(韻書)이다. 한자의 운(韻)에 따라 글자를 배열한 운서는 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글자를 찾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러므로 운서에 수록된 글자를 부수나 음에 따라 재배열하여, 각 글자가 운서 안의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려주는 색인 역할을 하는 옥편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전운옥편』은 『규장전운』의 옥편 역할뿐 아니라 일반 자전의 역할까지 겸하여 근세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이용된 옥편으로, 현재 옥편 편찬의 규범이 되고 있다.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효경대의

孝經大儀

Hyogyöng taeü

朱熹(宋) 刊誤; 董鼎(宋) 註

木板本 Woodblock Print

[發行地不明]: 春坊, 己卯(1819)

1冊: 四周單邊 半郭 24.5 × 17 cm, 有界, 10行18字,

上下向2葉花紋魚尾; 35.4 × 23.4 cm

表題: 孝經

孝經大義序: 歲在乙巳(1305)…熊禾序時大德之九年(1309)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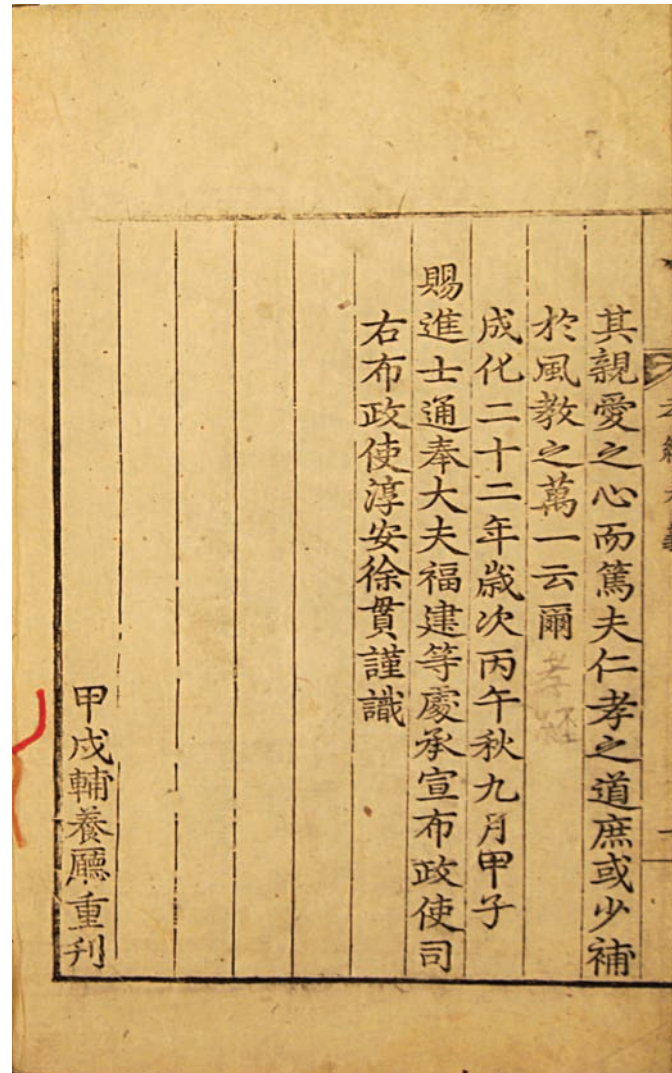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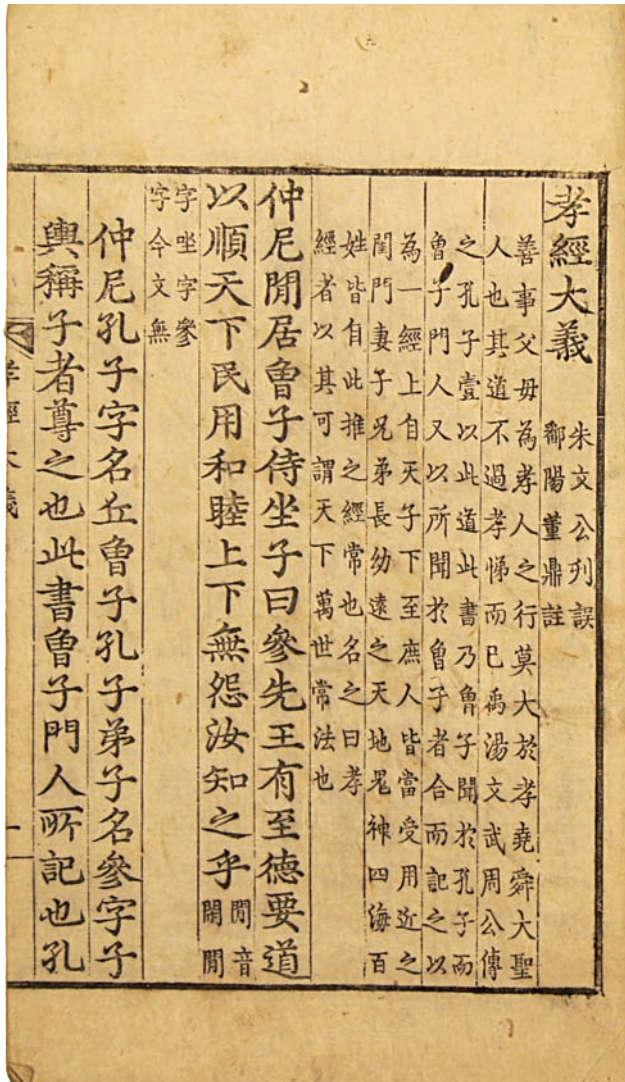
跋: 成化二十二年(1486)…徐貫

表題紙: 己卯(1819)新刊 春坊藏板

刊記: 甲戌(1814)輔養廳重刊

印文: 閒雲齋藏





효경(孝經)은 공자(孔子)와 증자(曾子)가 효(孝)에 대하여 문답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효경』은 『고문효경(古文孝經)』과 『금문효경(今文孝經)』 두 종류가 있는데, 『고문효경』은 공자가 예전에 살았던 저택의 벽에서 발견된 판본으로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문효경』은 18장으로 구성되었고, 하간(河間) 사람인 안지(顔芝)가 진시황의 분서갱유 이전부터 소장하고 있던 『효경』을 그의 아들 정(貞)이 조정에 바친 것이다. 이후 송나라 주희는 『고문효경』이나 『금문효경』의 장이 잘못 구분되고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여 『효경간오』를 편찬하였다. 『효경대의』는 이 주자의 『효경간오』에 자신의 지문(識文)을 덧붙여 새롭게 간행한 것이다.

Confucianism scripture about filial duty



史部



국조상례보편	48
동국문헌	50
동국문헌	52
성인록	54
송정기원후사임오증광사마방목	56
양무원증공신녹권	58
은대조례	60
조선고활자판습엽	62
진연의궤	64
진찬의궤	66
해동서원록	68

국조상례보편

國朝喪禮補編

Kukcho sangnye pop'yŏn

洪啓禧(朝鮮)...等 奉教編輯

木板本 Woodblock Print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6卷6册: 挿圖, 四周雙邊 半郭 23.2 x 17.2 cm,

10行18字 註雙行, 上下向2葉花紋魚尾; 32.8 x 21.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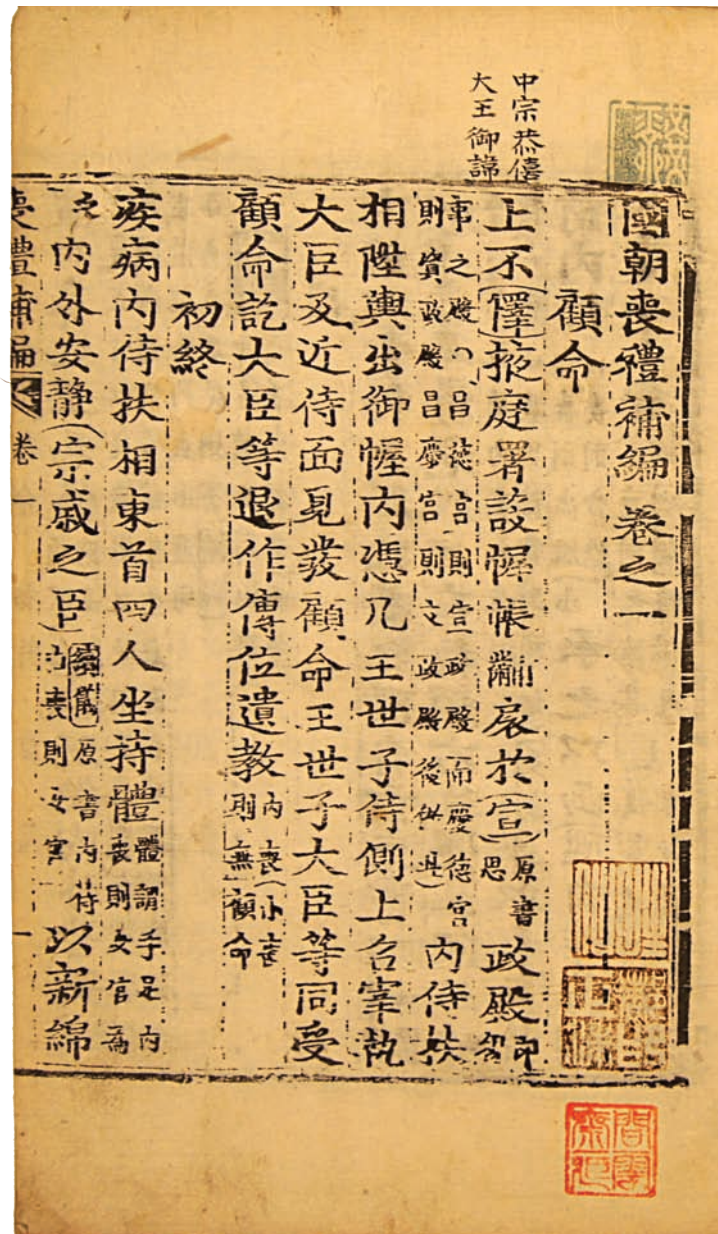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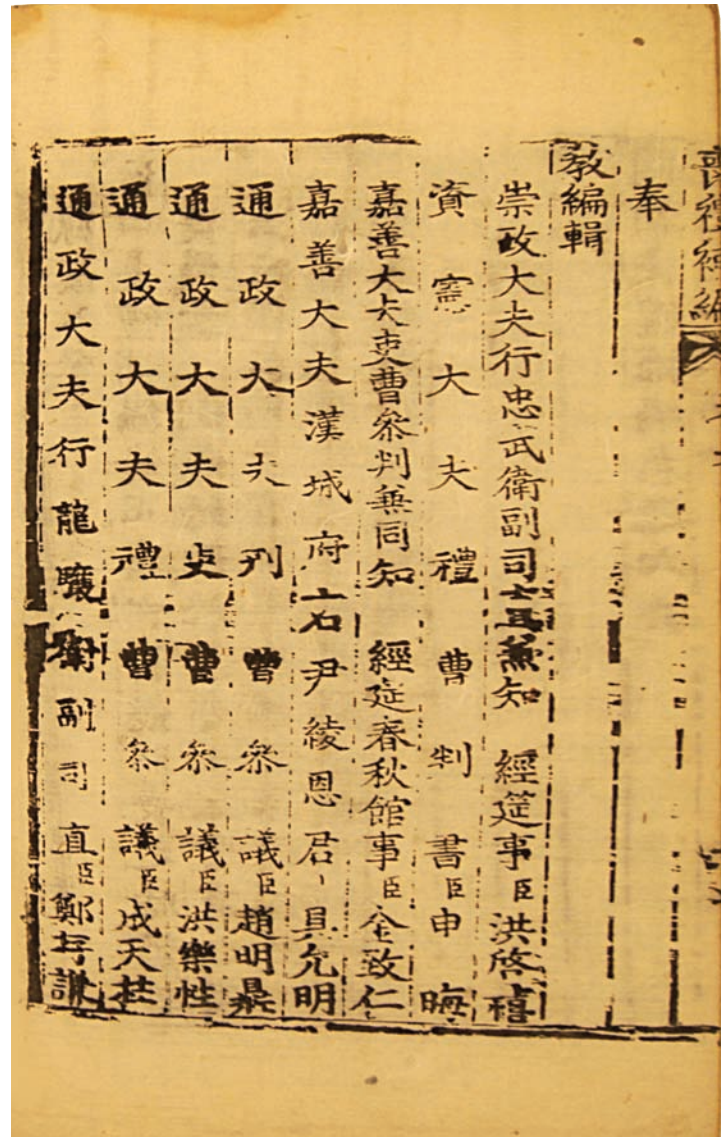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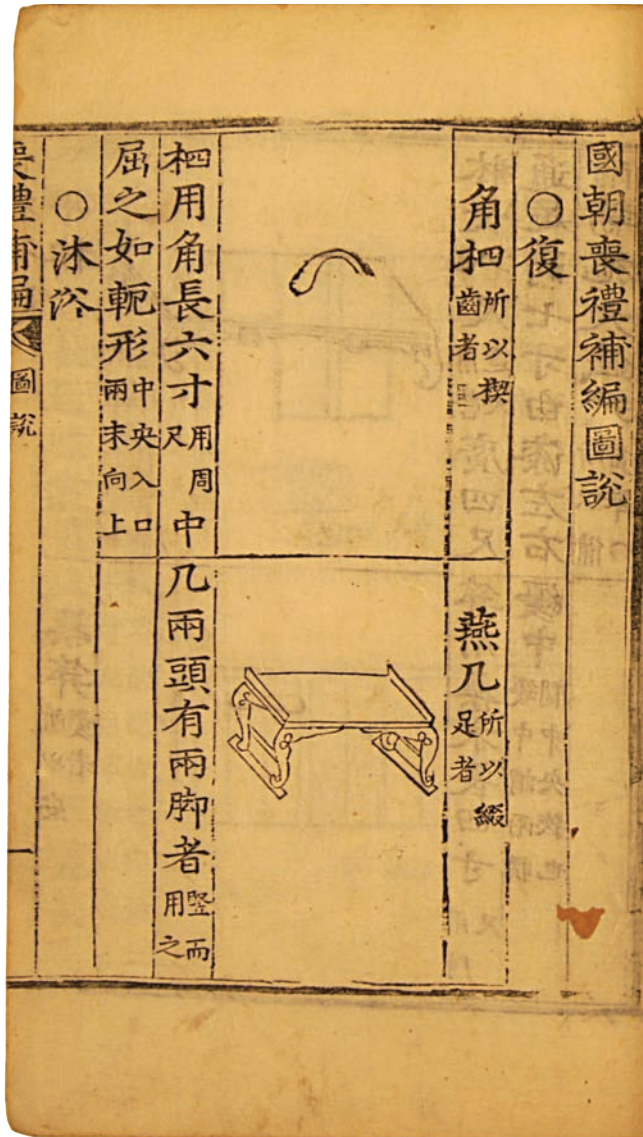
表紙名·板心題: 喪禮補編

御製[英祖]國朝喪禮補編前序: 歲壬申夏題...金在魯奉教書 戊寅(1758)三月日

御製[英祖]國朝喪禮補編後序: 崇禎紀元後三丁丑(1757)...申晚 奉教書

卷末: 奉教編輯...崇政大夫行忠武衛副司直兼知經筵事臣洪啓禧 等 8人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은 영조(英祖)의 명을 받아 홍계희(洪啓禧, 1703-1771)가 편찬한 예법서(禮法書)로서 특히 궁중의 상례(喪禮)를 다루고 있다. 세종(世宗)의 명으로 성종연간에 편찬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이를 수정·보완하여 영조연간에 간행된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 『국조오례의』와 『국조속오례의』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상례 부분만을 따로 떼어 정리한 것으로, 이후 궁중에서 거행되는 일체의 상례는 모두 이 책을 따르게 되었다.

Record for funeral

동국문헌

東國文獻

Tongguk munhŏn

金性澱(朝鮮) 校正

木板本 Woodblock 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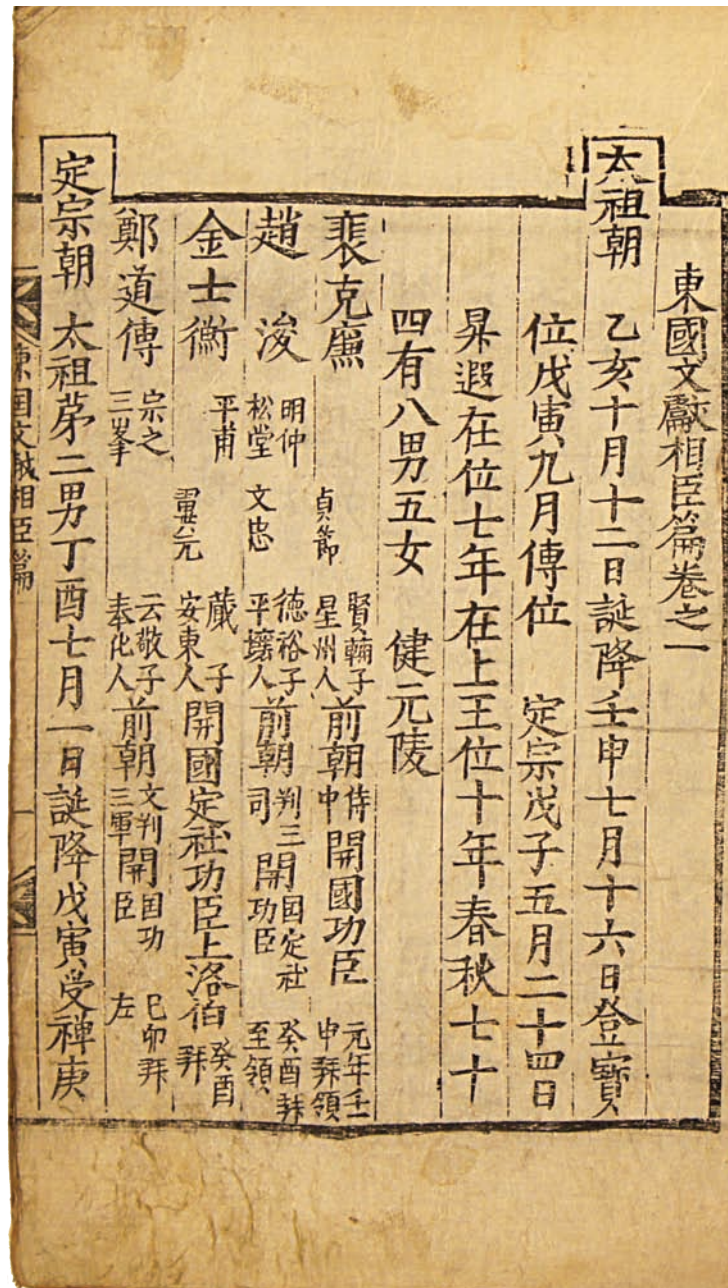
井邑：忠烈祠，純祖 4(1804)

4卷4册：四周單邊 半郭 21.8 x 15.9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30.5 x 19.6 cm

刊記：崇禎紀元後三甲子(1804)

校正儒生 金性澱, 開刊儒生安邦宅, 正書儒生崔時中
忠烈祠開刊

印文：閑雲齋藏





조선조 태조부터 순조까지 명신(名臣)과 명현(名賢)들의 명단이나 약전(略傳)을 유별(類別)로 엮은 책이다. 편자는 미상이나 순조 4년(1804)에 유생(儒生) 김성은(金性澱)의 교정을 거쳐 정읍(井邑)의 충렬사(忠烈祠)에서 안방택(安邦宅) 등이 개간(開刊)한 것이다. 권1에는 상신(相臣)·문형(文衡)·호당(湖堂)·규장(奎章) 등, 권2에는 공신(功臣)·청백(清白)·기로(耆老)·남대(南臺)·품직(品職)·현관(顯官)·대관(大官)·필원(筆苑)·화가(畫家) 등, 권3에는 유림(儒林)·문생(門生)·명신(名臣) 등, 권4에는 문묘(文廟)·태묘(太廟)·원우(院宇) 등이 수록되어 있다.

A biographical sketch of a noted well-known statesman and wise man in Joseon Dynasty

동국문헌

東國文獻

Tongguk munhŏn

金性澱(朝鮮) 校正

木板本 Woodblock Print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純祖 4(1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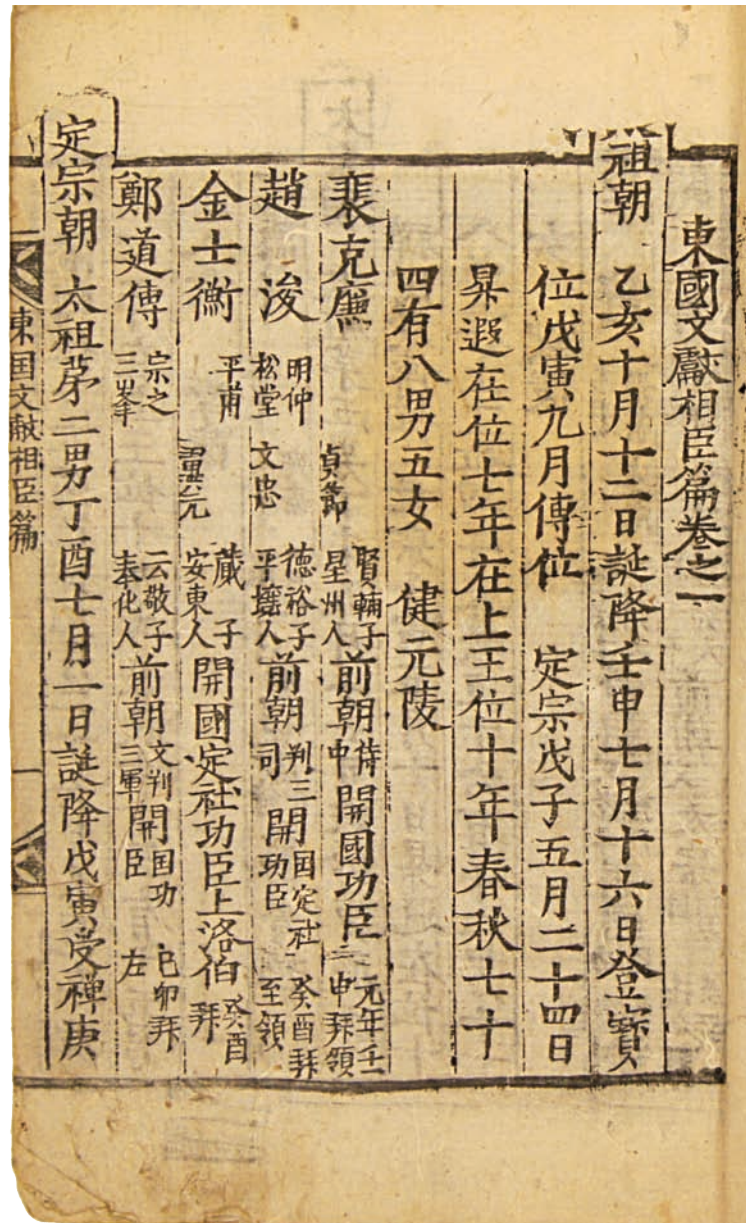
4卷4册: 四周單邊 半郭 21.2 x 14.3 cm, 有界, 10行字數不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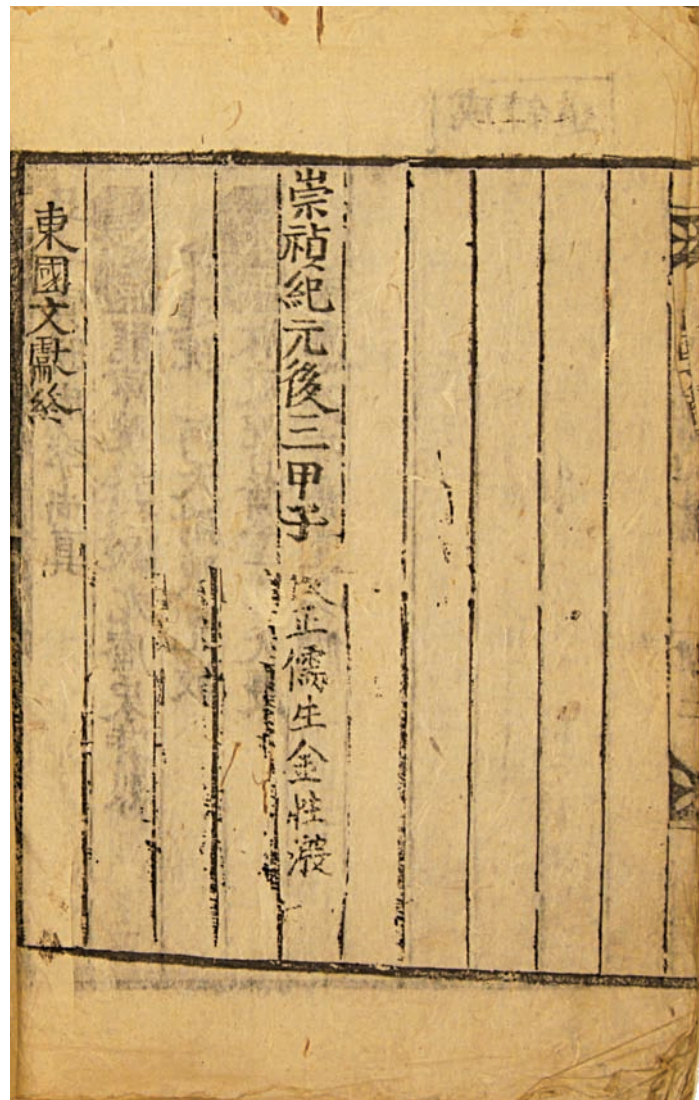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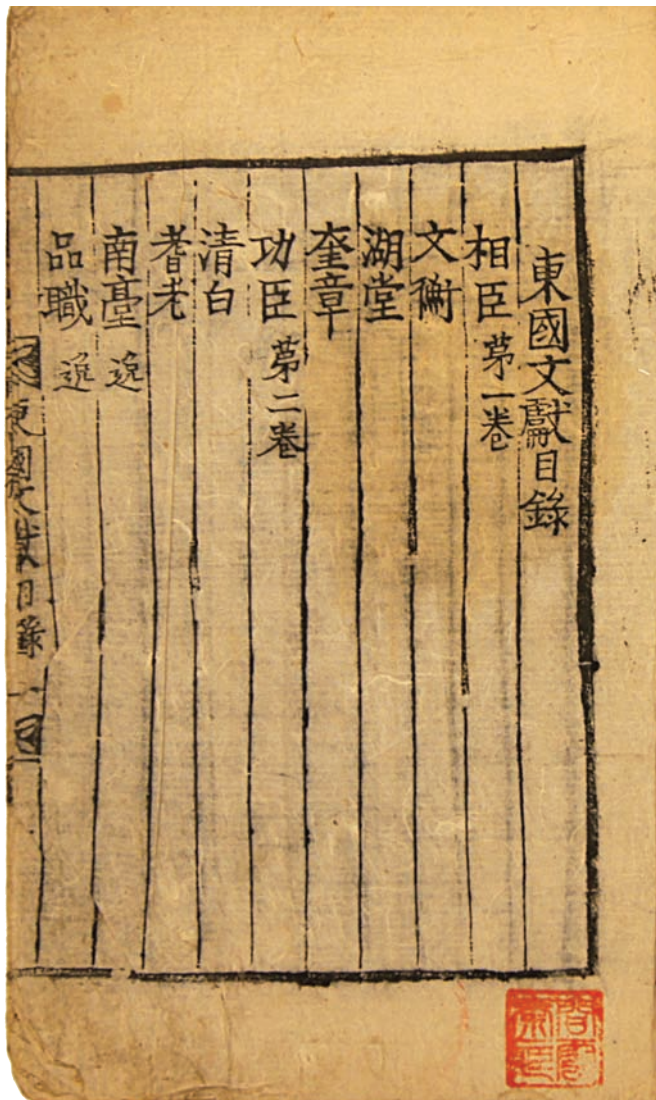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28.2 x 18.6 cm

刊記: 崇禎紀元後三甲子(1804)

校正儒生 金性澱

印文: 閒雲齋藏





성인록

成仁錄

Sōnginn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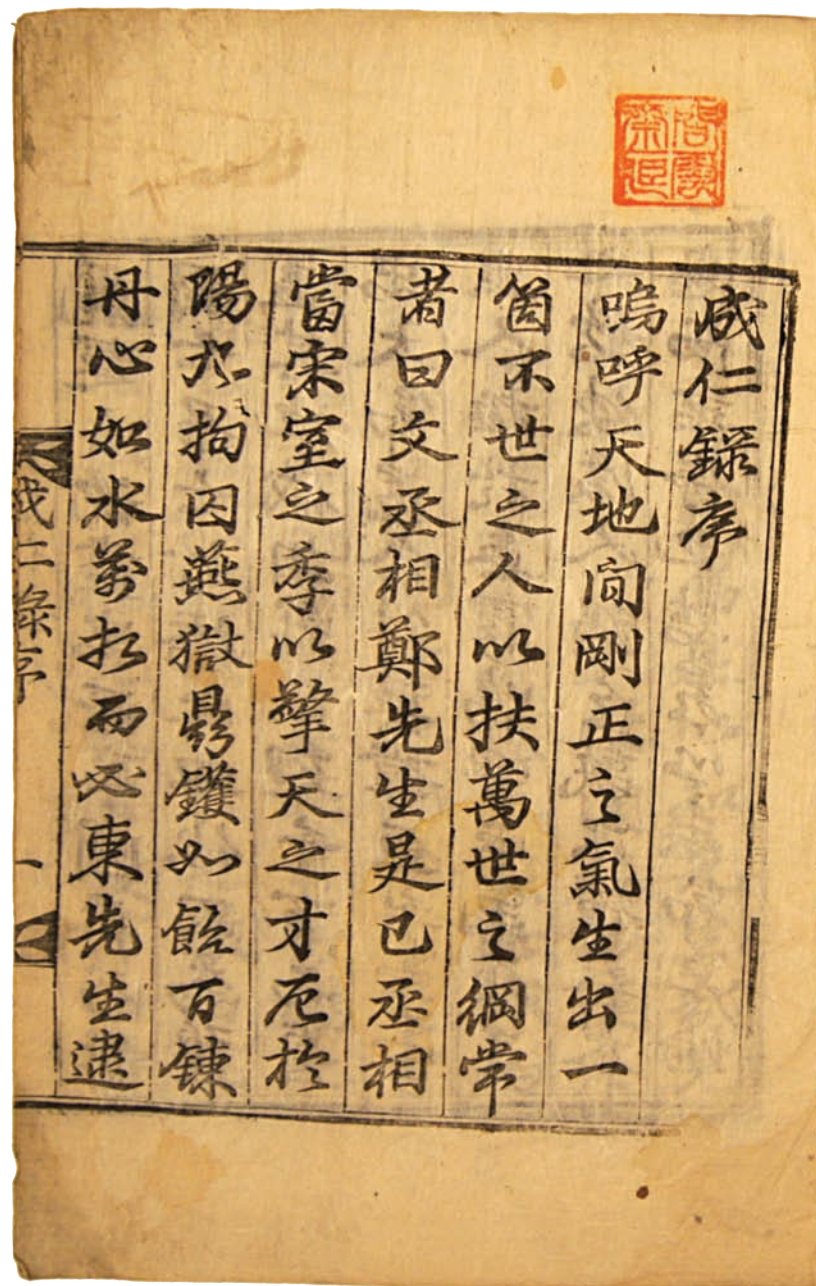
尹斗壽(朝鮮) 編

木板本 Woodblock Print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光武 7(1903)

1冊: 挿圖, 四周雙邊 半郭 19.5 x 15.8 cm, 有界, 9行15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29.7 x 20.2 cm

成人錄序: 時昭陽單闕(癸卯, 1903)之端陽日德殷 宋秉璿 謹序
跋: 崇禎紀元後再丙辰(1736)十月上浣觀察使驪興 閔應 洙
印文: 閒雲齋藏



成仁錄
 祥興獎諭文丞相詔略
 方敵氛之正惡 鞠旅勤王及皇路之已
 傾捐軀奉國脫危機於虎口涉遠道於
 鯨波雖成敗利鈍逆觀之未能而險阻
 艱難備嘗之已熟如金百鍊而益勁如
 水萬折而必東
 恭讓王獎諭鄭忠義伯教略
 天人之學王佐之才射策而聯捷魁科



『성인록(成仁錄)』은 윤두수(尹斗壽, 1533-1601)가 선조(宣祖) 15년(1581)에 고려의 충신 정몽주(鄭夢周, 1337-1392)와 송의 충신 문천상(文天祥, 1236-1282)의 절의를 높이 평가하여 국난을 당하여 흔들리는 사대부들에게 귀감으로 삼고자 편찬한 책이다. 두 인물이 절의(節義)로서 인(仁)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성인록』이라고 하였다.

『성인록』의 전반부는 문산 문천상에 관한 글이며 후반부는 포은 정몽주에 관한 글이다. 서언에 해당하는 글로 중국황제가 문천상에게 내린 조(詔)와 공양왕이 정몽주에게 내린 교(敎)가 실려 있다. 두 인물의 화상(畫像)과 유묵(遺墨), 제현(諸賢)들의 찬사(讚詞), 제문(祭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Recommend Wen Tianxiang (文天祥) and Jung Mong Ju (鄭夢周)

승정기원후사임오증광사마방목

崇禎紀元後四壬午增廣司馬榜目

Sungjǒng kiwŏn hu sa lmo chŭnggwang sama pangmok

木活字本 Wooden Movable Type Print

[發行地不明]：芸閣, 高宗 19(1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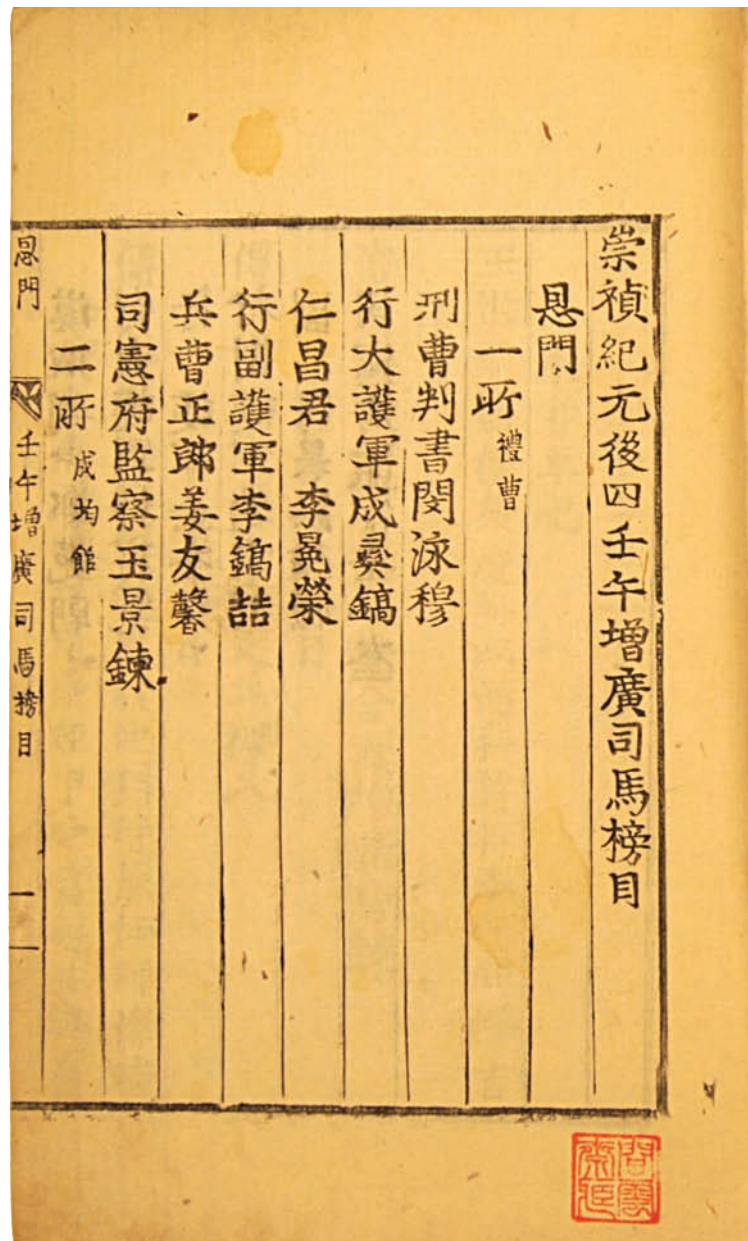
1冊：四周單邊 半郭 24.2 × 17.0 cm, 10行18字 註雙行,
上下向3葉花紋魚尾；35.3 × 22.7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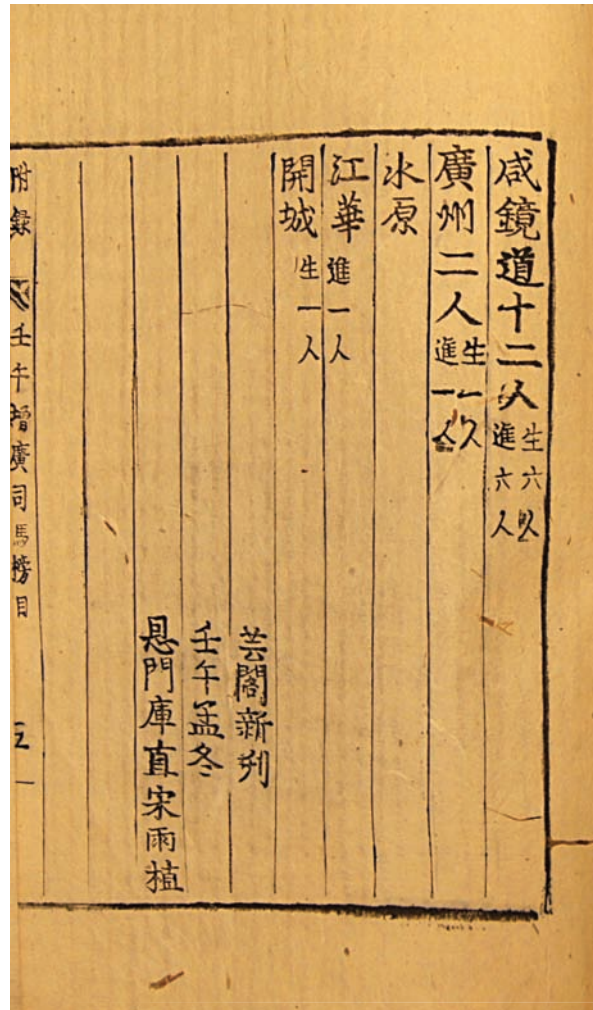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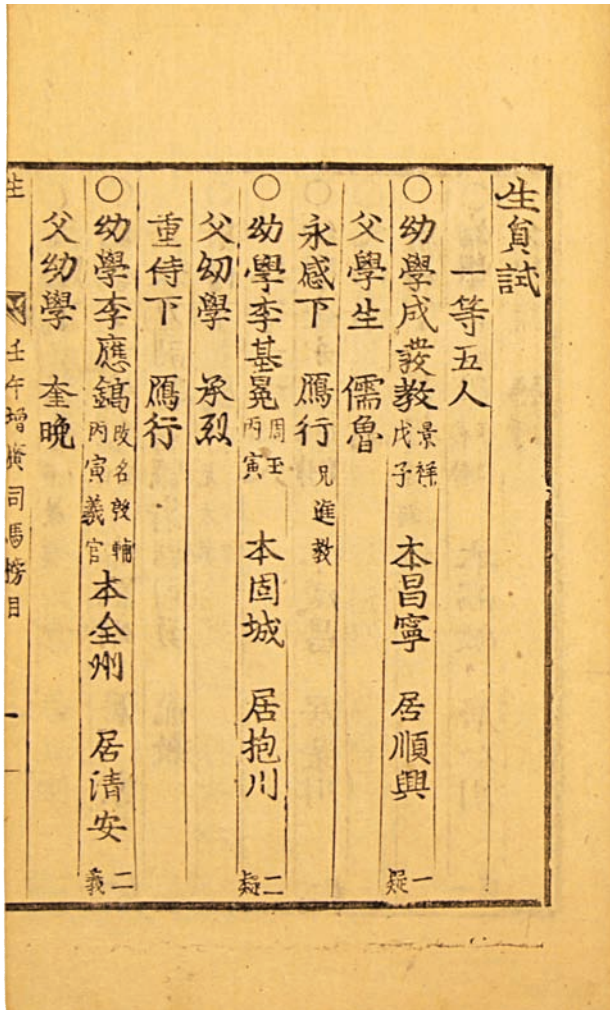
表題: 壬午增廣司馬

卷首: 壬午二月二十三日, 禮曹草記...

刊記: 芸閣新刊 壬午孟冬 恩門庫直宋雨植

印文: 閒雲齋藏





『사마방목』은 생원(生員)·진사시(進士試) 합격자들의 명부로 응시 당시의 신분과 거주지 및 가족 관계 등이 기록되어 있다. 『송정기원후사임오증광사마방목』은 고종 19년(1882) 왕세자 가례(嘉禮)를 축하하여 실시한 과시(科試)의 급제자 명부이다. 은문(恩門), 방목(榜目),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은문(恩門)은 2차 시험인 회시의 시관(試官) 명단이다. 일소(一所, 禮曹)에 민영목(閔泳穆, 1826-1884), 성이호(成彝鎬, 1817-1895) 등, 이소(二所, 成均館)에 정범조(鄭範朝, 1833-1897)·박제관(朴齊寬, 1834-?) 등이 수록되어 있다. 방목(榜目)은 생원시(生員試)·진사시(進士試)의 합격자 명단이다. 합격자는 개인별로 정해진 체제에 따라 신상정보와 가족사항, 응시 시소 및 과목을 기재하였다. 부록에는 방임(榜任), 양시(兩試), 연벽(聯璧), 초시(初試)·회시(會試), 경외생진입격수(京外生進及格數)를 수록하였다.

Lists of a successful examinee of examination to recruit ranking officials in 1882

양무원종공신녹권

揚武原從功臣錄券

Yangmoo wŏnjong gongsin-nokgwŏn

揚武錄勳都監(朝鮮) 編

金屬活字本(戊申字) Metal Type Print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英祖 4(1728)]

1冊: 四周雙邊 半郭 24.5 x 16.7 cm, 10行18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2.2 x 21.3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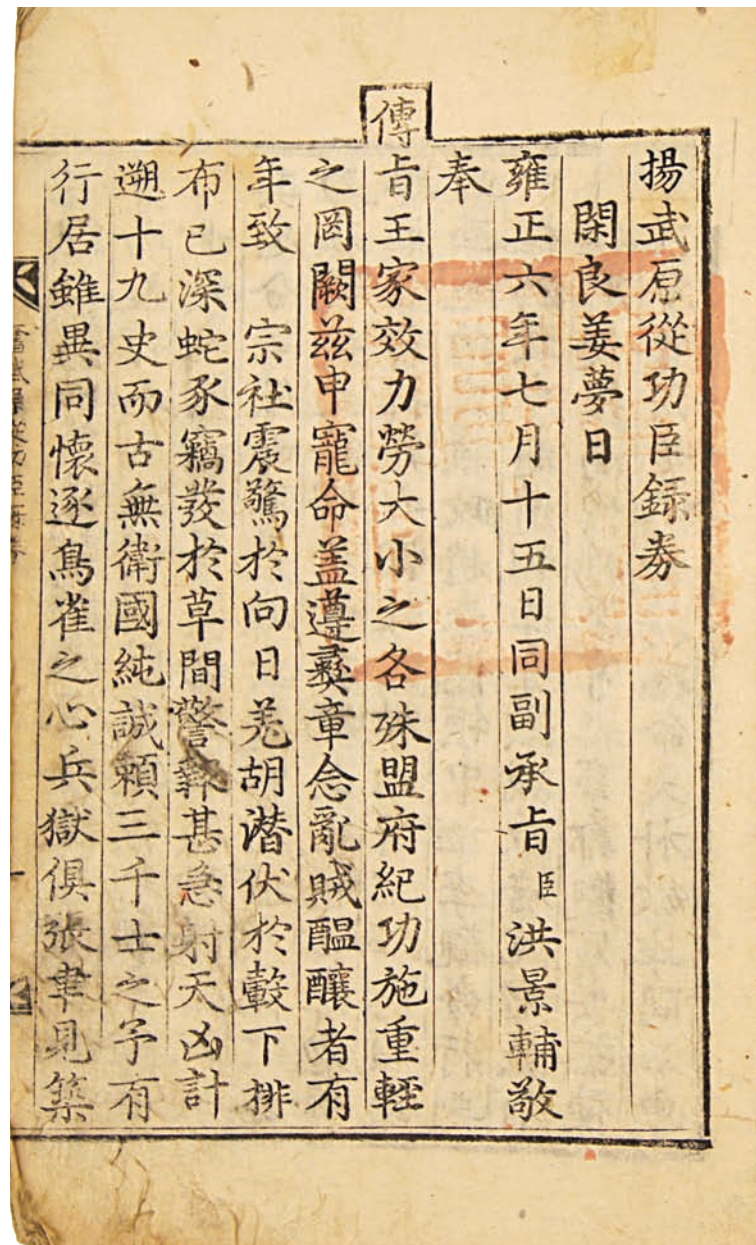
頒教文: 大提學 臣 尹淳製 進

卷首: 雍正六年(1728)七月十五日...洪景輔 敬奉

版心題: 舊武原從功臣錄券

受券者: 閑良 姜夢日

印文: 施命之寶, 閒雲齋藏, 中村藏



揚武討逆
頒教文

王若曰亂賊何代則無未有今茲之凶變陰沴不日乃掃載見區宇之清夷肆播用亶之渙音庸歸莫大之新慶粵予寡德叨此洪基以常性責入曾不疑乎為逆謂淫朋禍國期必臻於同寅然惡種錮廢之猶初抑醜類鑑別之難蓋名義大案數族之怨詛彌深教文凶言一賊之誅討已綏終致羣不逞之合締敢乘久無兵之時幾一有蹉躓幾乎顛覆興言及此痛心奈何

中府藏

揚武錄勳都監

堂上翰忠竭誠決義揚武功臣正憲大夫兵曹判書無知 經筵事豐陵君 臣趙文命
郎廳通訓大夫行弘文館副應教知製 教無 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 臣成德潤
監 校 郎 廳 通 訓 大 夫 行 社 稷 署 令 臣 沈 漢
監 造 官 奉 正 大 夫 行 漢 城 府 參 軍 臣 黃 星 河

영조 5년(1728)에 일어난 이인좌(李麟佐)의 난(亂)을 다스리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녹권(錄券)이다. 무신년(戊申年)에 일어났다고 해서 무신란(戊申亂)이라고도 한다. 당시 정권에서 배제된 소론(少論)과 남인(南人) 일부가 무력으로 정권 탈취를 기도한 사건이다. 난이 진압된 후 7월에 양무녹훈도감(揚武錄勳都監)을 설치하고 난의 진압에 공을 세운 사람을 선정하여 녹권을 내렸다. 본 녹권은 한량(閑良) 강몽일(姜夢日)에게 수여한 것이다.

Commendation for meritorious retainers in the Lee In-jwa's Rebellion in 1728

은대조례

銀臺條例

Ŭndae chorye

高宗(朝鮮) 命編

金屬活字本(全史字) Metal Type 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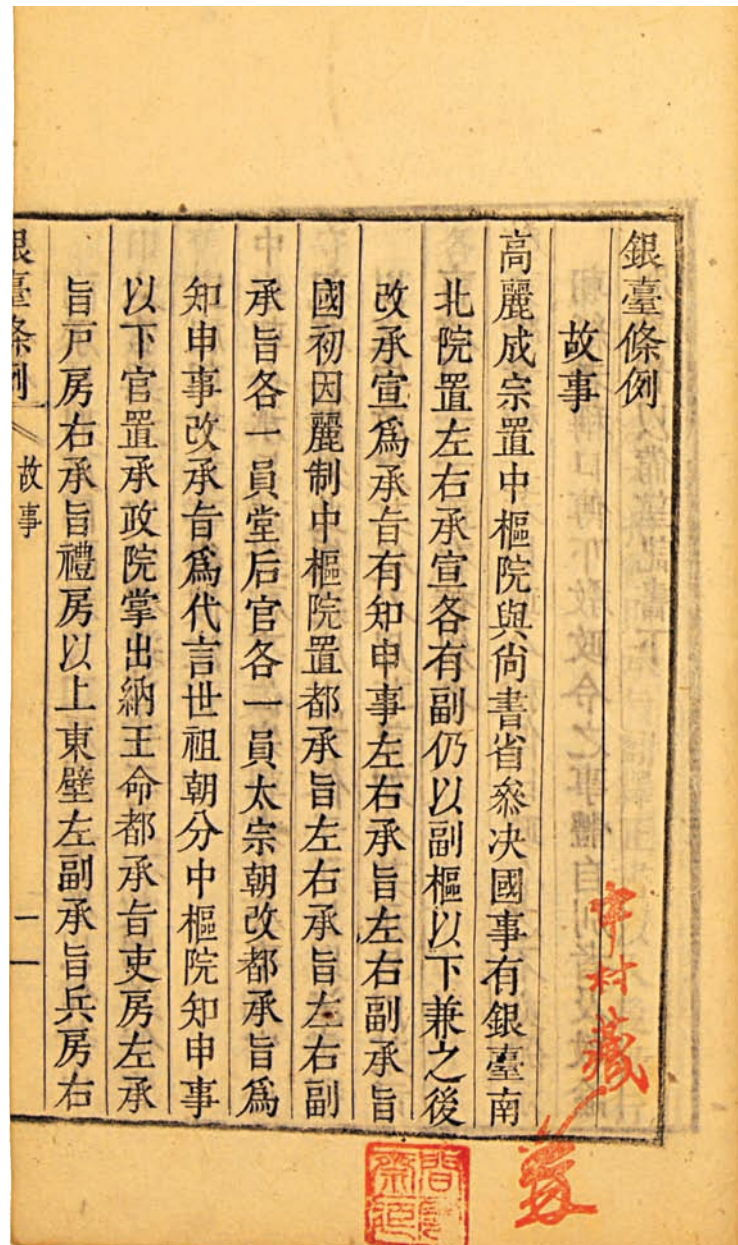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高宗 7(1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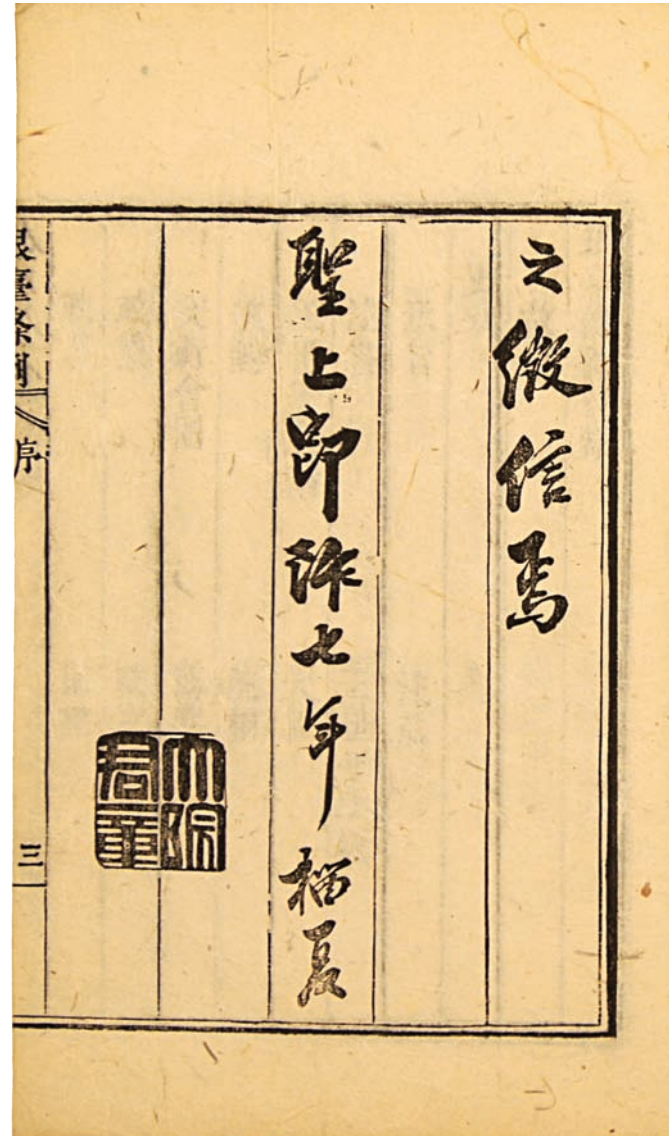
1冊: 四周單邊 半郭 21.2 × 14.7 cm,

10行20字 註雙行, 上下向白魚尾; 29.9 × 19.5 cm

序: 聖上卽祚七年(1870)榴夏[大院君章]

印文: 閒雲齋藏, 中村藏





『은대조례(銀臺條例)』는 고종(高宗) 7년(1870)에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昞應, 1820—1898)의 명에 따라 승정원(承政院, 銀臺)이 정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규정을 모아 편찬한 것이다.

서문, 목록, 고사(故事), 이고(吏攷), 호고(戶攷), 예고(禮攷), 병고(兵攷), 형고(刑攷), 공고(工攷),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은 흥선대원군이 썼으며, 고사는 승정원의 연혁과 직무 수행에 관련된 각종 규례의 유래를 순조 때까지 밝히고 있다. 이어서 각 왕의 의식이나 행사 때 승지들이 해야 할 일이 고사와 함께 적혀 있다. 조선시대 승정원의 기능과 임무를 잘 알려주고 있으며, 당시 행정 관행을 살피는데 좋은 자료이다.

The rule book for Seungjeonwon

조선고활자판습엽

朝鮮古活字版拾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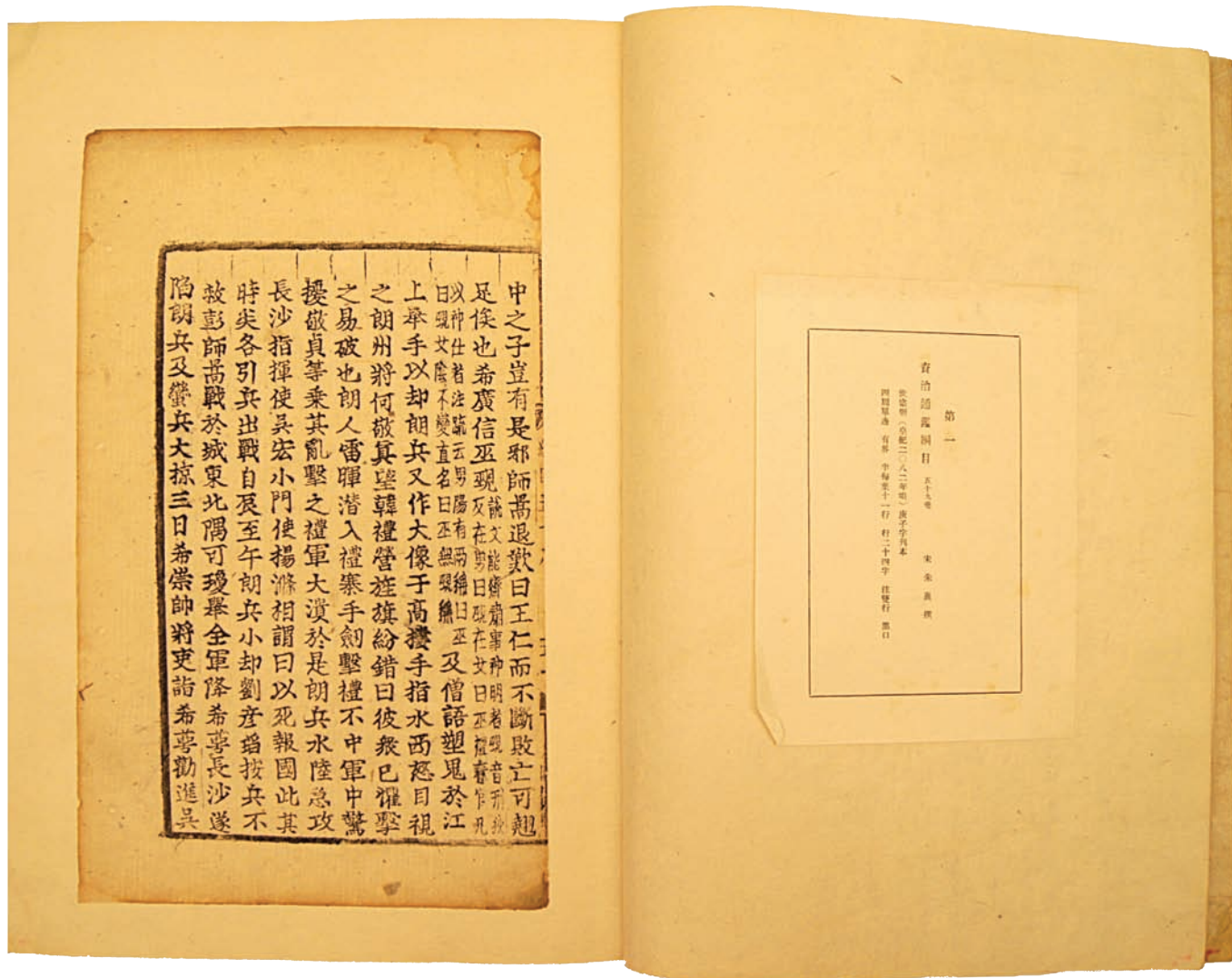
Joseon gohwalja seupye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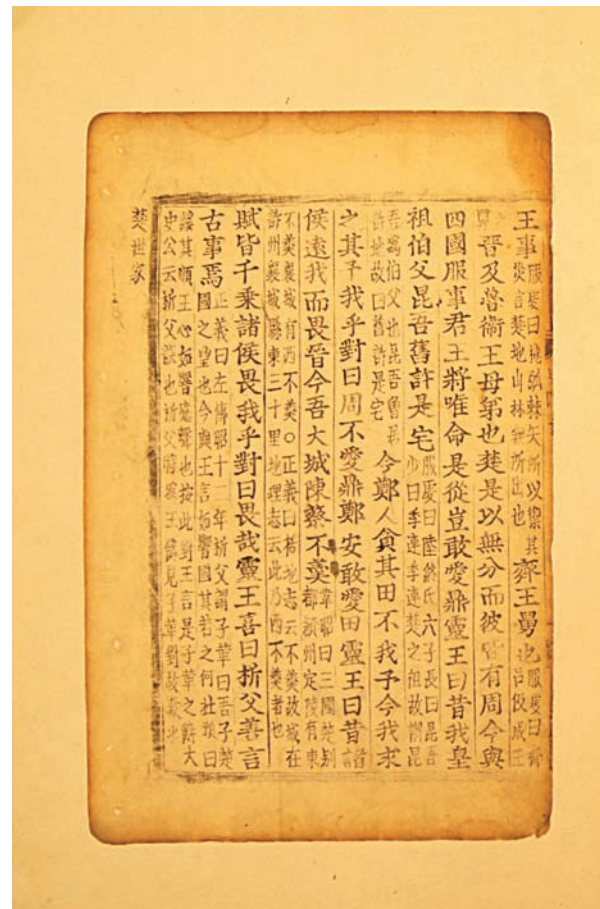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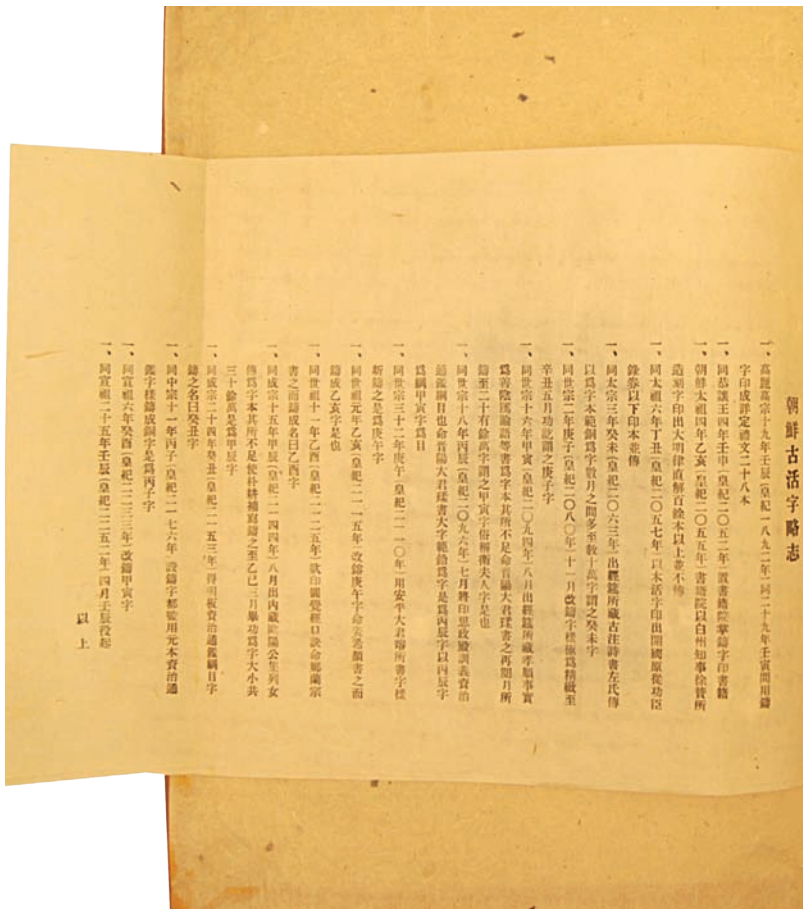
[編者未詳]

金屬活字本 Metal Type Print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 38.5 x 27.5 cm





『조선고활자판습엽(朝鮮古活字版拾葉)』은 고향자 샘플집이다. 경자자간본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사기(史記)』, 『유설경학대장(類說經學隊杖)』, 『문선(文選)』, 『서산선생진문충공문장정종(西山先生眞文忠公文章正宗)』 5종, 갑인자간본 『분류보주이태백시(分類補註李太白詩)』, 『자치통감강목』, 『증간교정왕장원집제가주분류동파선생시(增刊校正王狀元集諸家註分類東坡先生詩)』, 『문선』, 『남사(南史)』, 『왕형문공시(王荊文公詩)』, 병진자개주갑인자간본 『자치통감강목』, 을해자간본 『춘추호씨전(春秋胡氏傳)』, 『통감론(通鑑論)』, 『무경소학(武經小學)』, 『(진서산독서기을집상)대학연의(眞西山讀書記乙集上大學衍義)』, 『증속회통운부군옥(增續會通韻府群玉)』, 『양록당집(懷麓堂集)』, 『문한류선대성(文翰類選大成)』 7종, 갑진자간본 『사월(史鉞)』, 『당시품휘(唐詩品彙)』, 『신편고금사문유취(新編古今事文類聚)』, 『춘추좌전직해(春秋左傳直解)』, 병자자간본 『문원영화(文苑英華)』, 『대송미산소씨가전심학문집(大宋眉山蘇氏家傳心學文集)』, 목활자본 『송원사략(宋元史略)』이 각각 한 장씩 수록되어 있다. 샘플을 실은 후에 마지막에 각 활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Collection of sample of Korean old movable metal type blocks

진연의궤

進宴儀軌

Chinyön üigwe

進宴都監(朝鮮) 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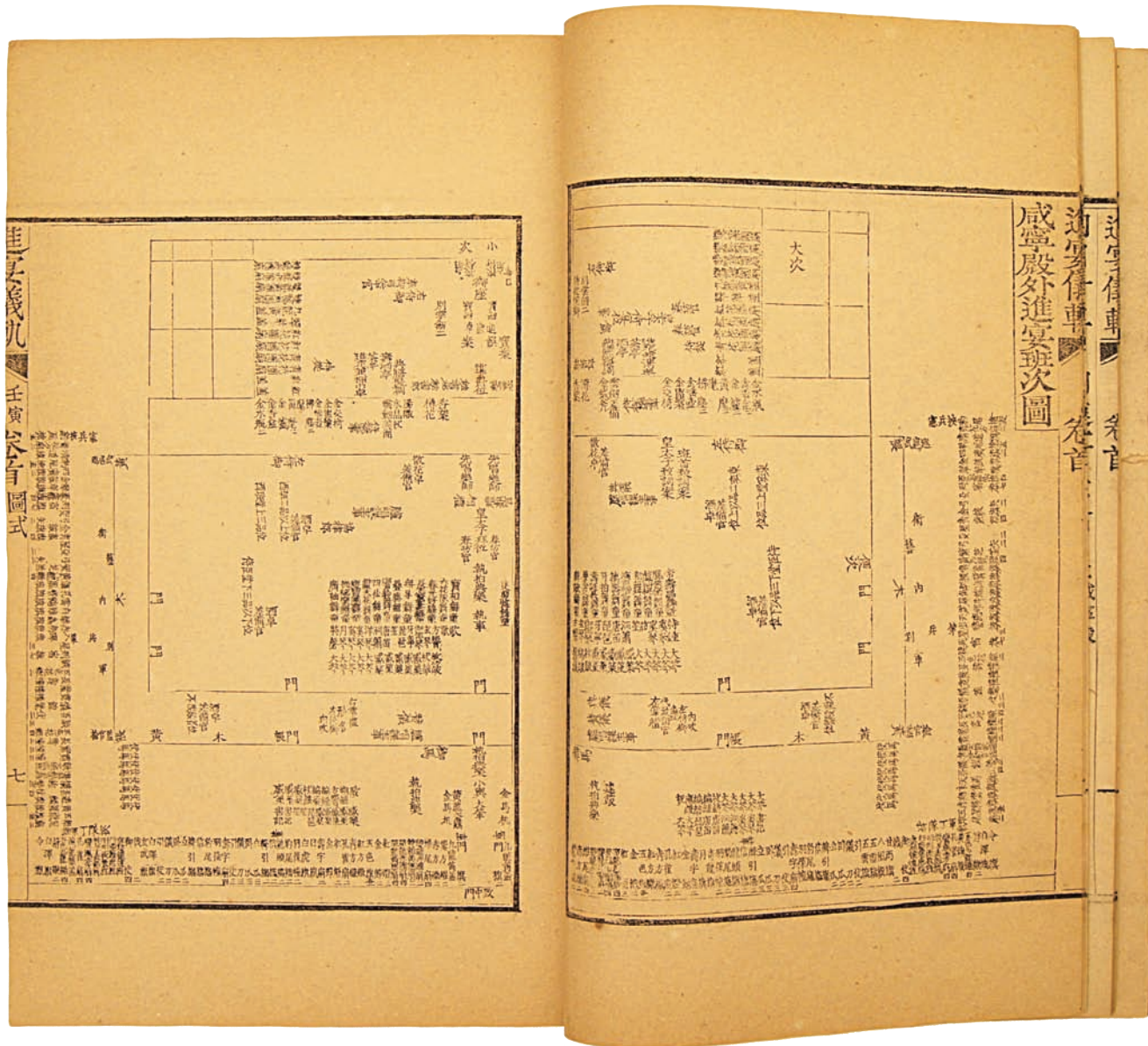
金屬活字本(再鑄整理字) Metal Type Print

[漢城]: 儀軌廳, [光武 6(1902)]

印文: 開雲齋藏

4卷4冊: 插圖, 四周雙邊 半郭 24.6 × 17.5 cm,

12行22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35.0 × 22.8 cm





進宴儀軌卷之一
 睿疏
 皇太子上疏 壬寅二月二十四日
 皇太子 誠惶誠恐稽首頓首謹再拜上言于 統天隆
 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
 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
 休皇帝陛下伏以臣子之所願乎上者壽考福祿有國之
 慶莫有大於祈永命祝永年是以其於典禮慶上壽之禮
 最莫盛焉而我家耆社之禮又慶禮之盛且大焉是禮也
 蓋自三代以來肇有於國初而 列聖朝惟 三聖行是
 禮實千載曠有之慶也今歲卽我 父皇陛下是禮之
 慶年小子欣忭之至曷有其極粵惟我 太祖高皇帝應

1902년(광무 6) 고종의 기로소(耆老所) 입소를 경축하기 위해 베푼 진연(進宴)에 관한 의궤이다. 본 의궤는 1901년의 『진연의궤』와 함께 황제국 체제 하에서 진연의 특징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진연 준비 절차와 참가 인원 등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연에 쓰인 음악과 춤, 상차림, 꽃 장식, 동원된 인원 및 급료, 각종 물품 및 가격에 이르는 세세한 내용까지 모두 기록하여, 정치사, 문화사, 사회사, 경제사 등 다방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료이다.

A record of banquet for Emperor Gojong entrance into the Chamber of Elders(耆老所) in 1902

진찬의궤

進饌儀軌

Chinch'an üigw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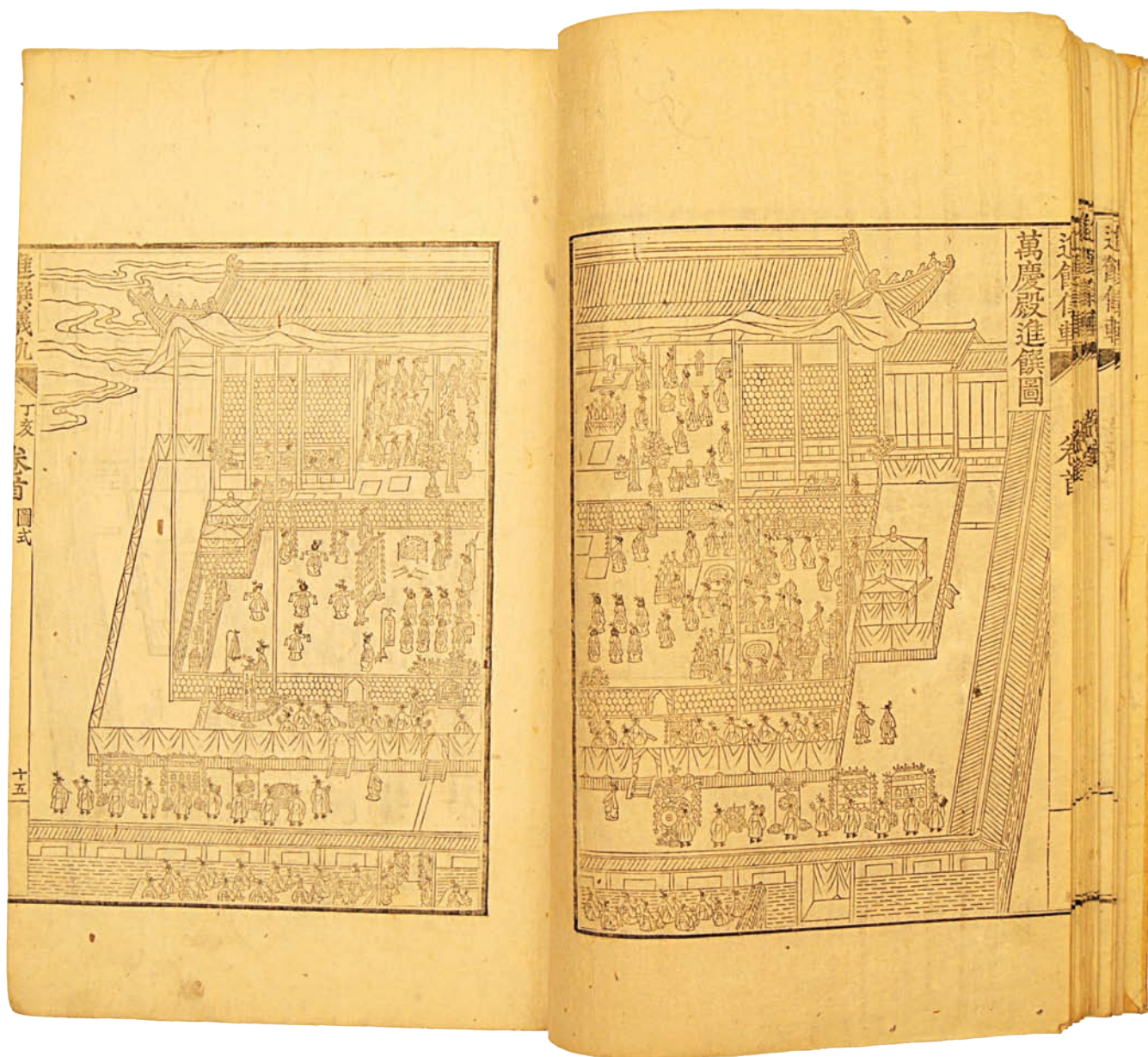
儀軌廳(朝鮮) 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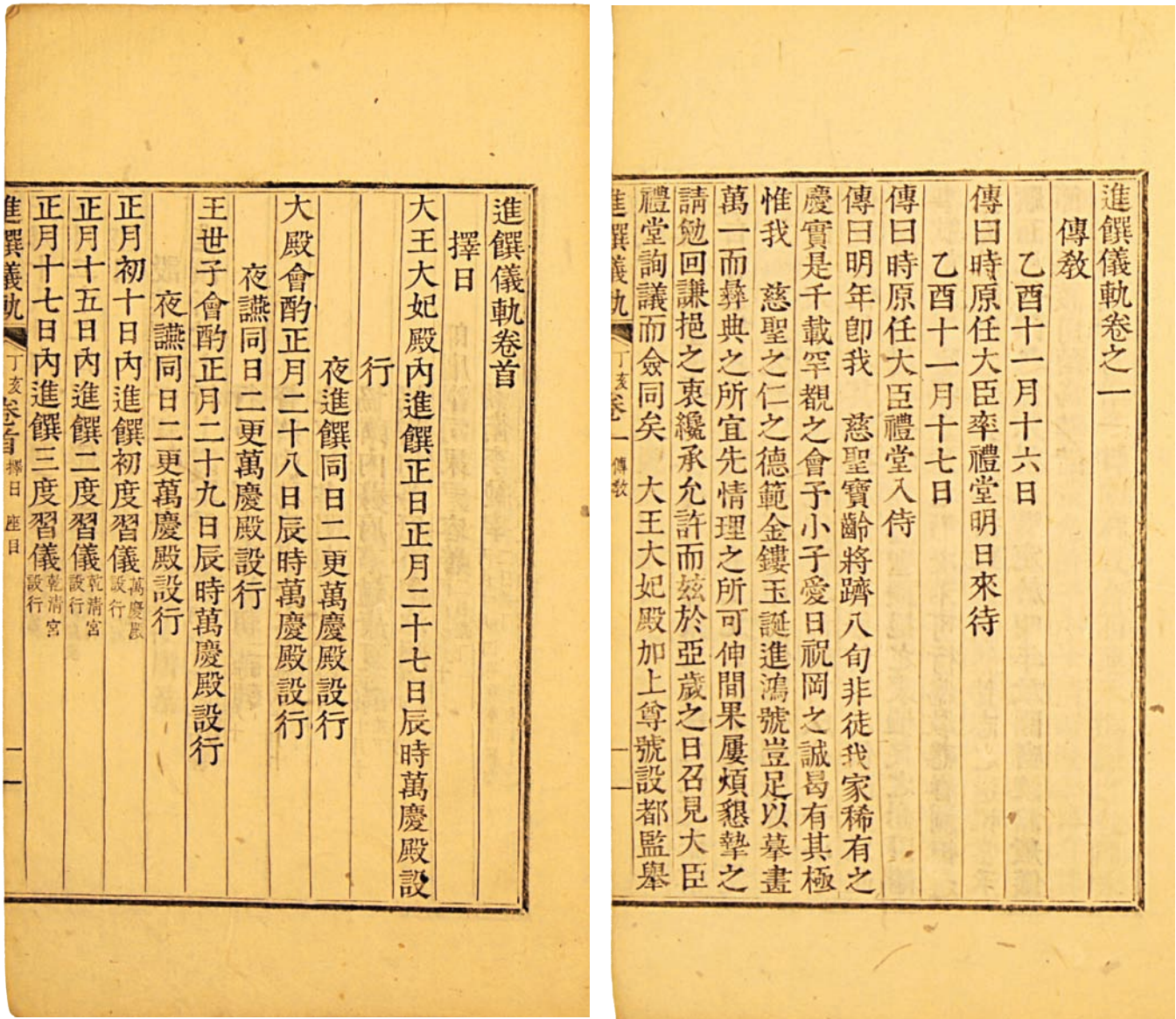
金屬活字本(整理字) Metal Type Print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高宗 24(1887)

印文: 閒雲齋藏

4卷4冊: 插圖, 四周雙邊 半郭 24.3 × 17.5 cm, 有界,
12行22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35.5 × 23.5 cm





조선시대의 『진찬의궤(進饌儀軌)』는 현재 7종이 있는데, 이 『진찬의궤』는 고종 24년(1887) 대왕대비[翼宗妃] 신정왕후 조씨(1808-1890)의 80주년 생신을 축하하여 설행한 진찬의식을 정리한 의궤이다. 어미에 '정해(丁亥)'라는 간지가 있는데, 고종 24년(1887)을 의미한다. 본문에는 진찬하려고 발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시행절차, 장소, 각방의 소관, 분담업무, 재용, 물품, 인원, 진찬하는 절차, 진찬 후의 상사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조선말기 궁중 의례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A record of banquet for royal family's 80th birthday

해동서원록

海東書院錄

Haedong sŏwŏn-nok

[編者未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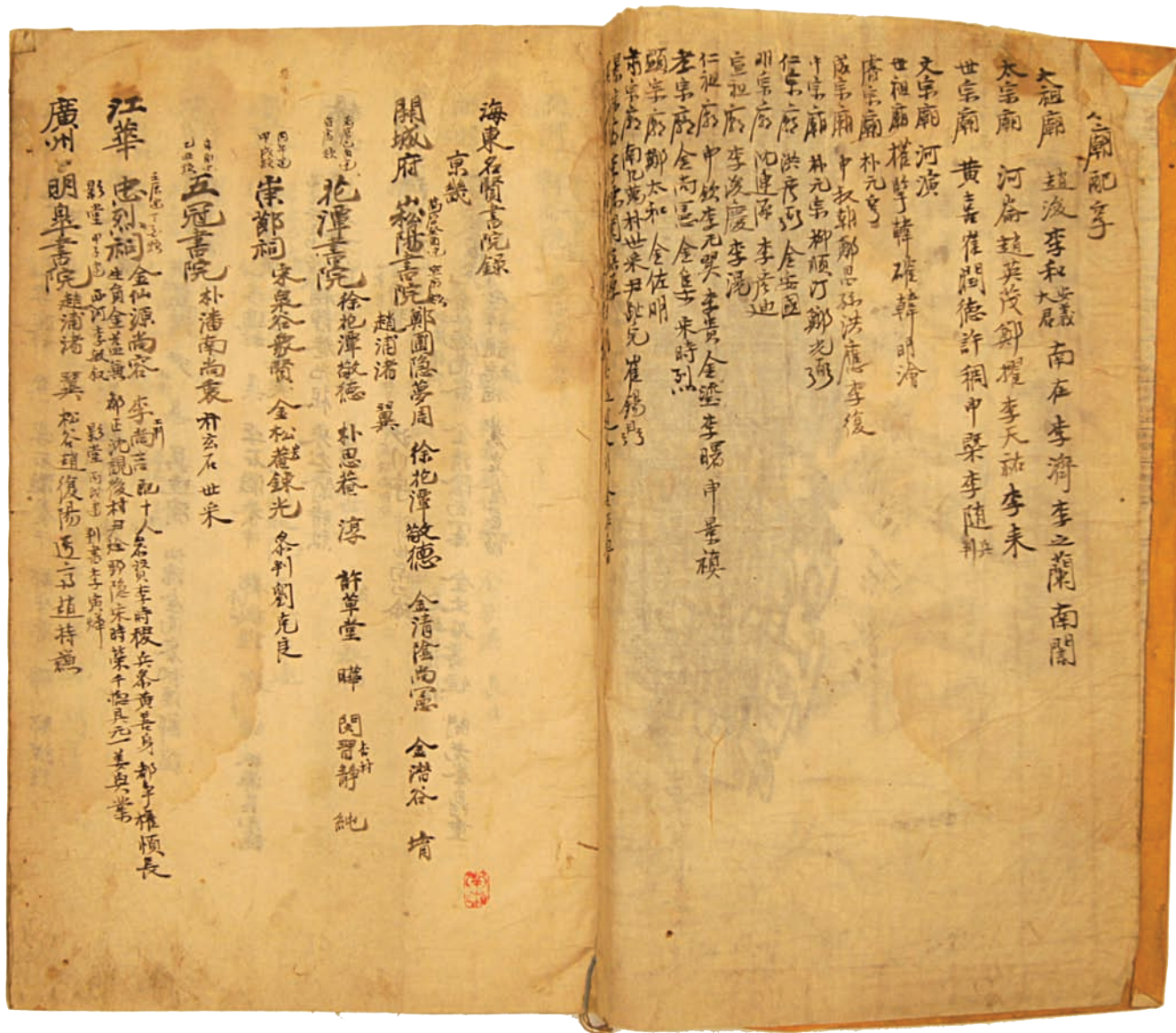
筆寫本 Manuscript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 30.3 × 19.5 cm

表紙名: 海東書院錄, 公私指南附下

卷末: 戊辰己巳年間萬東廟及各處書院并爲毀撤尙未復設



以過生論○採生打刺人及意盡殺人者凌遲其屍付死者宗而妻子及同居者
 雖不知情並沒二處置死若死者已約者傷者刺妻子及同居者三處而一
 舉若杜百不知者不坐是殺者賞銀二十兩○若因孝威區人致死杖百若官軍私
 傷人非因公務而威區平民致死同罪並徵埋差銀十兩若因奸盜威區人致死
 杖○謀殺人因而得財者因強盜不分首從皆斬○謀人於險以致陷溺死者傷者
 以問殺傷論○投三人及支解焚燒人者凌遲其屍付死者宗而妻子及同居者
 ○送魔符咒咀殺人之者以謀殺論死者依本殺法欲令人瘖者若於已行已殺上
 戒二等子孫唐工則不減○毒藥殺人者買而不用杖百洩三處情重者死○
 殺人者再擊口唾無以推問不為就服律出重罪有辜者法成死○令受急瘵
 人厚懲誘置兒童于山谷間割制肝腹手持因以滅跡者斬妻及三○殺人已犯
 各減刑殺罪二等○若犯人拒捕艾柄者杖殺之及囚逃捕者逐而殺之若
 因窘迫而自殺者論○賊人曰就拘捕而撞殺傷者減刑殺罪二等至死者杖百洩
 三○拒捕而傷人者初者不殺不殺者亦動不拒捕而殺者以問殺傷論若犯
 死而復殺者杖百○夜間拳打入人家者杖八十宗主登門殺死者論

公私指南○內外品級凡職帝先階次司次駝馬階高職卑者林
 正一品衙門宗親府而階卑職高者守行守守在司上
 大匡輔國宗顯祿儀經祿內嬪外府夫人旺地宗府夫人具月
 崇祿大夫興祿儀成祿內貞敬夫人宗郡夫人
 從一品衙門義禁府
 崇祿宗昭德儀光德內貴人
 崇政宗嘉德儀崇德內
 正二品衙門吏曹禮曹刑曹工曹漢城府
 正憲宗崇憲儀奉憲內淑儀東長嫔外貞夫人宗郡主嫡女子
 資憲承憲儀遠憲內
 從二品衙門開城府江華府
 嘉善宗中義儀資義
 嘉義宗明義儀順義
 正三品衙門弘文館成均館校書館承政院通禮院內醫院司諱院司諫院
 尚瑞院尚衣院尚書院宗簿寺軍器寺奉禮寺內監寺濟州監
 掌樂院禮賓寺司儀寺司贊寺

첫 페이지에는 종묘배향(宗廟配享)이 수록되어 있다. 태조부터 정조까지 각 왕묘 아래에 배향공신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이어서 해동명현서원록(海東名賢書院錄)이라 적고 각 지역의 서원 명단을 나열하였다.公私指南에는 조선시대 관아의 직제와 품계에 대해 정리하였다.

Lists of memorial halls for Confucianist services to honor distinguished scholars and statesmen



子部



고금역대법첩	72
과화존신	74
관성제군성적도지전집	76
근사록	78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보살만행수능엄경	80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보살만행수능엄경	84
대청동치육년세차정묘시헌서	86
병학지남	88
불설무량수불경	90
삼감행실도	92
어제경세편	94
오륜행실도	96
오륜행실도	98
오륜행실도	100
이륜행실도	102
태상감응편도설	104
태상감응편도설	106
해동성적지	108

고금역대법첩

古今歷代法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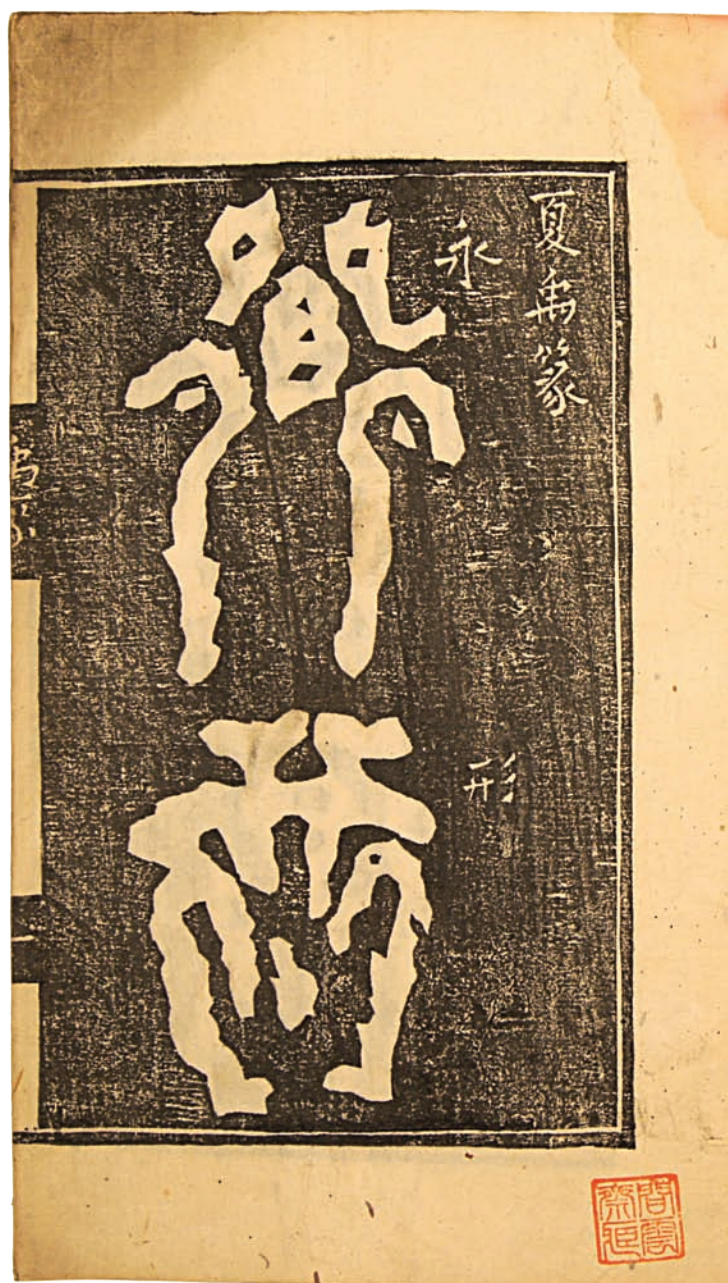
Kogŭm yŏktae pŏpch'ŏ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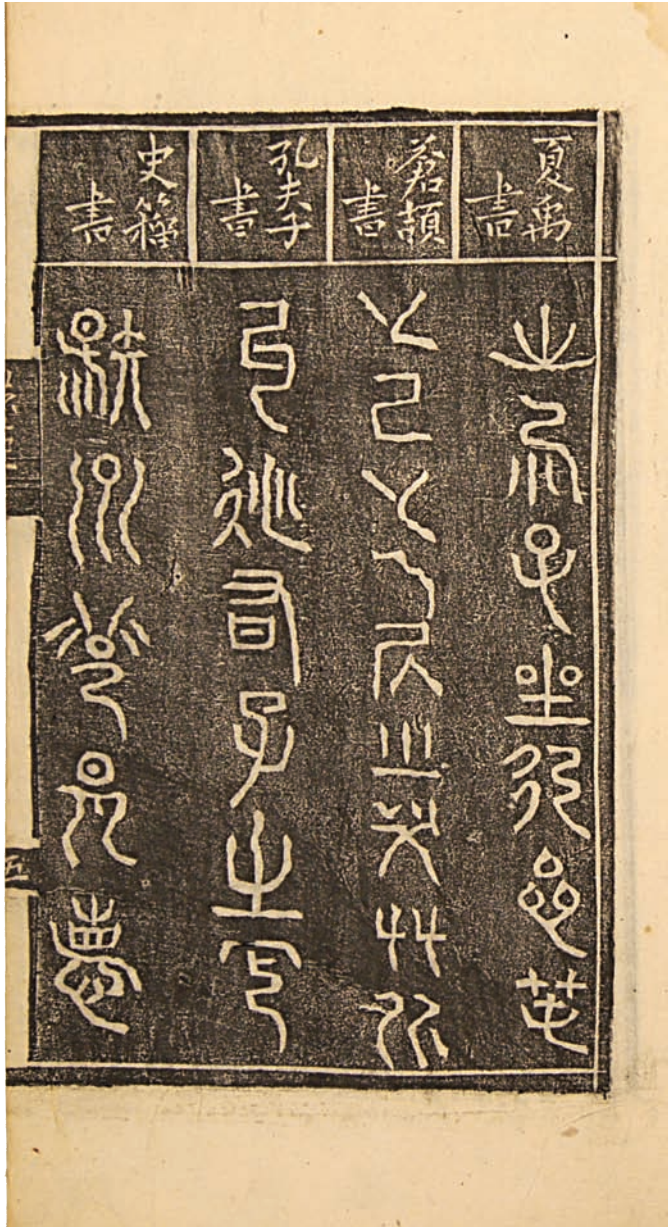
朴文會(朝鮮) 編

木板本(陰刻) Woodblock Print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哲宗 10(1859) 序
1冊; 36.0 x 23.2 cm

印文: 閒雲齋藏





중국과 한국의 역대 서예가들의 필적을 모아 엮은 법첩이다. 중국은 하우(夏禹)의 전(篆), 한수정후(漢壽亭侯)를 비롯하여 미만중(米萬鍾)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국왕으로 조선 태조(太祖)부터 경종(景宗)까지, 명필(名筆)로는 최치원(崔致遠), 이제현(李齊賢)부터 이광사(李匡師)까지의 글씨가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 자필로 파필법(把筆法), 사법(寫法), 건묵법(乾墨法), 착력법(着力法), 추진법(推展法), 굴곡법(屈曲法) 등 필법(筆法)을 부록하였다.

A copybook printed from the works of masters of calligraphy

과화존신

過化存神

Gwahwa jonsin

高宗(朝鮮) 命編

木板本 Woodblock Print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光緒 6(1880)

1冊: 四周單邊 半郭 17.3 x 11.0 cm, 有界, 10行21字,
上內向2葉花紋魚尾; 19.9 x 12.5 cm

關聖帝君寶誥, 관성대군보고

統天隆運肇極敦倫主上殿下 命印真經敷化八域

刊記: 光緒六年(1880)庚辰季春刊印

印文: 開雲齋藏



고보군테성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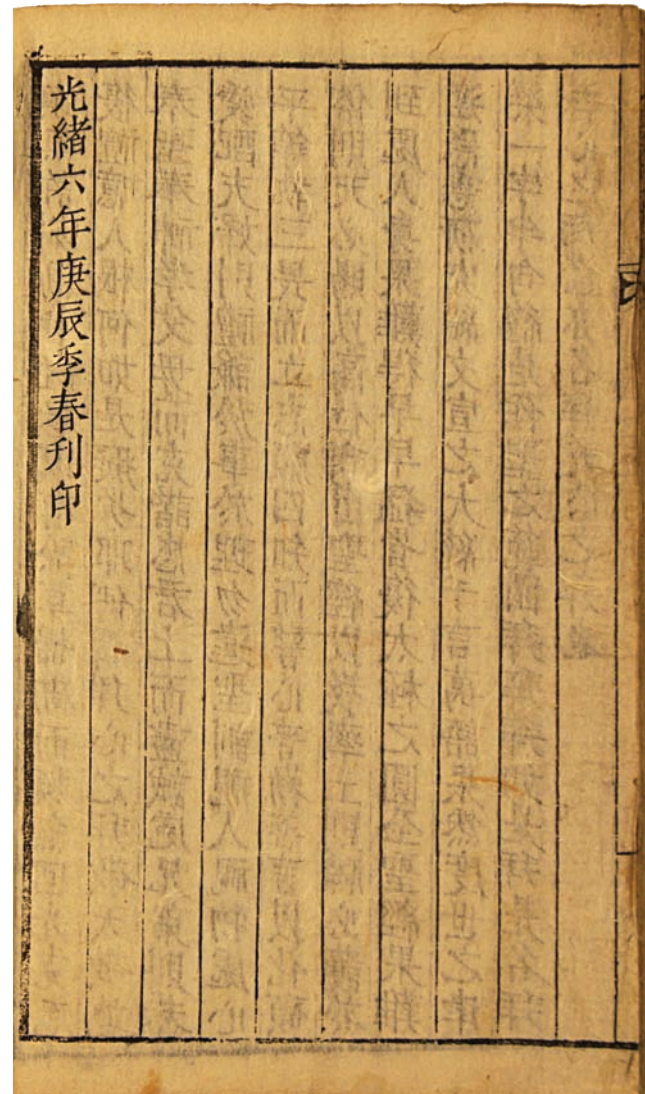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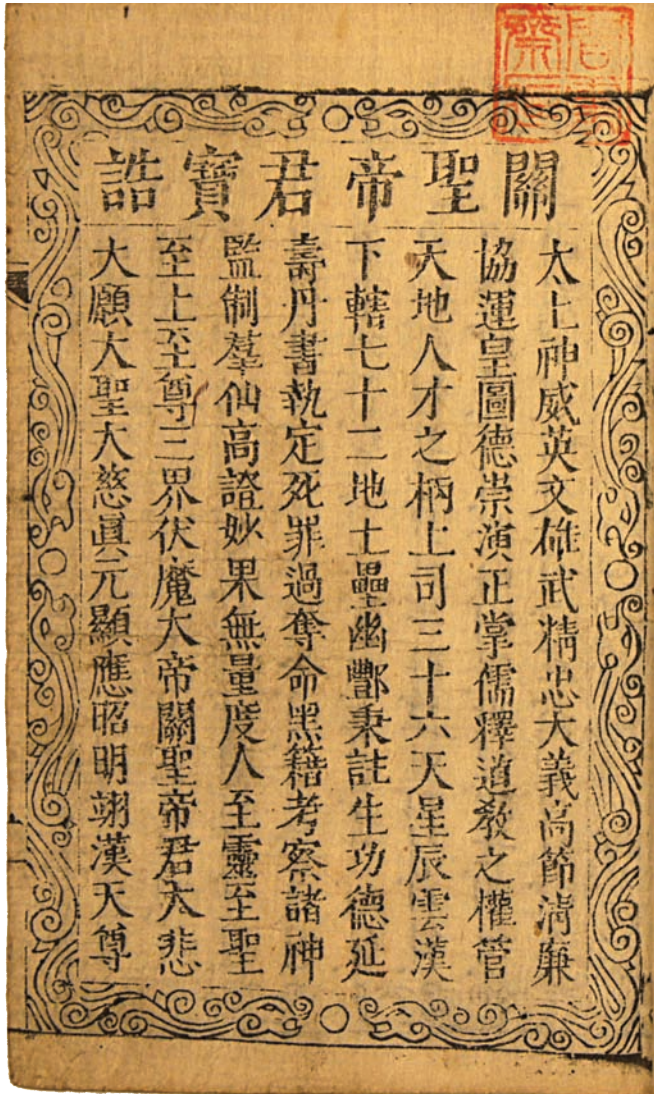
태상신의영문은우부청츄대의고절청렴
 협은황도달승연경장유석도교지천관
 려디인지지병상스삼십육년성신을한
 하할찰십이다도루유풍병츄성풍덕연
 슈단처집정스죄파달명혹적고찰제신
 감제군원고증묘마무량도인지령지성
 지상지존삼계복막대테판성테군대비
 대원대성대자진원현응쇼명익한던존

統天隆運肇極敦倫主上殿下

命印真經敷化八域

覺世眞經

帝君曰人生在世貴盡忠孝節義等事方於人道無愧
 可立於天地之間若不盡忠孝節義等事身雖在世其
 心既死可謂偷生凡人心卽神神卽心無愧心無愧神
 若是欺心便是欺神故君子三畏四知以慎其獨勿謂
 閭室可欺屋漏可愧一動一靜神明鑑察十目十手理
 所必至况報應昭昭不爽毫髮淫爲諸惡首孝爲百行
 原但有逆理於心有愧者勿謂有利而行之凡有合理
 於心無愧者勿謂無利而不行若負吾教請試吾刀敬



고종(高宗)의 명령으로 관제신앙(關帝信仰)의 경전들을 모아 한글로 옮겨 고종 17년(1880)에 간행한 책이다. 관제는 관왕(關王) 또는 관성제군(關聖帝君)이라고도 한다. 책의 맨 앞에 관성제군보고(關聖帝君寶誥)의 한문과 그 음역(音譯)이 있다. 모두 관성교를 신봉하는 의의와 신봉권장의 내용이 실려 있다. 이와 같이 관성교를 권장한 것은 오랫동안 민간신앙으로 전래되던 관성교의 충(忠)을 본받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한문 원문의 경전을 싣고 그 뒤에 언해를 붙이는 방식으로 「각세진경(覺世眞經)」, 「구겁문(救劫文)」, 「부대련구(附對聯句)」, 「영험기(靈驗記)」, 「교유문(教諭文)」, 「배심성훈(拜心聖訓)」이 수록되어 있다. 한문과 국문이 동시에 수록되어 있어 조선후기 국어사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The Korean scripture of a religion for Guan Yu

관성제군성적도지전집

關聖帝君聖蹟圖誌全集, 卷1-5

Gwansöngjegun söngjökdoji jönchip

盧湛(清) 彙輯

木板本 Woodblock Print

[發行地不明]: 檀國顯聖殿, 高宗 13(1876)

5卷5冊: 挿圖, 四周雙邊 半郭 23.0 × 15.0 cm, 有界,

10行21字, 上下向黑魚尾; 32.5 × 20.5 cm



檀國顯聖殿藏板

裏題: 關帝聖蹟圖誌全集

刊記: 光緒丙子(1876)重鐫

序: 丙子(1876)暮秋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原任奎章閣提學 朴珪壽 (1807-1876)謹序

原序: 康熙三十二年歲次癸酉(1693)…甲氏于成龍拜撰

後序: 康熙三十一年歲在壬申(1692)…谷氏王維珍敬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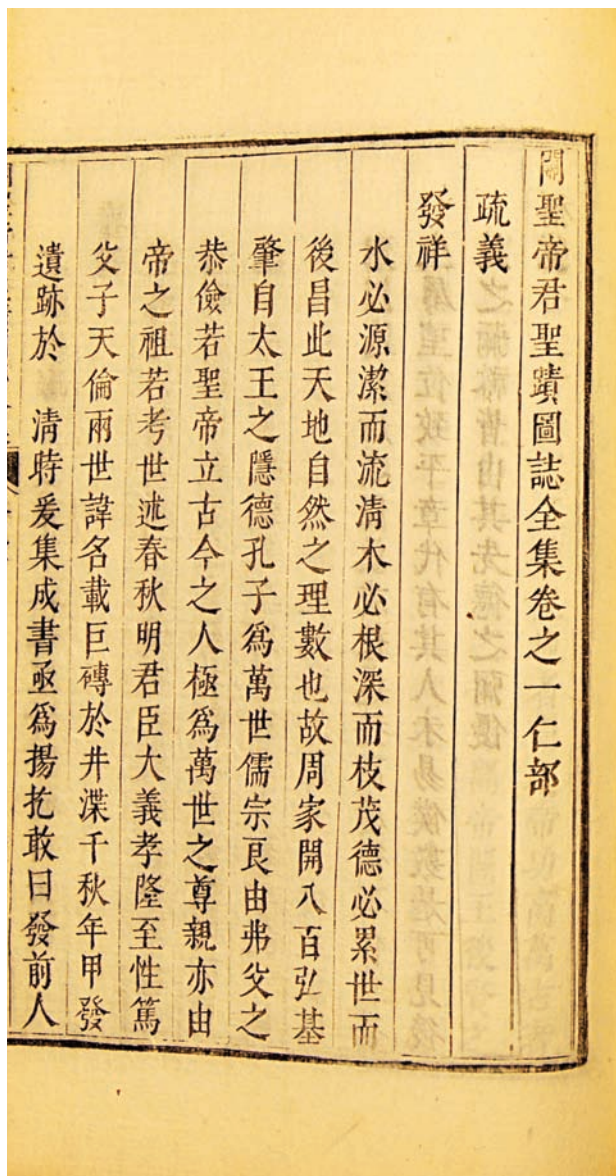
後序: 嘉慶二年歲次丁巳(1797)六月上浣之告誥授資政大夫兵部侍郎總督江南

等處河道提督軍務兼都察院右副都御史加十級 紀錄二十五次 吉州蘭第錫謹序

跋: 光緒丙子(1876)歲仲秋上澣通政大夫前行成均館大司成慶州后人金昌熙

(1844-1890)敬書





청나라 노담(盧湛)이 편집한 관성제군(關聖帝君)의 사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해설한 책을 우리나라에서 중간한 도교신앙서이다. 관성제군은 관우(關羽)를 신격화한 도교의 신장이다. 이 책에서는 관성제군의 모습과 거동이 그림과 글을 통해 잘 표현되어있다. 권1에서 5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5부로 구성되어 있다. 권1은 강희(康熙) 무오(戊午)에 왕주단(王朱坦)이 쓴 관성제군의 묘비기(墓碑記)인 『발상고(發祥考)』와 관성제군에 관한 고사를 그림으로 그리고 해설한 『전도고(全圖考)』가 실려있다. 권2는 관성제군의 본전(本傳)과 열전(列傳), 관성제군이 쓴 시문과 성경(聖經) 및 유적(遺跡)과 고사(故事)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3은 분묘(墳廟)와 봉작(封爵), 제문(祭文), 영감(靈感), 성첩(聖籤)이고 권4와 권5는 서(序), 론(論), 시(詩), 부(賦) 등의 예문(藝文)으로 되어있다.

Drawing and explanation of historical fact for Guan Yu

근사록

近思錄 卷1-14

Geunsarok

朱熹(宋); 呂祖謙(宋) [共撰]

木板本(戊申字覆刻本) Woodblock Print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肅宗 13(1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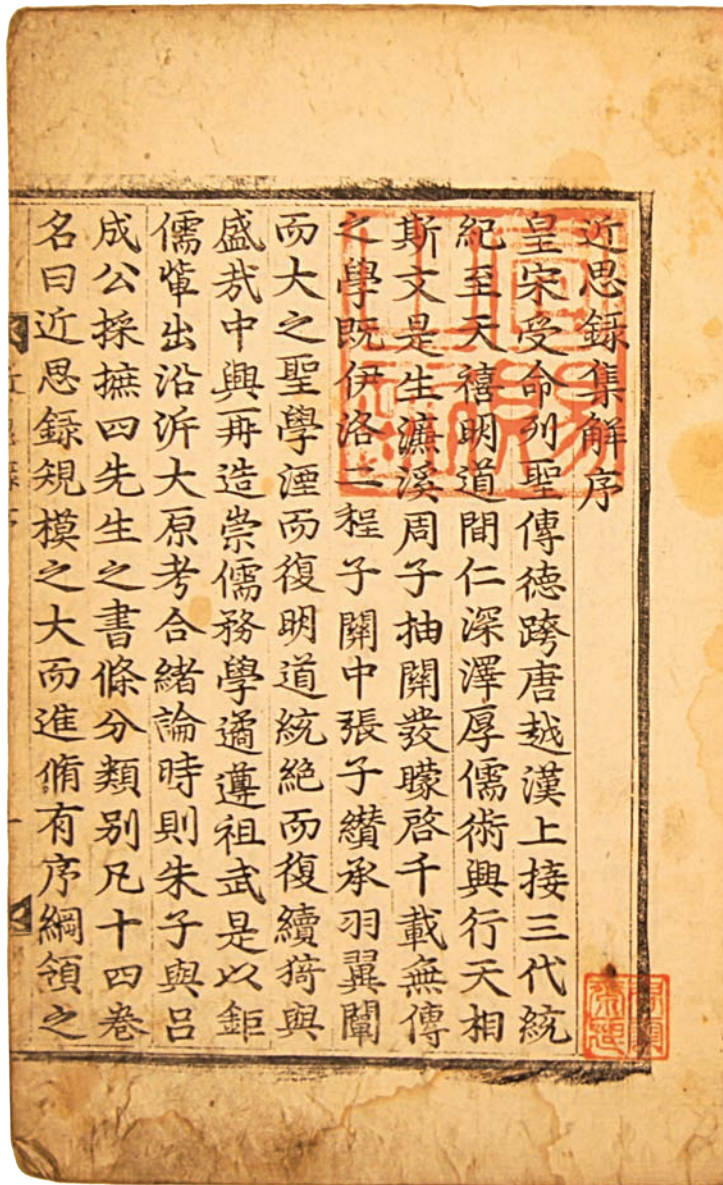
14卷4冊: 四周雙邊 半郭 23.6 x 17.0 cm, 10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3.2 x 22.2 cm

序: 淳祐戊申(1248)...葉采 謹序淳熙三年(1176)...呂祖謙 謹書

進近思錄表: 淳祐十二年(1243)...葉采 上表

朱熹 謹識

印文: 宣賜之印, 開雲齋藏





『근사록(近思錄)』은 송나라의 대표적 유학자인 주희(朱熹)와 여조겸(呂祖謙)이 주돈이(周敦頤)·정호(程顥)·정이(程頤)·장재(張載) 등 네 학자의 글에서 유학의 중심 문제들과 일상생활에 요긴한 부분들을 뽑아 편집한 책이다. ‘근사(近思)’는 ‘논어(論語)’에 “널리 배우고 뜻을 돈독히 하며, 절실하게 묻고 가까이 생각하면 인(仁)은 그 가운데 있다”는 구절에서 유래된 것이다. 신덕수(愼德秀)의 『심경(心經)』과 함께 신유학의 필수문헌으로 중시되었고, 채모(蔡模)의 『근사록집주(近思錄集註)』 등 많은 해설서가 나왔다. 조선후기에는 학자의 필수문헌으로 인식되어 수많은 판본이 간행되었다. 강희(康熙) 36년(1687) 내사기(內賜記)가 있는 무신자복각본(戊申字覆刻本)과 동일본이다.

Selective paragraph of Confucianism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보살만행수능엄경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菩薩萬行首楞嚴經. 卷1-10

Shurangama Sutra

戒環(宋) 解

木板本 Woodblock Print

黃海道：石頭寺，明宗 2(1547)

4冊：變相圖，四周單邊 半郭 21.1 ×14.5 cm, 無界, 11行22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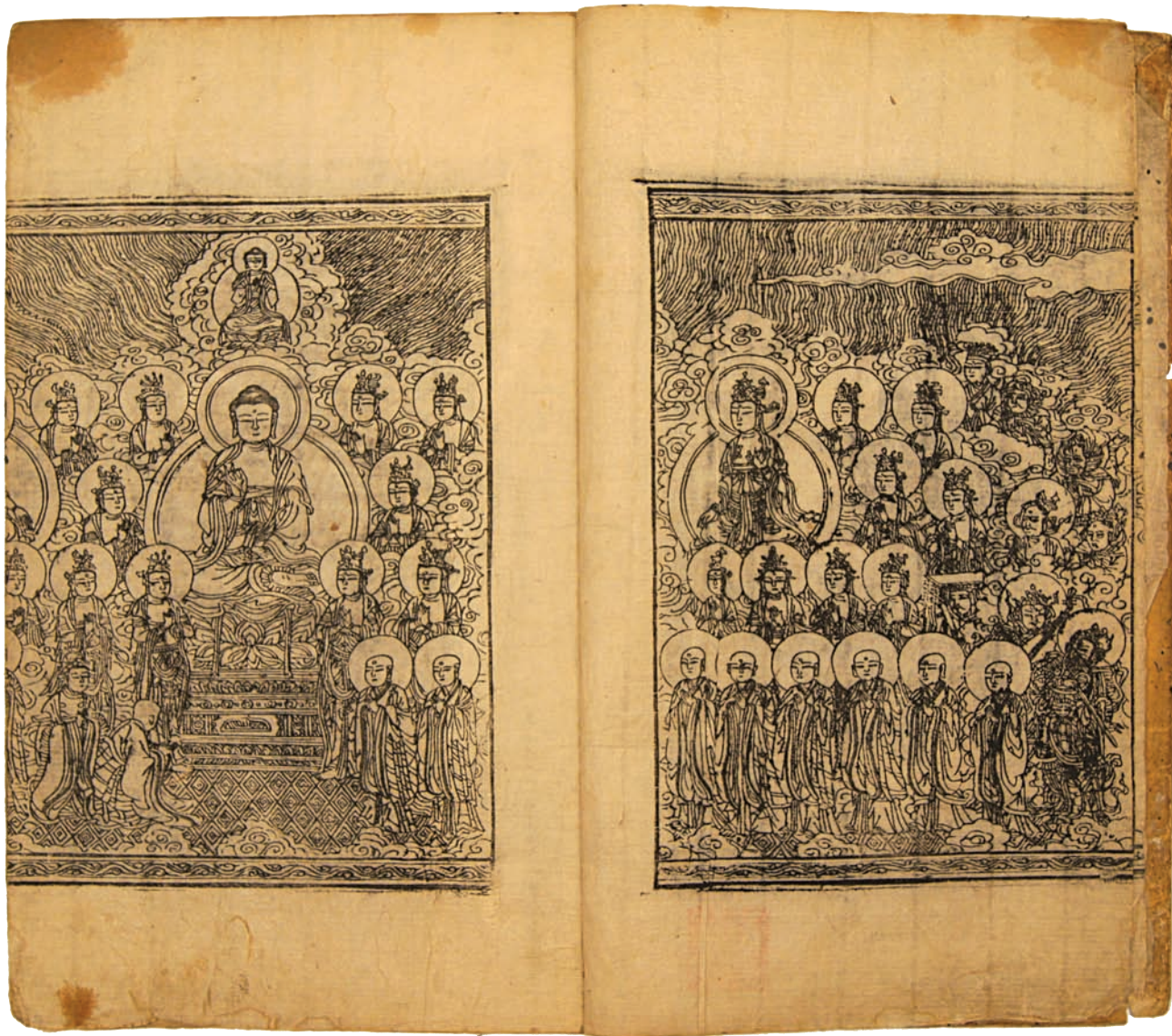
無魚尾；31.0 ×19.0 cm

序：建炎改元(1127)…善集堂

刊記：嘉靖二十六年(1547)八月黃海道兔山土鶴鳳山石顯寺留板

印文：閒雲齋藏





한국불교 근본경전 중의 하나로, 『금강경』, 『원각경』,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함께 불교 전문 강원의 사교과(四教科) 과목으로 채택되어 학습되었다.

인도의 나란타사에서 비장(秘藏)하여 인도 이외의 나라에는 전하지 말라는 왕명에 의해 당나라 이전에는 중국 및 우리나라에 전래되지 않았다고도 하며, 중국에서 후대에 찬술한 위경(僞經)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명종 2년(1547) 석두사 간행본은 현재 고려대, 불갑사, 용화사 등에 소장되어 있으나 완질본은 없는 희귀본이다.

Buddhist scriptures



五區像念三十年未區一區
像何三二七外山早四月九日
如燈明正此世無喜慶

王法皇帝其年存修世法其行太子保年念其

神聖已誠此門名也其年存修世法其行太子保年念其

首楞嚴經要解序

前往福州上生禪院嗣祖沙門 及南撰

像季已還道術既裂明心之士妄認緣塵為物所轉義
學之徒虛驕多聞不全道力奇才茂器皆流為燕砂迷
客說食飢夫首楞嚴王懸知其然詭數秘典力救倒妄
洵然答迪諄諄之慈靡所不至而末世初機罕能究盡
溫陵環師一生掩關與世異好獨陪黃卷聖賢冥搜博
訪藉其荃莪以探如來藏術徧知海而造乎一切畢竟
之地思與同志共因為是解昔月蓋此丘嘗問藥王如
來法供養義藥王告言諸佛所說難信深經清淨無條
能令衆生成最正覺離衆魔事若於是經方便解說依



福州上生禪院
王法皇帝其年存修世法其行太子保年念其

伏八
王法皇帝其年存修世法其行太子保年念其

虛魚約切 糝文又切 攬覽切 縮烏拔切 緝七入切 績則力切 劓昌列切 棘凡刀切 鵠紅淡切 榮於榮切
 激音擊 隘烏介切 填音音切 關音音切 運音音切 關音音切 推他回切 液余石切 窺去規切 稚直利切 捷音音切

大施主 每邑介
 大施主 獲尤龍
 大施主 趙加波里兩主
 大施主 朴勿全兩主
 大施主 鄭玄孫兩主
 大施主 河全伊同
 大施主 韓石介
 大施主 黃於那
 惠聰 王熙 道禪 靈指 性照
 思遠 戒雲 戒默 戒四 戒牛 戒心
 道和 信熙 道行 道宗 道俊 道惠
 正覺 正禪 正觀 正法 正觀 正學
 正眼 正眼 正眼 正眼 正眼 正眼
 嘉靖二十六年八月日黃海道免坐鶴鳳山石頭寺留板化士 正眼

五名者

第一解心法眼大佛頂
 悉但多般恒忍無上
 空于十方如來清淨
 海眼 第二簡度妙
 力救護親固度脫
 阿難及此會中性正
 尼得菩提心遍入智海
 第三界八同修如來密
 因修護要義 第四眾
 傳大空備舍廣效
 蓮花于十方母安住
 界尼呢 第五因入

大佛頂如來密因修證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第一

開釋科三 初通釋經題
 如來果體其體本然何假密因菩薩道用其用無作孰
 為萬行無因無行無修無證無了不了大小名相一切
 不立此真首楞嚴畢竟堅固者也特以眾生如來隱於
 藏心非密因不顯眾生菩薩論於七趣非萬行不修覺
 皇於是示之以大法使不迷於小道而默得乎無外之
 體喻之以佛頂使不滯於相見而妙極乎無上之致指
 如來密因使明本妙心知三世諸佛皆依此為初因明
 修證了義使悟究竟法知一切聖人皆依此而證果乃

大佛頂如來密因修證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第一
 溫陵開元蓮寺比丘 戒琛 解

大佛頂如來密因修證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第一
 溫陵開元蓮寺比丘 戒琛 解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보살만행수능엄경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5-6, 9-10

Shurangama Sutra

戒環(宋) 解

木板本 Woodblock Print

泰仁：龍藏寺，仁祖 13(1635)

4卷2册(全10卷5册)：四周單邊 半郭 25.2 x 17.0 cm, 無界,
8行20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35.2 x 21.0 cm

刊記：崇禎八年乙亥(1635)四月日 全羅道泰仁地雲住山龍藏寺開刊

校正常規

印文：閒雲齋藏



92

禪嚴經終

主上三殿下壽萬歲

亨校拿子大施主郭必世
校正尚規

諸經供養大施主崔繼長兩主	大施一宋神兩一	玄主
請經布施大施主申福兩主	大施一趙希連兩一	者介
引勸兼大施一大小比丘	大施一金大吉兩一	汗代
住持兼大施一敏雄比丘	大施一金延壽兩一	引勸秩
引勸兼大施一金水平兩	大施一崔宅心一	勝一松烟大施
宋贊大施一玉林比丘	大施一申軒比丘	文浩
板子大施一金應招兩	大施一慧淨比丘	弘珠
板子大施一法浩比丘	大施一巧黃兩一	林仁水
布茹大施一裴彦兩一	大施一文宅兩一	崔報
		文守元
		金善文李應每

崇禎年乙亥四月日全眾道泰仁縣地雲住龍藏寺開刊

大禪師大能	施主李神	宋四平	尹得	社信	緣化秋
大禪師戒熏	崔朴立	宋德訓	尹承男	必令	慰恬
大禪師太浩	李永同	崔得男	劉介金	正花	會信
大禪師海眼	李春方	崔恒男	李遵	目連	惠雨
大禪師覺性	李春男	崔永生	朴春鶴	上禮	法連
禪師法雲靈駕	李春上	高成男	朴春鶴	末非	法行
施主尚規	金世還	朴南山	陸明云	介信	法信
戒行	金世	朴甘上	黃石金	介信	朴漢孫
尚岩	金春生	利希赤	善高金	會代	生伊
双印	金世	申春生	鄭得老	春伊	持殿慧淨
如熙	金德立	申莫金	李白陽	業恒	別座勝梅
性玄	金全堂	申德連	洞春	三介	板化主性宗
		尹色石	王知	莫介	
			白知	恩介	
			恩介		

大化生戒學

인조 13년(1635) 태인 용장사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태종 1년(1401)에 간행한 8행20자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한 것이다. 1635년에 용장사에서는 상당히 많은 불서를 간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이다.

Buddhist scriptures

대청동치육년세차정묘시헌서

大清同治六年歲次丁卯時憲書

Tae Ch'ong dongchi yuknyŏn sech'a ch'ongmyo sihŏnsŏ

觀象監(朝鮮) 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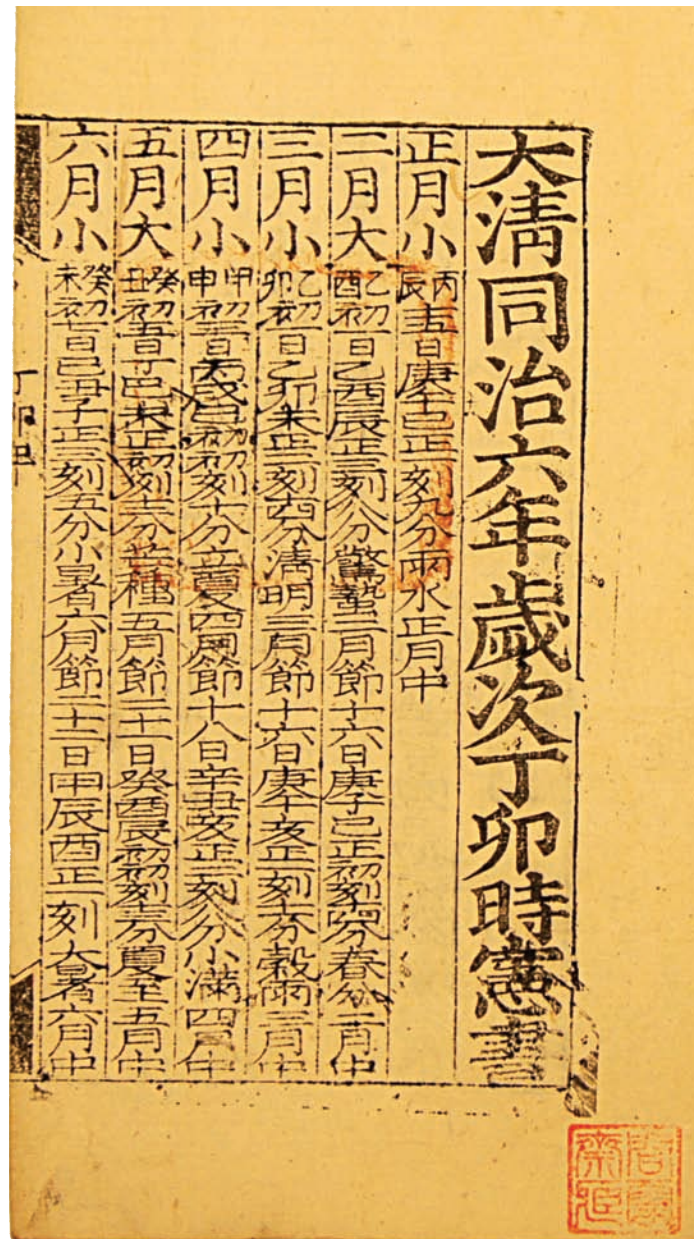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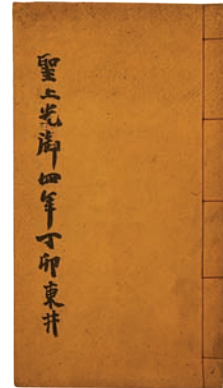
木板本 Woodblock 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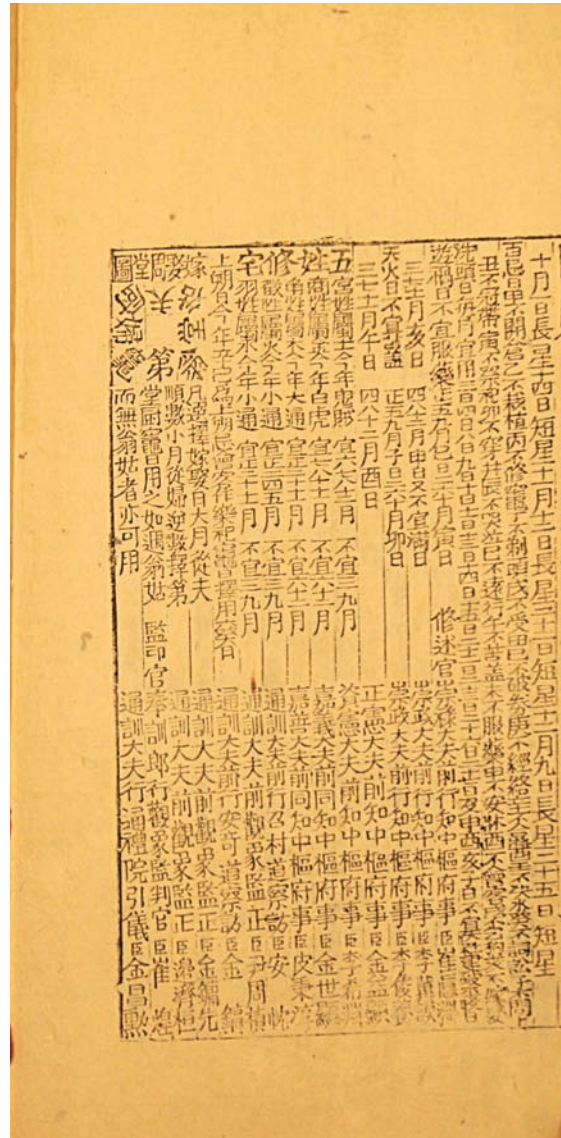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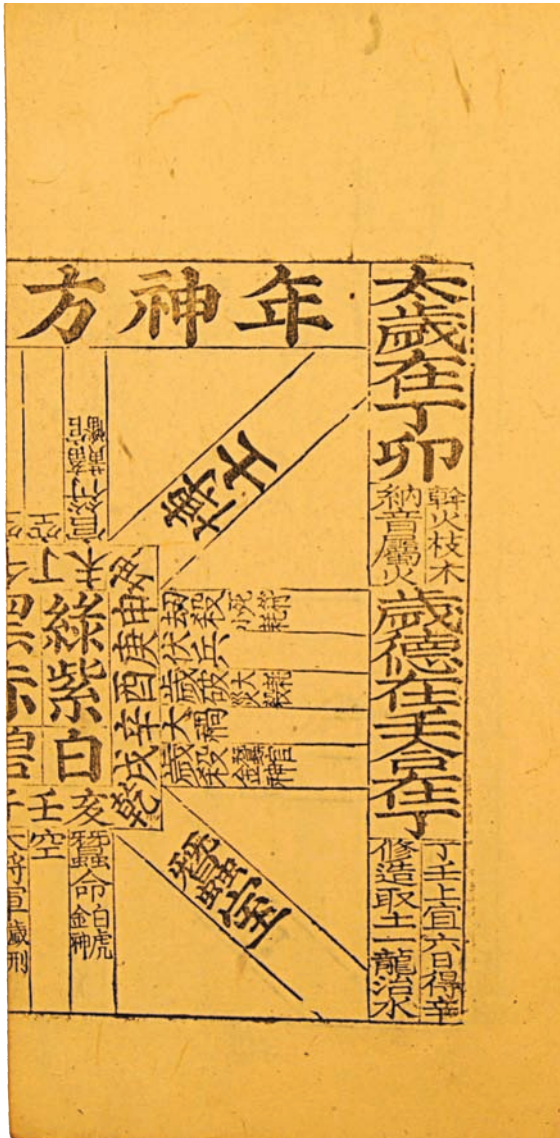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高宗 4(1867)

1冊: 四周單邊 半郭 20.0 x 11.2 cm, 有界, 行字數不定 註雙行, 頭註, 上下內向黑魚尾; 31.5 x 16.8 cm

表紙名: 聖上光御四年丁卯東井

印文: 開雲齋藏





조선은 천문기관을 두고 역서(曆書)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반포하였다. 이 책은 고종 4년(1867)에 관상감에서 간행한 시헌서이다. 한장에 한달씩 기재하였으며 24절기, 연신방위지도(年神方位之圖),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력(月曆), 부록(附錄)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권말에는 수술관(修述官) 최덕연(崔惠淵), 감인관(監印官) 최황(崔煌) 등 간행에 참여한 관리 14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Almanac of 1867

병학지남

兵學指南. 卷1-5

Pyŏnghak chinam

正祖(朝鮮) 命編

木板本 Woodblock Print

華城：壯勇營, 正祖 11(1787)

5卷1冊：挿圖, 四周雙邊 半郭 22.2 x 17.8 cm, 11行24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34.2 x 23.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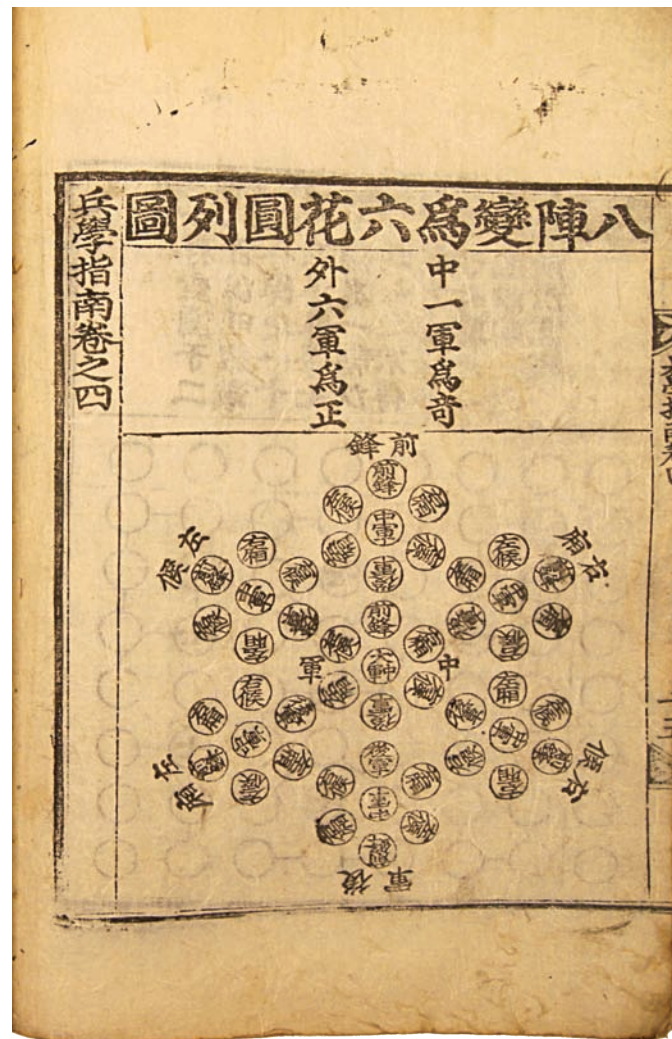
한글對譯本

刊記: 丁未(1787)新刊壯營藏板
序: 時予即昨十一年(1787)仲冬
奎章之寶

卷末墨書: 執事廳 己巳六月日



御製
 兵學指南序
 於傳有之兵有形有神何
 謂形金革旂旛鼓鐸獨鏡
 之物也何謂神經緯奇正
 虛實變化之用也夫神能盡
 形不能盡其神故其書同



『병학지남(兵學指南)』은 16세기 중기의 명나라 장수 척계광(戚繼光)이 지은 『기효신서(紀效新書)』에서 군대의 조련방법에 관한 부분을 요약하여 만든 우리나라의 병서이다. 이 책은 군대의 조련, 진을 치는 법, 행군, 호령 등에 대한 규정과 설명이 그림과 함께 되어 있어서 17세기 이후로 우리나라 연병의 기본지침서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각 병영에서 간행된 많은 이본이 전한다. 권1의 『기고정법(旗鼓定法)』과 『기고총결(旗鼓總訣)』, 권2의 『영진정구(營陣正覈)』만 전해되어 있다.

Training book for soldiers

불설무량수불경

佛說觀無量壽佛經

Pulsöl muyangsupulgyöng

晁良耶舍(宋) 譯

木板本 Woodblock Print

[三角山]: [內院庵], [哲宗 4(1853)]

1冊: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0.5 x 14.7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1.2 x 19.8 cm

表題: 十六觀經, 華陽寺

御製序: 洪熙元年(1425)正月初一日

墨書: 上院寺

後序: 釋道孚 序

印文: 閒雲齋藏



佛說觀無量壽佛經 李桂湖納釋文寺
 宋元嘉中晁良耶舍譯

如是我聞一時佛在王舍城耆闍崛山中與大比丘
 衆千二百五十人俱菩薩三萬二千文殊師利法王
 子而爲上首爾時王舍大城有一太子名阿闍世隨
 順調達惡友之教叔執父王頻婆娑羅幽閉置於七
 重室內制諸羣臣一不得往國太夫人名韋提希恭
 敬大王澡浴清淨以酥蜜和麩用塗其身諸瓔珞中
 盛蒲桃漿蜜以上王爾時大王貪麩飲醬求水漱口
 已畢合掌恭敬向耆闍崛山遙禮世尊而作是言大

比丘尼忠輝伏爲父母

下品下生
 十惡五逆 教稱十念
 臨終苦逼 蓮華金色



일반적으로 『아미타경』, 『무량수경』과 함께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의 하나로 우리나라 정토신앙의 근본 경전이다. ‘관무량수불경(觀無量壽佛經)’, ‘십육관경(十六觀經)’, ‘관경’이라고도 한다. 남조 송나라 원가(元嘉)연간 424년에 역경승 강량야사(薑良耶舍)가 한역하였다. 이 책은 간기면이 떨어져나갔으나, 비교 결과 철종 4년(1853)에 내원암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Buddhist scriptures about the Buddhist Elysium

삼강행실도

三綱行實圖

Samgang haengsilto

楔循(朝鮮) 等奉教編

木板本 Woodblock Print

[平壤]:箕營, 英祖 2(1726)

2册: 挿圖, 四周雙邊 半郭 24.8 x 18.0 cm, 有界, 11行20字 頭註, 內向2葉花紋魚尾; 38.3 x 23.5 cm

국한문혼용

序: 宣德七年(1432)六月日奉列大夫集賢殿應教……臣 權採(1399-1438) 奉教序
跋: 歲丙午(1726)春行平安道觀察使兼都巡察使 尹憲柱(1661-1729) 謹跋



아비그말을어릴이
터겨아니배치니게
의도로허쉬우치어
엇비비기더라

조로의형은들이오
일흔은쉬니공조테
지마집이만단하야
스름노죽부어덕스
며이비이로위하야
백나밧키가발흔뒤
오터니어배이죽은
추의남으로초파희
늘시곳촌술의일백
이머만중유적을배
흐머가리들얼이집
슬행야안즈며초출
버러먹을시한숨기
여닐오키비독누를
죽먹으며머비이위
하야발은지리하야
도가히엇지못하리
로다공권들으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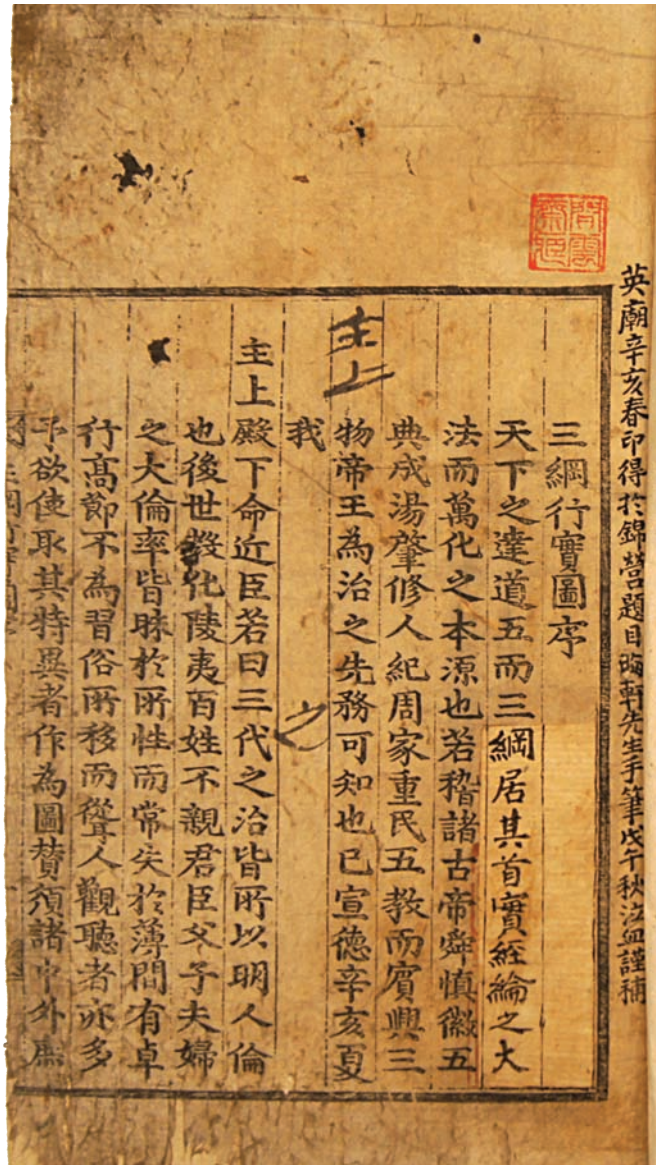
閔損孔子弟子早喪母父娶後妻生二子母嫉損所生子
衣綿絮衣損以蘆花絮父冬月令損御車體寒失鞠父察
知之欲遣後妻損啓父曰母在一子寒母去三子單父善
其言而止母亦感悔遂成慈母

身衣蘆花不禦寒隆冬寧使一身單因將好語回嚴
父子得團團母得安 孝哉閔損世稱賢德行由來萬
古傳繼母一朝能感悟從茲慈愛意無偏

後母不慈獨厚已兒弟溫兄凍蘆絮非綿父將逐母
跪白于前母今在此一子獨寒若令母去三子俱單父
感而止孝乎閔子

子路負米嘗





조선시대 유가의 윤리덕목인 삼강(三綱), 즉 충(忠)·효(孝)·열(烈)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편찬된 윤리교화서이다. 세종 10년(1428)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백성들의 도덕적 교화를 목적으로 간행되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적에서 군신(君臣), 부자(父子), 부부(夫婦) 등 삼강의 윤상(倫常)에 모범이 되는 인물을 뽑아서 모든 사람이 알기 쉽도록 매편마다 그림을 넣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고, 본문 끝에 원문을 시구(詩句)로 요약·정리하였으며, 그 가운데 몇 편에는 시구에 이어 찬(讚)을 달아놓기도 하였다. 세종 16년(1434)에 처음 간행된 이후, 수차례 중간(重刊)본과 언해(諺解)본을 출간하였다. 그 가운데 이 책은 한문 본문을 직역(直譯)하여 평안도감영에서 영조 2년(1726) 간행한 판본이다.

Picture book for three basic virtues in Confucianism : loyal subject, filial sons, virtuous wives

어제경세편

御製警世編

Öje kyongse p'yön

英祖(朝鮮) 御製; 具允明(朝鮮)...等奉教編次; 尹勉憲(朝鮮) 奉教謹書

木板本 Woodblock Print

[發行地不明]: [芸閣], 英祖 40(1764)識

1冊(21張): 四周雙邊 半郭 24.4 x 15.6 cm, 有界, 6行14字,

上下向白魚尾; 32.5 x 20.2 cm

標題紙: 芸閣藏版, 許令廣印

識: 予歲甲申(1764)季春識

印文: 閒雲齋藏





이 책은 영조 즉위 40년을 즈음하여 지은 것으로 영조 자신이 군사(君師)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욕망·사치·나태에 관해 논술하여 세상 사람을 깨우치는 내용이다. 앞에는 어필의 책명과 간단한 부기(附記)가 있고, 끝에는 봉교편차(奉敎編次)한 홍봉한(洪鳳漢) 등과 봉교서(奉敎書)한 윤면헌(尹勉憲) 등의 명단이 부기되어 있다. 영조 40년(1764)에 교서관(校書館)에서 간행하였다.

Publication by order of the King to improve public's greed, extravagance, laziness

오륜행실도

五倫行實圖, 卷1-5

Oryun haengsilto

李秉模(朝鮮) 等奉教閱

木板本 Woodblock Print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哲宗 10(1859)

5卷5冊: 挿圖, 四周雙邊 半郭 21.2 x 14.0 cm, 10行20字,
上下向黑魚尾; 30.6 x 18.2 cm



한글對譯

重刊序: ...金炳學 奉教謹書

繪音: 上之二十一年(1797)正月初一日

三綱行實圖原序: 宣德七年(1432)...權採 奉教書

三綱行實圖原跋: 歲丙午(1726)...尹憲柱 謹跋

二倫行實圖原序: ...李晚秀 謹序



奉
 教校閱
 大匡輔國崇祿大夫判中樞府事原任 奎章閣
 直提學_臣 李秉模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 經筵
 事監春秋館事原任 奎章閣提學_臣 尹蓍東
 奉
 教監印
 嘉善大夫行承政院左承旨兼 經筵參贊官春
 秋館修撰官成均館大司成 奎章閣直提學知



『오륜행실도』는 정조 21년(1797)에 왕명에 의하여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와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를 합치고 언해한 책이다. 규장각 직제학 이병모(李秉模)와 제학 윤시동(尹蓍東) 등이 교열(校閱) 편찬(編纂)하였다. 초간본은 정리자(整理字)로 간행되었고, 이후 철종 10년(1859)에 목판본으로 중간(重刊)하였다.

수록한 인물마다 행실을 기리는 그림을 앞세우고, 찬(贊)과 시(詩)를 적은 다음 언해문을 실었다. 삽화는 모두 150점인데, 내용과 기법에 있어서 인물·풍속·산수·건물 등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Picture book for five basic virtues in Confucianism : father and son, lord and vassal, husband and wife, old and young, companionate friends

오륜행실도

五倫行實圖, 卷1-4

Oryun haengsilto

李秉模(朝鮮) 等奉教閱

木板本(整理字覆刻本) Woodblock Print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哲宗 10(1859)

4卷4册(全5卷5册): 挿圖, 四周雙邊 半郭 21.2 x 13.8 cm,

10行20字, 上下向黑魚尾; 30.0 x 19.7 cm

한글對譯

重刊序: ...金炳學 奉教謹書

繪音: 上之二十一年(1797)正月初一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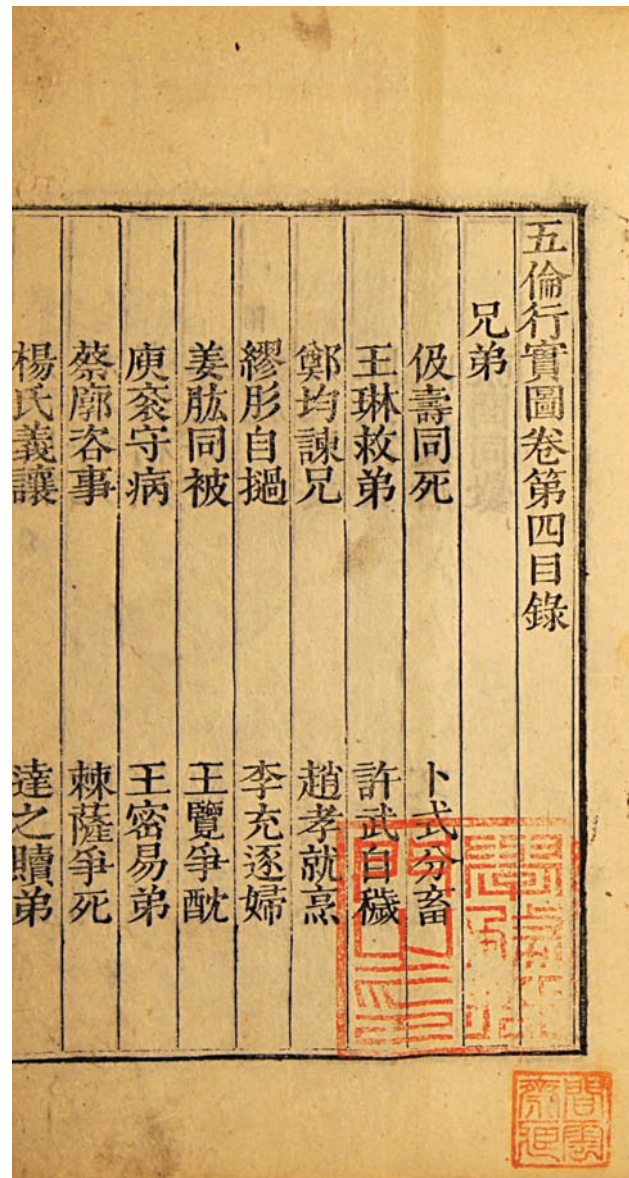
五倫行實圖序: ...李晚秀 奉教謹序

三綱行實圖原序: 宣德七年(1432)...權探 奉教書

三綱行實圖原跋: 歲丙午(1726)...尹憲柱 謹跋

二倫行實圖原序: 正德戊寅(1518)...晉州姜渾書于晉之東阜村舍

印文: 學務衙門之印, 閒雲齋藏



위나라공조슈는선공의아들이오태조급의다
 른어미게나흔아이오공조삭의흔어미의게나
 흔형이라슈의어미삭으로더브러췌하여급을
 죽이려하여흔가지로선공의게참소하니공이
 급으로하여급제나라히스신이라하고도적을
 즈레보내여죽이라하니쉬알고급의게고하여
 드라나라흔대급이듯디아니하여곧오되아비
 병을타리면엇디죽식이라하니오하고장차항
 할시쉬술로급을먹여취게하고급의괴를만
 이아사몬져가니도적이괴를보고급인가하여

五命丁字類 卷四 兄弟

二



오륜행실도

五倫行實圖, 卷2

Oryun haengsilto

李秉模(朝鮮) 等奉教閱

木板本(整理字覆刻本) Woodblock Print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哲宗 10(1859)]

1卷1册(全5卷5册): 挿圖, 四周雙邊 半郭 21.5 x 14.0 cm,

10行20字, 上下向黑魚尾; 30.0 x 19.6 cm

한글對譯

學務衙門之印

印文: 開雲齋藏



五倫行實圖卷第二目錄

忠臣

龍逢諫死	欒成鬪死
石碯純臣	王蠋絕脰
紀信誑楚	蘇武杖節
朱雲折檻	龔勝推印
李業授命	嵇紹衛帝
卞門忠孝	桓彝致死
顏袁罵賊	張許死守
張興鋸死	秀實受笏

先武用龍

Handwritten notes and signatures in the right margin, including '先武用龍' and other characters.

原桂陷陣

朝本



金原桂爲泥城萬戶洪武丁丑倭賊寇宣州率兵赴
 援倭賊戰敗解圍去原桂乘勝逐之突入虜中遂爲
 賊所害諫官上言原桂素有驍勇之才提孤軍解重
 圍全城於幾陷追亡逐北突衝陷陳矢盡力窮竟以
 本振以一身之死易萬民之命其功烈烈死且不朽
 乞令攸司贈官且於本處立祠叙錄子孫獎勵忠魂
 教可

詩倭奴窺伺肆頑兇來寇宣城疾若風鐵甲將軍
 心膽壯解圍摧敵樹邊功長驅遠鬪救危城臨
 難何曾愛此生義氣凜然忠貫日聖朝追贈重褒

이륜행실도

二倫行實圖

Iryun haengsilto

金安國(朝鮮) 撰; 曹伸(朝鮮) 編

木板本 Woodblock Print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 挿圖, 四周雙邊 半郭 23.8 x 16.5 cm, 有界, 13行22字,

內向2葉花紋魚尾; 38.3 x 23.5 cm

卷首墨書: 英廟辛亥春印得於錦營題目晦軒先生手筆戊午秋泣血謹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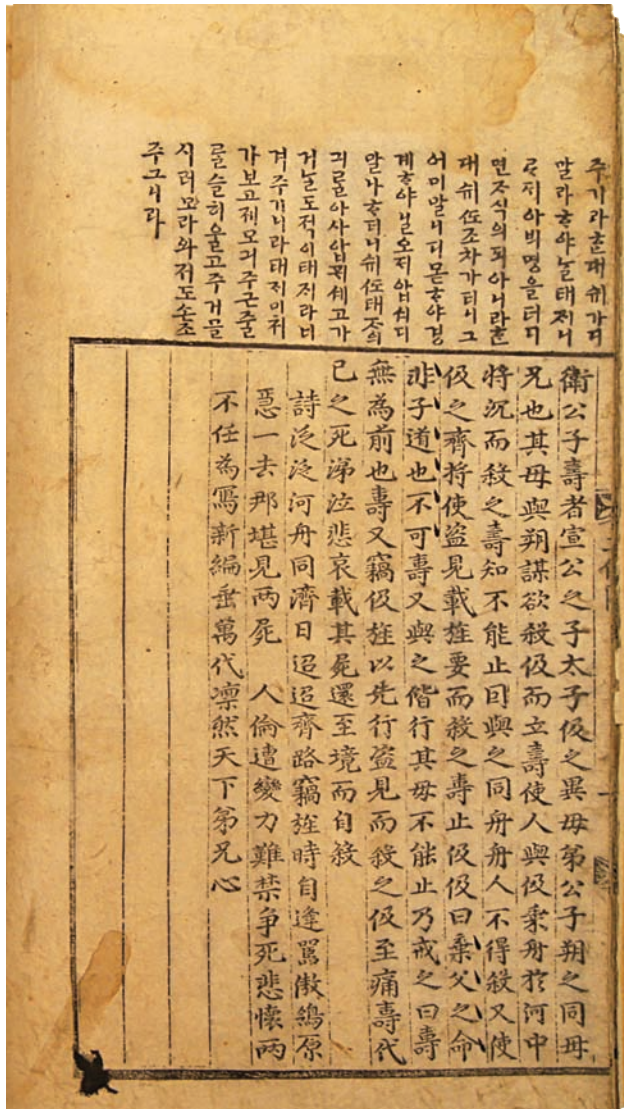
版心題: 二倫圖

頭註

序: 正德戊寅(1518)三月日晋川姜渾書于晋之東阜村舍

印文: 開雲齋藏





『이륜행실도』는 삼강에서 다루지 않았던 장유(長幼)와 붕우(朋友)의 윤리를 진작하기 위하여 만든 책이다. 김안국(金安國)이 주도하여 간행하였다. 중종 13년(1518) 처음 간행된 이후, 선조 12년(1579) 교서관(校書館)에서 간행하였고, 영조 3년(1727) 기영(箕營), 영조 6년(1730) 영영(嶺營), 해영(海營), 원영(原營)에서도 중간하였다.

이 책은 간기가 없어 정확한 간행지와 간행시기를 확인할 수 없다. 미국 버클리 대학 소장본과 동일본이다. 책 첫 장의 변란 바깥쪽에 『상감행실도』와 동일하게 ‘영조 7년(1731) 봄에 충청도감영에서 간행하였다. 제목은 회헌선생(晦軒先生)이 쓰고 무오년 가을에 고쳤다’는 목서가 적혀있어 1731년 이전 간행본임을 짐작할 수 있다.

Picture book for two basic virtues in Confucianism: old and young, companionate friends

태상감응편도설

太上感應篇圖說. 卷 1-5

T'aesang kamŭng p'yŏn tosŏl

崔瑄煥(朝鮮) 編

木板本 Woodblock Print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哲宗 3(1852)

5卷5冊: 挿圖, 四周單邊 半郭 22.8 x 16.7 cm, 12行22字,

上下內向黑魚尾; 31.4 x 20.5 cm

한글對譯本

序: 王雲錦拜手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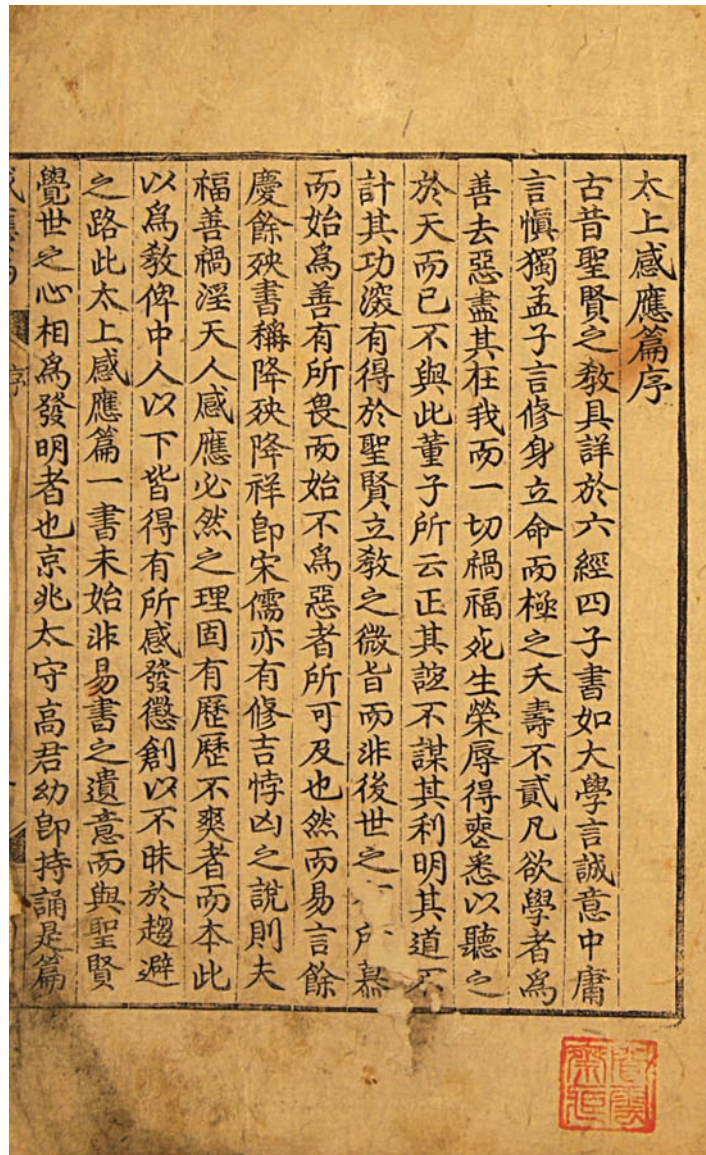
序: 遼海佟賦偉青士氏謹題

圖說序: 三韓朱作鼎瞿堂氏謹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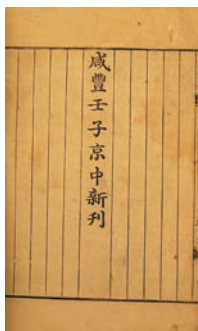
重刻序: 舊刻戊申歲後四年壬子藥城□□□甫謹書

刊記: 咸豐壬子(1852)京中新刊

印文: 閒雲齋藏



京師趙居先父年九十一母年九十四性皆嚴急居先夫
 婦侍奉勤謹孝行克諧每夕焚香為父母祈禱三尸上奏
 天帝遣飛天大神每日監察見其心嵩意一賜七子三壻
 皆列官職居先身證仙果
 은 거 선 의 부 백 부 모 성 기 불 지 극 히 호 여 미 야 의
 분 향 흥 이 부모 의 숙 를 린 하 는 의 흥 위 한 호 더
 상 위 비 현 된 신 을 보 되 야 날 마 다 그 정 성 을
 슬 피 시 리 에 칠 주 삼 너 를 두 게 호 사 다 관 작
 을 더 오 시 은 거 선 으 로 신 선 정 라 를 어 게 호
 신 라



『태상감응편도설(太上感應篇圖說)』은 청나라 허남증(許纘會)이 태상을 감응 시킬만한 사적을 담아 민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상(圖像)을 넣고 만주문자(滿文)로 간행한 책이다. 이를 최성환(崔理煥)이 입수하여 우리나라에서 헌종(憲宗) 14년(1848)에 중간한 이후 만주문자를 한글로 번역하여 철종(哲宗) 3년(1852)에 재차 간행하였다. 본문에서는 「태상감응편」에 해당하는 일화를 그림, 한문, 언해로 구성하여 소개하고 있다. 도설과 언해문으로 일반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반포한 권선서(勸善書)이다.

Taoism literature for judge right from wrong

태상감응편도설

太上感應篇圖說. 卷2, 5

T'aesang kamŭng p'yŏn tosöl

崔瑄煥(朝鮮) 編

木板本 Woodblock Print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哲宗 3(1852)

2卷2册(全5卷5册): 挿圖, 四周單邊 半郭 23.0 x 17.0 cm,

12行22字, 上下內向黑魚尾; 36.0 x 22.0 cm

한글對譯本

刊記: 咸豐壬子(1852)京中新刊

印文: 閒雲齋藏



太上感應篇圖說卷之二目錄

刑官善報	范純仁	王旦	楊旬	錢若水
刑官惡報	張慶			
梁統	李若水	周興	索元禮	張汝慶
史官善報	楊鐸	歐陽遇		李元禮
史官惡報	衛仲達			
江陰二生				
言官善報				

閒雲齋藏

王通判



浙省廣濟軍歲差殷實戶充役庫子以司出納有一家侵
 用官鑑無可為償府判王某素號殘忍乃拘其妻妾子女
 於官不足抵完遂以小舟載入西湖令陪客以質納官鮮
 于樞傷之作湖邊曲曰湖邊蕩槳誰家女綠慘紅愁羞不
 語低徊忍淚傷郎船貪得纏頭張歌舞玉壺美酒不須憂
 魚腹熊蹯棄如土陽臺夢短匆匆去鴛鴦生寒愁日暮安
 得義士擲千金遂令桑濮歌行露後府判子孫亦世世為
 娼矣

절강성광제군의희마다가음열고찰실흔비성을간
 히여창고스름시겨전지름출남하계항더니이적흔비
 성이이적창고스의색힌지리관침을출남하미스언이
 범용하니크쉬이의만코가산이랑진하여갑흔길이업

해동성적지

海東聖蹟誌, 卷1-2

Haedong sŏngjŏk chi

[編者未詳]

木板本 Woodblock 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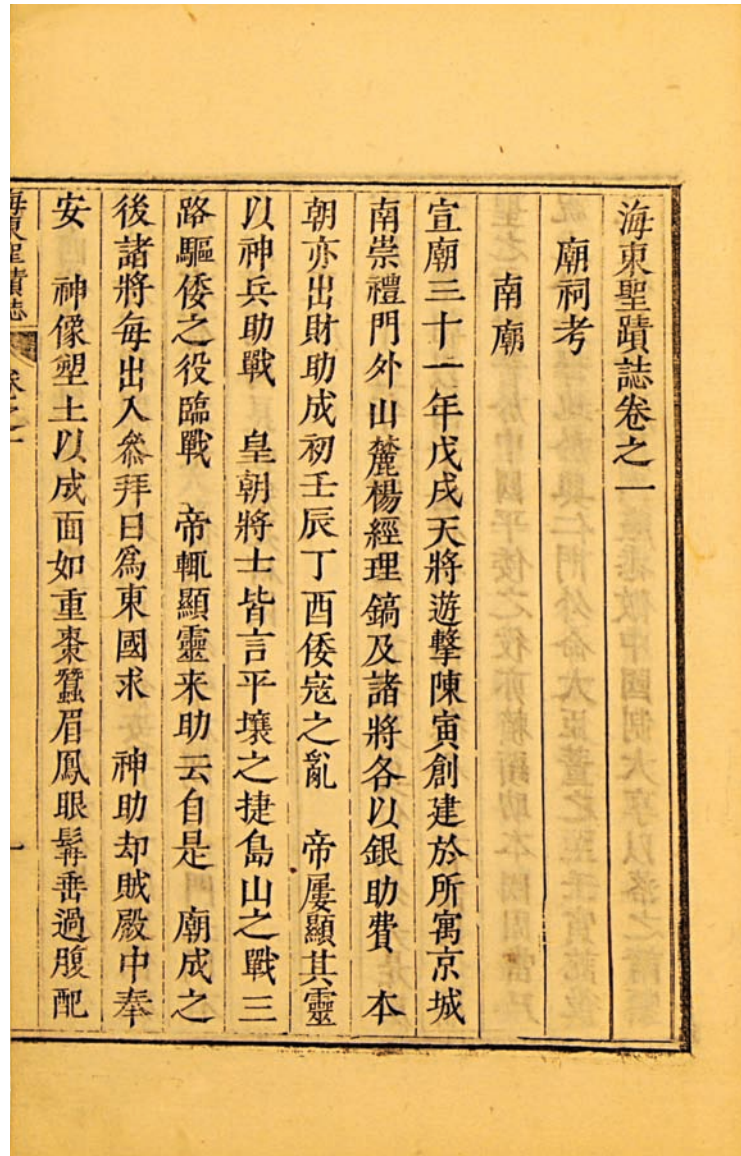
[發行地不明]: 檀國顯聖殿, 高宗 13(1876)

2卷1冊: 挿圖, 四周雙邊 半郭 22.2 × 15.4 cm, 有界, 10行21字,
上下向黑魚尾; 31.3 × 20.5 cm

表題紙: 光緒丙子(1876)孟秋鐫 檀國顯聖殿藏板

印文: 間雲齋藏





『해동성적지(海東聖蹟誌)』는 관우(關羽)를 향사한 관왕묘(關王廟) 및 관제(關帝)신앙에 관해 기술한 책이다. 관제신앙은 중국 삼국시대의 관우(關羽)를 관왕(關王)으로 높이고 숭배하는 신앙을 말하는데,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인들을 통해 조선에 전래되었다고 한다. 동관왕묘·남관왕묘를 비롯한 경향 각지 관왕묘의 창건 시말, 축문과 제문을 비롯한 제사의 규모와 절차, 관제신앙을 통하여 얻은 영험 사례를 자료 제시와 함께 기술하고, 관제신앙에 관련된 제가의 각종 시문을 분류별로 수록하고 있다. 고종 13년(1876)에 단국현성전(檀國顯聖殿)에서 주관하여 발행하였다.

A record of an ancestral tablet and historical site of Guan Yu



集部

광국지경록	112
등번집	114
목천자전	116
서한지	118
주문공교창려선생집	120
정보연간독	122
태학지경시	124

광국지경록

光國志慶錄

Kwangguk chigyǒngnok

肅宗(朝鮮) 命編

木板本 Woodblock Print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肅宗 29(1703)]

1冊: 四周雙邊 半郭 23.4 x 17.0 cm, 有界, 7行16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3.4 x 22.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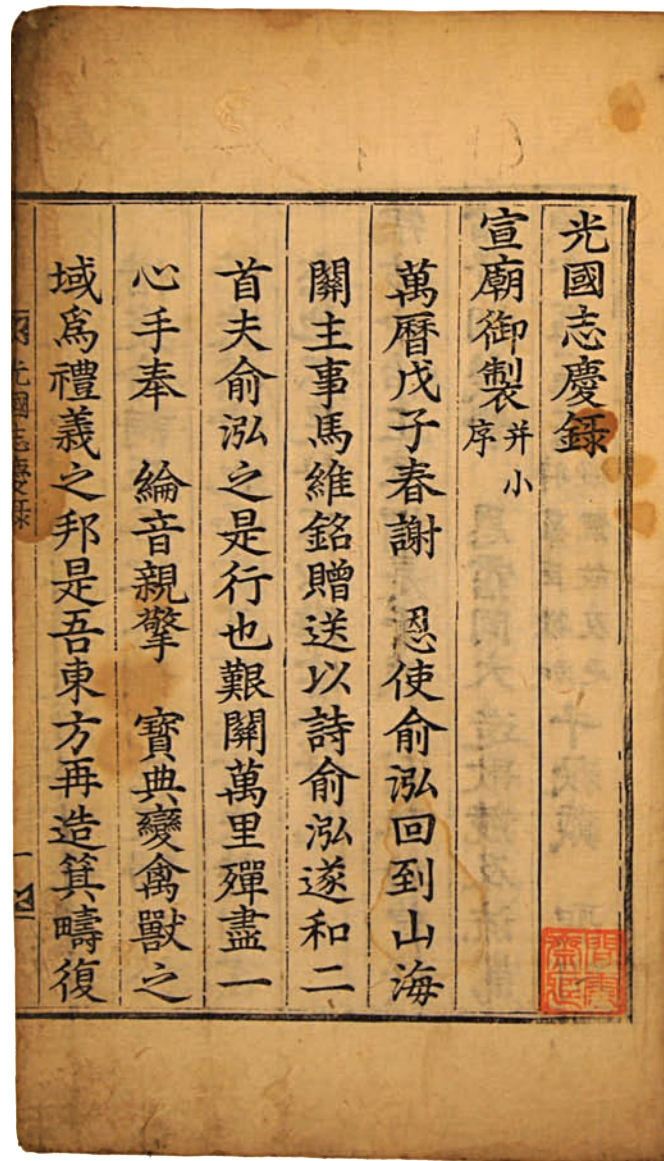
宣廟御製: 萬曆戊子(1588)...當宁御製御筆

歲辛巳(1701)春二月己卯題

御製詩軸跋: 山海 謹跋

跋: 李奮 拜手稽首謹跋

印文: 閒雲齋藏





명(明)나라 『태조실록(太祖實錄)』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권신(權臣)인 이인임(李仁任)의 아들로 잘못 기록되어 조선에서 정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선조 17년(1584)에 종계변무주청사(宗系辨誣奏請使) 황정욱(黃廷彧, 1532-1607)이 명나라에 가서 변무의 일을 성사시켜 정정키로 확정하고, 선조 21년(1588) 유홍(俞泓, 1524-1594)이 고쳐진 『대명회전』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 책은 이러한 종계변무(宗系辨誣)를 마치고 여러 신하들과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선조가 직접 시를 짓고, 신하들이 화답한 것을 모은 것이다. 선조가 쓴 선묘어제(宣廟御製), 숙종이 쓴 당저어제어필(當寧御製御筆), 신료들의 갱진시, 반사시전교(頒赦時傳敎), 반사교문(頒赦敎文), 사은표(謝恩表), 태학유생헌축(太學儒生獻軸), 어제시축발(御製詩軸跋), 발문(跋文)으로 구성 되어있다. 조선왕조실록 숙종 29년 4월 26일 기사에 좌참찬(左參贊) 이여(李翬)가 명령을 받아 『광국지경록』의 발문(跋文)을 지어 올렸다는 기사가 있어 숙종 29년(1703)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Collection of poems recording the event to request Ming Dynasty to revise the wrong lineage about the King Taejo(1335-1408)

동번집

東樊集. 卷3-4

Tongbönjip

李晩用(朝鮮)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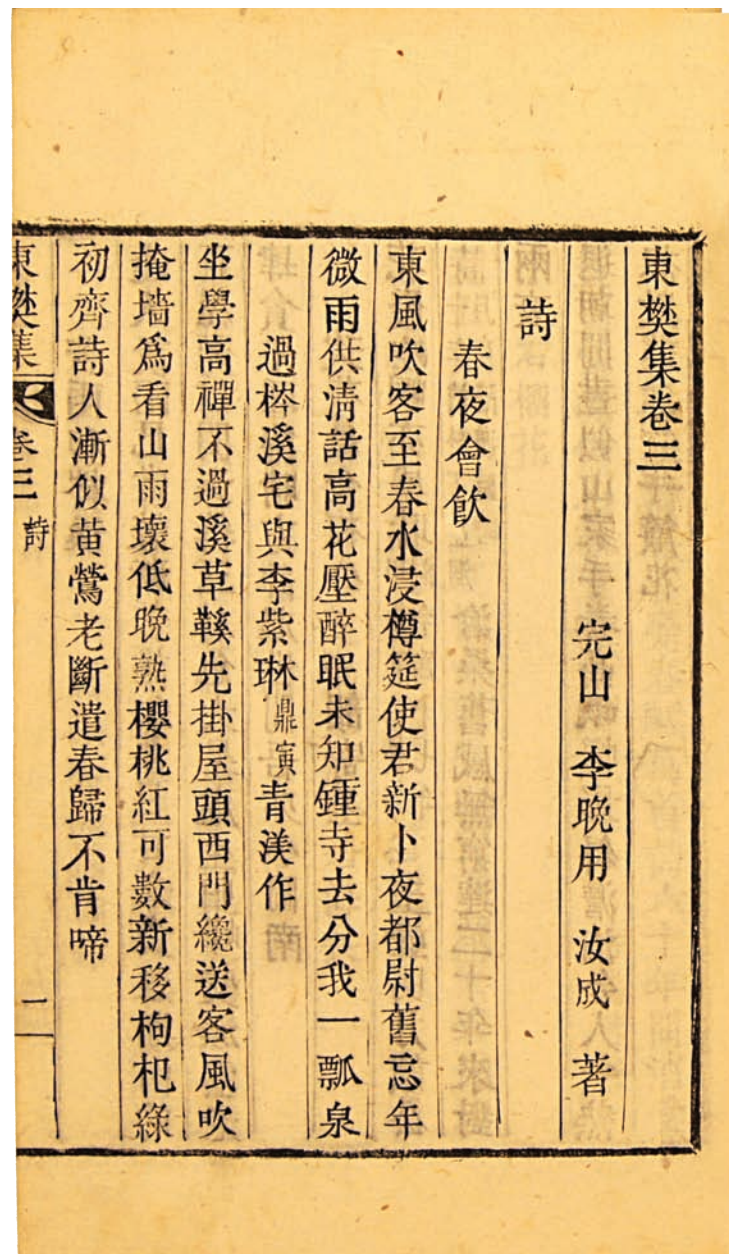
金屬活字本(全史字多混入補字本) Metal Type 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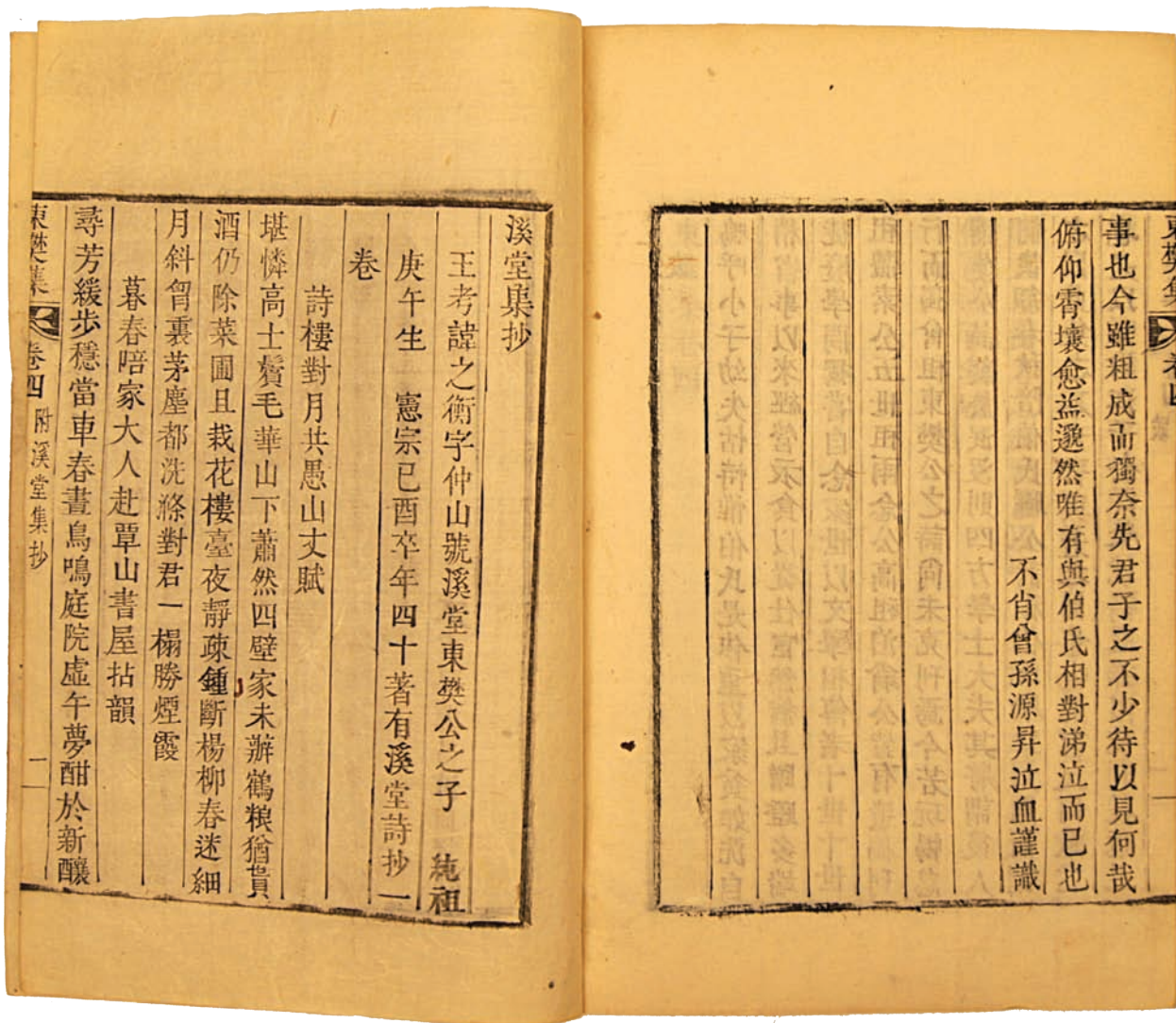
[發行地不明]: 李源昇, 隆熙 3(1909)

2卷1册(全4卷2册): 四周雙邊 半郭 21.7 x 15.2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向2葉花紋魚尾; 31.0 x 20.5 cm

跋: [李]源昇 泣血謹識

溪堂集抄: [李]源昌 泣血謹跋





事也今雖粗成而獨奈先君子之不少待以見何哉
俯仰霄壤愈益邈然唯有與伯氏相對涕泣而已也

不肖曾孫源昇泣血謹識

溪堂集抄

王考諱之衡字仲山號溪堂東樊公之子 純祖

庚午生 憲宗己酉卒年四十著有溪堂詩抄一

卷

詩樓對月共愚山丈賦

堪憐高士鬢毛華山下蕭然四壁家未辦鶴糧猶費
酒仍除菜圃且栽花樓臺夜靜疎鍾斷楊柳春迷細
月斜曾裏茅塵都洗滌對君一榻勝煙霞

暮春陪家大人赴覃山書屋拈韻

尋芳緩步穩當車春晝烏鳴庭院虛午夢酣於新釀

東楚集 卷四 附溪堂集抄

조선후기의 시인 이만용(李晩用)의 시문집(詩文集)이다. 권3에는 시 226수, 권4에는 각체(各體)의 문(文) 10편이 실려 있다. 후손이 빈한(貧寒)하여 미처 간행되지 못하다가 30여 년이 지나 증손 이원창(李源昌)·이원승(李源昇) 형제에 의해 간행되었다. 권말에는 이원승의 발문이 있고 이어서 부록으로 『계당집초(溪堂集抄)』가 실려 있는데, 동번(東樊) 이만용의 아들인 이지형(李之衡)의 부(賦) 1편과 시 1수가 실려 있다. 여기에는 이원창(李源昌)의 발문이 있다.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of Lee Manyong

목천자전

穆天子傳. 卷1-6

Mokchönjajön

郭璞(晋) 註, 郡汪明(吳) 際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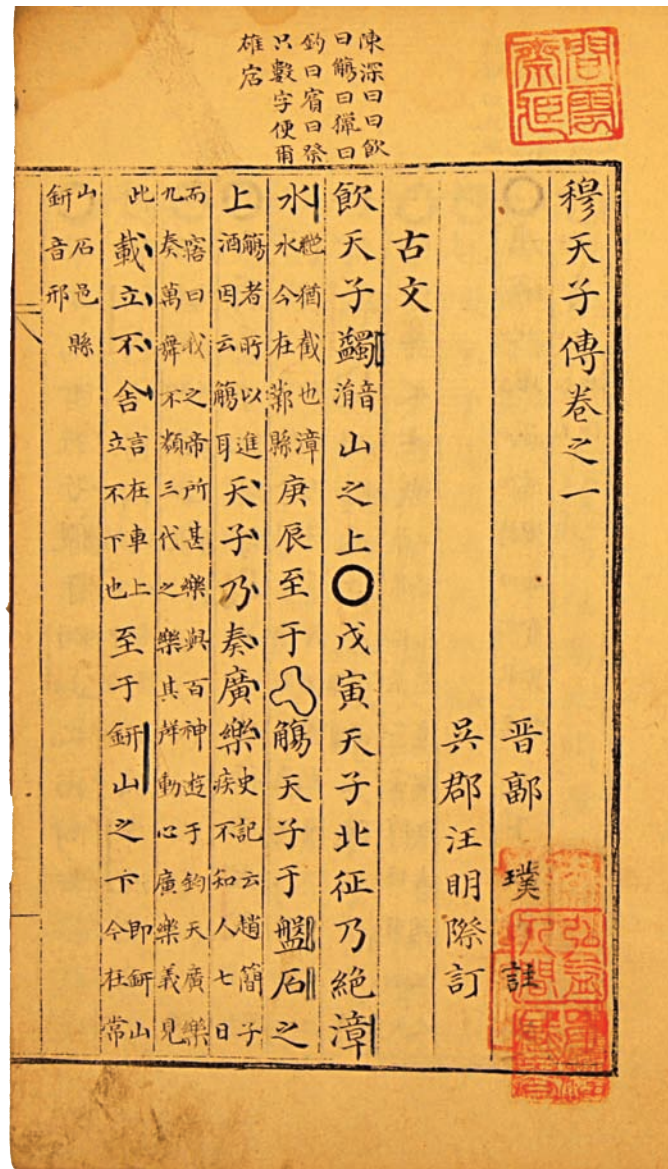
筆寫本 Manuscri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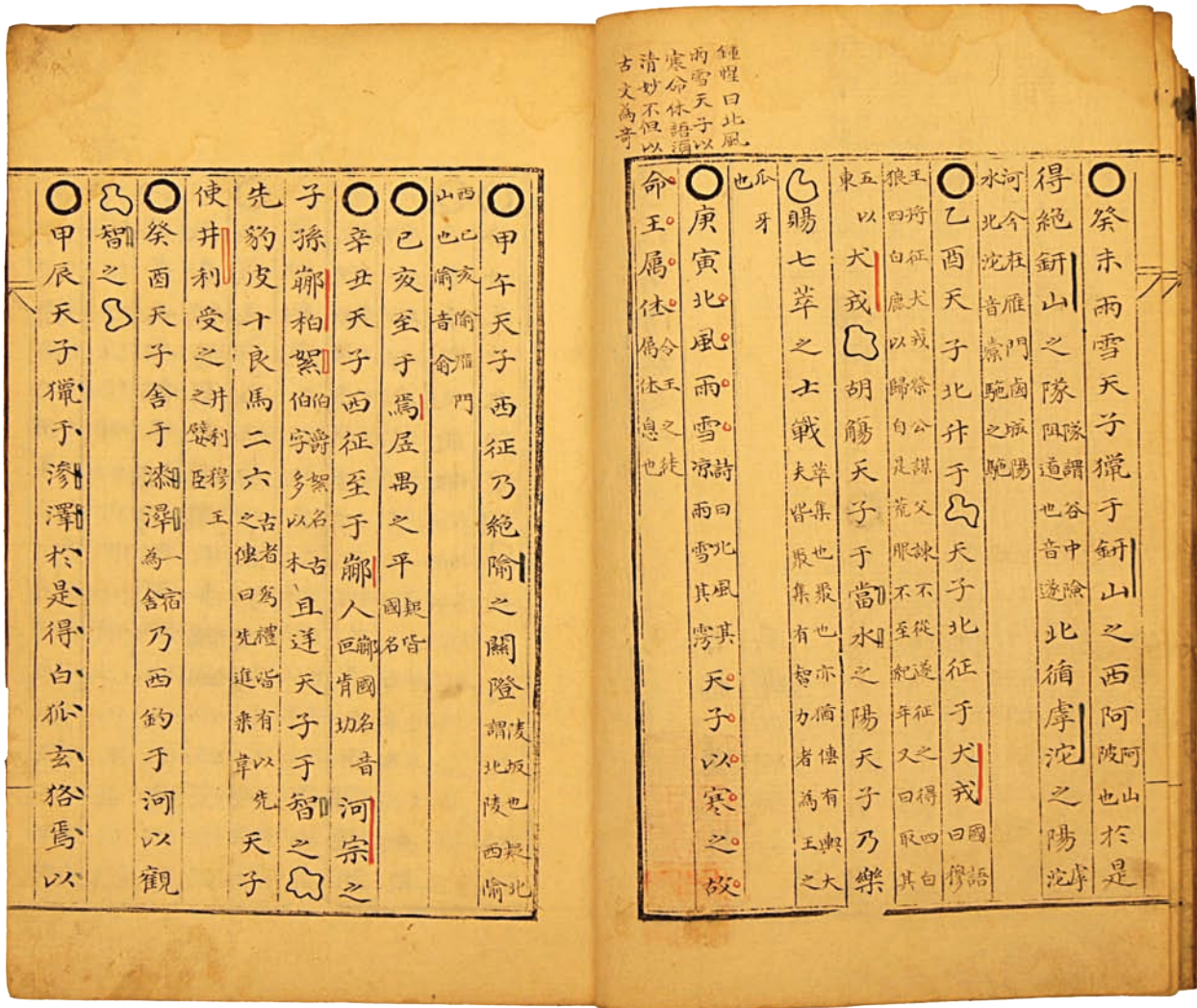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藏書印: 開雲齋藏, 弘益人間

6卷1冊: 四周雙邊 半郭 19.1 × 12.3 cm, 10行18字 註雙行,

上下向白魚尾; 25.6 × 16.5 cm





『목천자전(穆天子傳)』은 서진(西晉) 무제(武帝) 태강(太康) 2년(BC 281)에 급현(汲縣) 사람인 부준(不準)이 위(魏) 양왕(襄王)의 무덤을 도굴하다가 발견한 죽서(竹書)이다. 순욱(荀勗) 등이 금체문자(今體文字)로 바꾸고 제명도 붙였다. 주(註)는 동진(東晉)의 곽박(郭璞)이 달았다. 『목천자전』은 주나라 목왕(穆王)의 서방여행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권1부터 권5까지는 주목왕이 팔준마를 타고 서쪽으로 곤륜(崑崙)에 이르러 서왕모(西王母)를 만나는 과정이 서술되고 있고, 권6은 여행도중 주목왕의 총희인 성희(盛姬)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소설이다.

Chinese novel on the travels of Mu, Son of Heaven

서한지

西漢誌

Sóhan chi

[著者未詳]

筆寫本 Manuscript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光武 10(1906)]

1冊; 33.5 × 21.5 cm

書名은 表紙名임

墨書: 舟人 崔長孫 大韓光武拾年丙午年(1906)十一月

西漢演義

한글본임





표지명은 서한지(西漢誌), 내지에는 서한기(西漢記)라고 적혀있다. 내용은 중국의 역사소설인 『서한연의(西漢演義)』를 번안한 한글소설이다. '대한광무십년병오년(大韓光武拾年丙午年)' 목서가 있어 1906년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Chinese historical novel
translate into Korean

주문공교창려선생집

朱文公校昌黎先生集, 卷27-29

Chu Mun'gong kyo Ch'angnyŏ Sŏngsaeng chip

韓愈(唐)撰; 朱熹(宋)考異

木活字本(庚午字體訓練都監字) Wooden Movable Type 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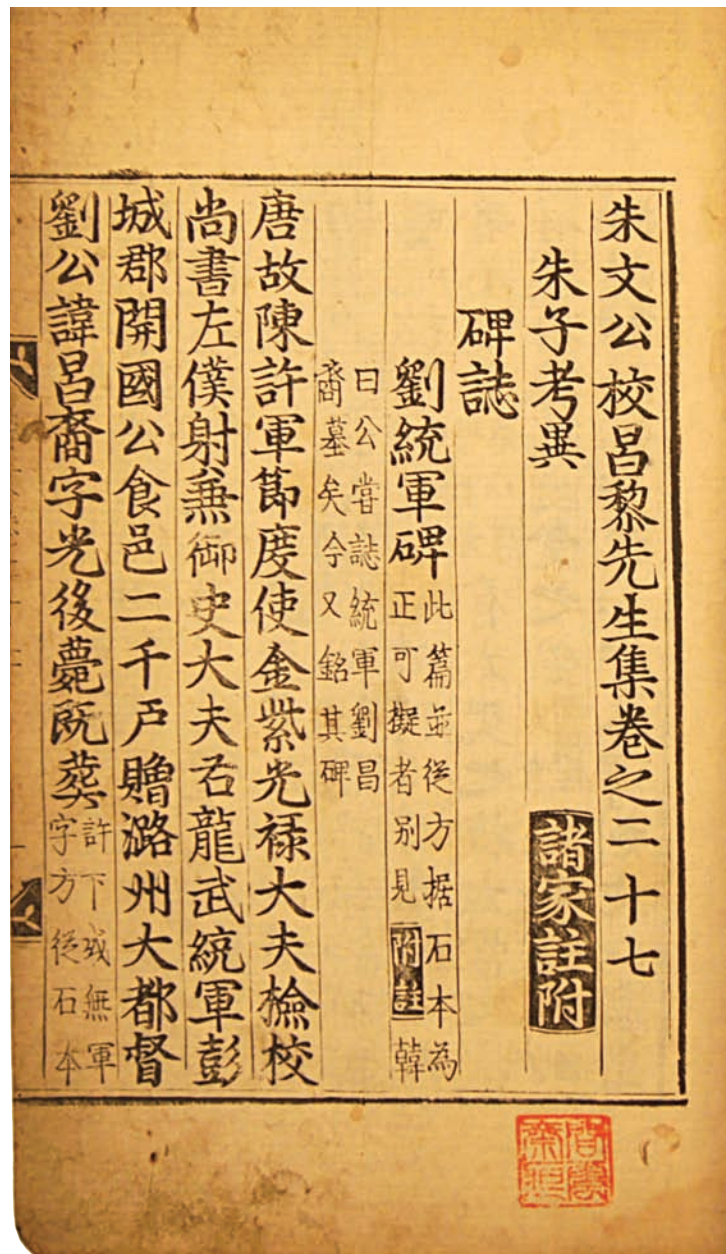
[發行地不明]: 訓練都監, [光海君 2(1610)]

3卷1冊: 四周雙邊 半郭 23.7 x 15.0 cm, 有界, 9行16字 註雙行,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5 x 21.4 cm

表題: 昌黎集

庚午字混入

印文: 閒雲齋藏





即下城明年某甲子葬河南某縣某
有中鄉某原公不好音聲不大為居宅於諸帥
 中獨然夫人邠國夫人武功蘇氏子四人
 嗣子光祿主簿繼學於樊宗師士大夫多
 稱之長子元一朴直忠厚便弓馬為淮南
 軍衙門將使非是次子景陽景長皆舉進
 士葬得日相與選使者哭拜階上使來乞
 銘銘曰
 提將之符尸我一方配古侯公維德不爽

祝曰我銘不亡後人
楚人謂美敗曰爽
洪曰爽慶皆當叶韻
沈存中云古人壽無彊
並收入平聲

朱文公校昌黎先生集卷之二十九

『주문공교창려선생집(朱文公校昌黎先生集)』은 당나라 한유(韓愈)의 시문집인 『창려선생집(昌黎先生集)』에 왕백대(王伯大)가 주희의 『고이(考異)』를 집어넣고 음 풀이를 하여 새로 편찬한 것이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종종 때 초주갑인자로 인출하였고, 이후 광해군 연간에 훈련도감자로 인출되었으며, 이 훈련도감자본을 저본으로 복각한 목판본과 무신자본 등이 현존하고 있다. 이 책은 광해군 재위시에 안평대군의 글씨를 자본으로 삼아 주성한 경오자본을 저본으로 목각한 경오자체훈련도감자로 훈련도감에서 인출한 것이다. 국내에서 완질이 발견되지 않은 희귀본이다.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of han yu

정보연간독

정보연간독, 상, 하

Jeungbo eongandok

[著者未詳]

木板本 Woodblock Print

[發行地不明]: 治洞, 高宗 23(1886)

2卷1册: 四周單邊 半郭 20.7 x 16.5 cm, 有界, 15行32字 註雙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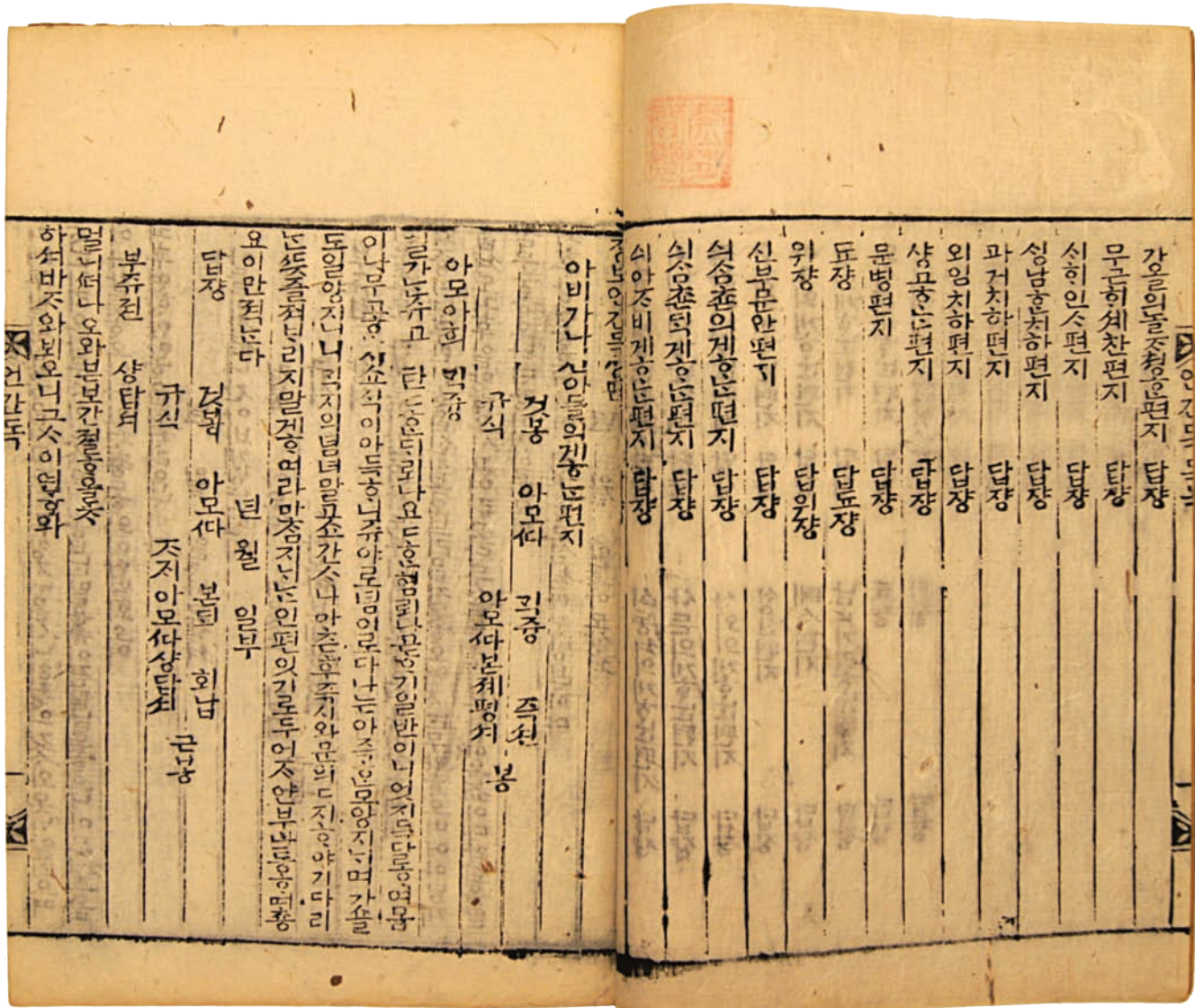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28.5 x 18.5 cm

한글본임

刊記: 丙戌(1886)十一月 治洞新刊

上下內向黑魚尾混入

印文: 閒雲齋藏



간을의물조침은편지 답장

무근히체찬편지 답장

식히인스편지 답장

싱남출취하편지 답장

과거치하편지 답장

외임치하편지 답장

상요충은편지 답장

문병편지 답장

도장 답장

위장 답장

신분은한편지 답장

식습촌의계은편지 답장

식습촌의계은편지 답장

외아조비계은편지 답장

아미가나 신이들의계은편지

정몽 아모사

규식 아모사

아미아회 인주

아모사본체평서 봉

아모사본체평서 봉

아모사본체평서 봉

아모사본체평서 봉

아모사본체평서 봉

아모사본체평서 봉

아모사본체평서 봉

아모사본체평서 봉

아모사본체평서 봉

아모사본체평서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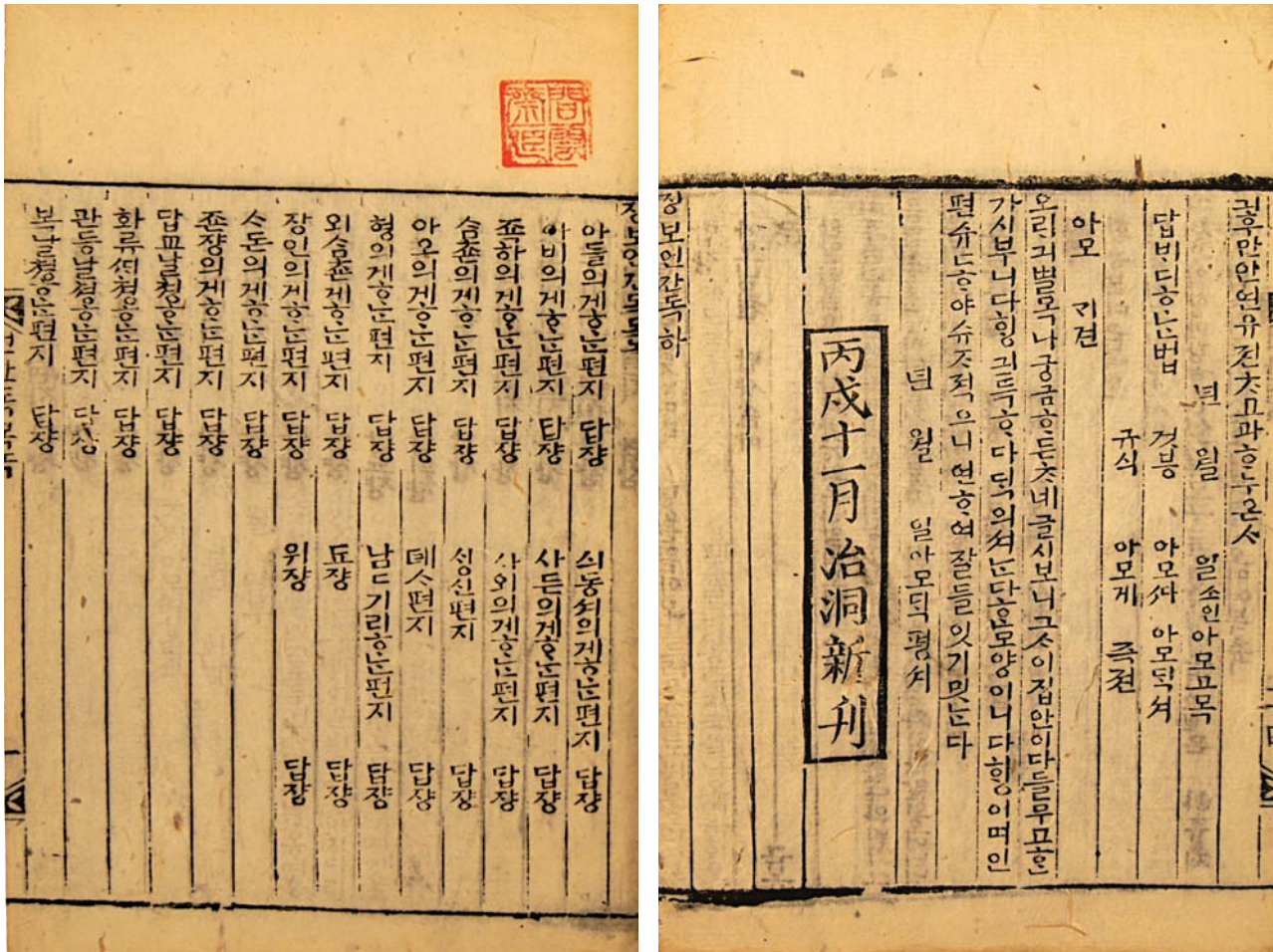
아모사본체평서 봉

아모사본체평서 봉

아모사본체평서 봉

아모사본체평서 봉

아모사본체평서 봉



『정보언간독』은 당시 일상생활에서 쓰이던 한글 편지의 서식(書式)을 모아 놓은 규식서이다. 이 책은 사대부가의 부녀자 및 일반 서민들에게 편지 쓰기의 교과서 역할을 했다. 내용은 아들, 아버지, 조카, 삼촌, 아우, 형, 외삼촌, 장인, 사돈, 존장 등에게 보내는 편지, 정월 보름날 밤에 다리를 밟는 풍속에 초대하는 답교(踏橋) 편지, 봄날 꽃과 버드나무 구경에 청하는 화류(花柳) 편지, 아들 낳은 것을 축하하는 생남(生男) 편지, 과거 합격을 축하하는 편지, 문병(問病) 편지, 조상(弔喪)하는 뜻을 담은 조장(弔狀) 등 각 상황과 목적에 따른 편지의 서식이 순한글로 소개되어 있다. 해당 편지마다 먼저 편지 봉투의 서식을 제시하고, 실제 내용에 해당하는 본문과 마지막 인사말 등을 적은 맺음말을 예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고종 23년(1886) 아동(冶洞)에서 간행한 방각본이다.

Casebook for Korean letter

태학지경시

太學志慶詩

T'ae hak chikyong si

鄭賀始(朝鮮)...等著

金屬活字本(校書館印書體字) Metal Type Print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正祖 14(1790)

1冊: 四周雙邊 半郭 21.7 × 13.7 cm, 有界, 10行20字,

上下向白魚尾; 29.7 × 18.4 cm

表題紙: 庚戌季秋...芸閣活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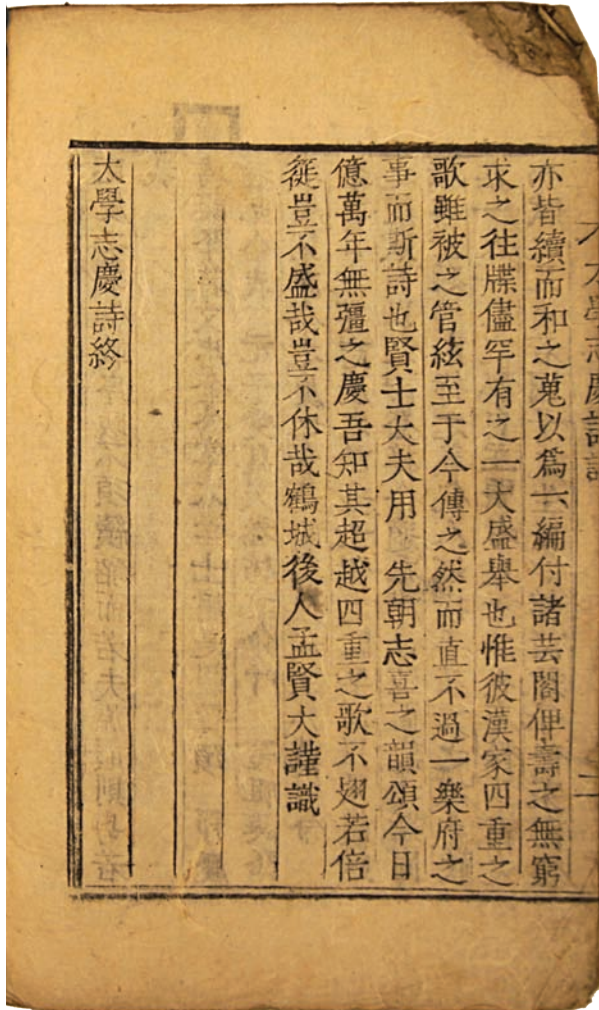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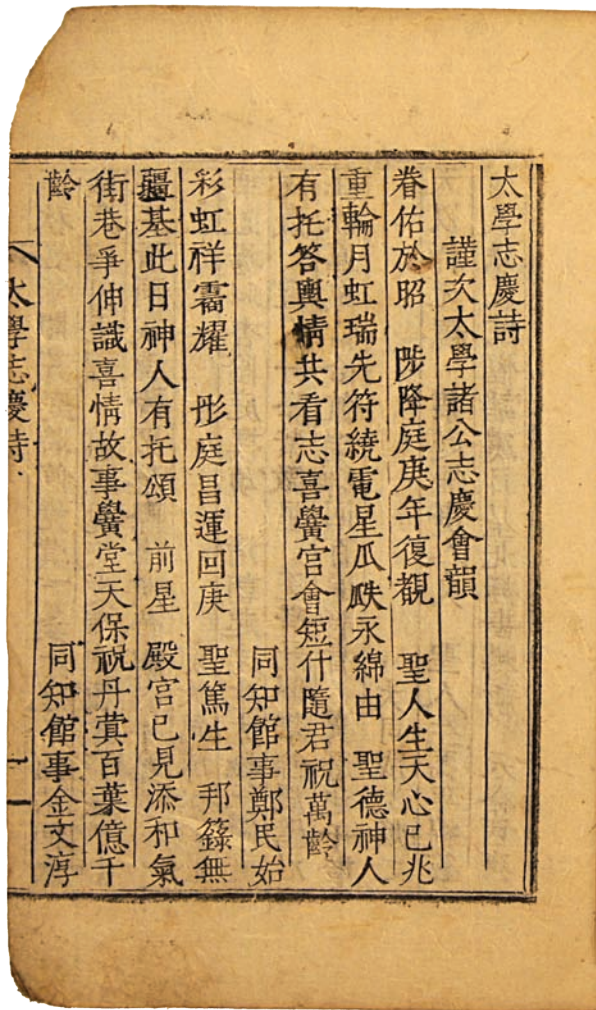
序: 聖上十有四年庚戌(1790)……是歲之九月下澣達城後人 徐鼎修 謹序

跋: 是歲之臘月初吉青松 沈煥之 謹跋于尾

鶴城後人 孟賢大 謹識

印文: 閒雲齋藏





원자가 탄생한 지 백 일째 되는 정조 14년(1790) 9월 29일 비관당(丕闡堂)에서 지경연(志慶宴)을 열고, 이 연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김수항(金壽恒)의 운에 따라 지은 시 120편을 모아 엮은 책이다. 「근차태학제공지경회운(謹次太學諸公志慶會韻)」이라는 제목 아래에 정민시(鄭民始), 김문순(金文淳), 서정수(徐鼎修), 심환지(沈煥之), 오태현(吳泰賢), 한흥유(韓興裕), 이승운(李升運) 등 성균관의 전 현직 관리 7명의 시가 있다. 그 다음에는 「근차문곡김공지희시운(謹次文谷金公志喜詩韻)」이라는 제목 아래에 113명의 시가 있다. 시 113편을 지은 사람들의 직급은 생원이 34명, 진사가 59명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사직령(社稷令) 1명, 전 군수 1명, 전 참봉 2명, 참봉 1명, 유학 15명 등이다. 생원과 진사의 작품배열은 연령순이고, 유학 15명의 시는 시의 마지막에 배열되어 있다. 맨 끝에는 35번째 수록된 시를 지은 진사 맹현대의 지(識)가 있다. 수록된 120편의 시는 원자의 탄생을 축하하고 장수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Poem and response in one hundredth day anniversary of crown prince



국외소재 한국 고문헌 조사보고서 5

미국브린모어대학 소장 한국 고문헌

Helen Chapin Korean Book Collection in the Bryn Mawr College Library

발행일 | 2017년 12월 31일

발행자 | 박주환

발행처 |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TEL 02.590.0575

FAX 02.590.0712

<http://www.nl.go.kr>

Banpodaero 201,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137-702

TEL +82-2-590-0575

FAX +82-2-590-0712

디자인·인쇄 | 공감

ISBN 979-11-88800-02-5

©2017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